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1-09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연구

길은배(한국청소년개발원 책임연구원)
이종원(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최원기(한국청소년개발원 책임연구원)

통 일 연 구 원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1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산하 7개 국책연구기관과 2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요 약

1. 서 론

본 연구는 그동안 심화되었거나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남북한의 사회문화 구조와 청소년들의 이질성과 동질성 실태를 비교적 시각에서 고찰함으로써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을 구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중심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노력은 그동안 정치 및 영토상의 체제통합에 중점을 두어 왔던 남북한 통합논의의 접근 시각과 범위를 새롭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사회에서 통합논의는 분리된 정치적 실체로서의 남북한이 하나의 체제, 하나의 국민으로 합쳐지는 방법과 과정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과정과 이후에 전개될 지역간·계층간·집단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접근 기제를 탐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론적 명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중심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노력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보다 통일과정 또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내적 통합, 즉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과정론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형성되어 온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구조와 이의 영향 하에 있는 청소년들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우리 청소년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와 탈북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방안을 구안한다.

2.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특징

가. 사회문화적 특징

남북한은 각기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인민주의를 지향하

면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상극성을 지닌 체제로 사회변동을 경험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는 상당한 이질화를 겪어왔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상이한 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남북한 양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정향을 비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은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북한은 집단주의를 중요시하는 특징을 들 수 있다.

둘째, 남한 문화의 다양성과 북한 문화의 획일성을 들 수 있다.

셋째, 남한의 권위주의 문화와 북한의 계급문화를 들 수 있다.

넷째, 남한 문화의 개방성과 북한 문화의 폐쇄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사회문화 구조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유는 북한문화의 혁명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의 완결을 위하여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사유재산을 몰수하였으며, 토지개혁을 단행하였고 생산과 노동의 집단화를 실천함으로써 집단노동, 집단주의 문화가 발달하였다. 반면, 남한은 급격한 산업화의 진전과 서구사조의 유입에 따른 전통문화의 변질, 그리고 구성원의 가치체계가 변화되어 북한과는 많은 부분에서 상이한 사회문화적 구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남북한 청소년의 행동양식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사회문화 구조는 성격과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이질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하위구조에 놓여 있는 남북한 청소년간의 의식과 행동양식은 양쪽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크게 영향 받고 있어, 더욱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집단주의와 이기적·개인주의를 들 수 있다.

둘째, 배타주의와 극단주의를 들 수 있다.

셋째, 몰개성화와 다양한 개성의 행동양식을 들 수 있다.

넷째, 일원적 절대주의와 다원적 상대주의를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남북한 청소년간에 형성되어 있는 의식이나

행동양식은 그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현 단계에서 사회문화분야의 동질성 증진을 전제로 추진되는 제노력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양쪽의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논리적 근거이다. 즉, 사회문화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노력은 간접적으로, 그리고 청소년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노력은 남북한 청소년들의 의식 및 행동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문화는 타 문화와의 접촉시 연령과 계층을 포함하여 교차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 사회문화 구조의 이질적·동질적 측면

사회문화적 이질화를 체제 이질성과의 인과관계에서만 바라보는 태도는 단순성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들뿐만 아니라, 체제경쟁이라는 냉전적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갖는다.

먼저, 남북한의 사회문화분야를 중심으로 한 이질화는 전 부문에 걸쳐 상당히 심화되어 있다. 이념체계는 남한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적 가치관 등이 형성되어 있으나, 북한은 주체사상, 사회주의적 가치관 등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이념체계는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대결구도와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체제의 이질화에서 비롯된 다양한 통일정책은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소속 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규범적 가치의식은 남한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도덕관이 확립되어 있고, 합리적 사고가 사회운영의 기본 원리로 정착되어 있으나, 북한은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과 집단주의적 가치를 더 중시하며, 혁명적 사고를 절대시하는 원리가 만연해 있다. 이것은 남한 사회가 다원적이며 다양한 경쟁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어, 융통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사회인 반면에 북한 사회는 경직되고 자율성이 근원적으로 차단된 사회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남한 사회는 산업화·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역동적 미래지향성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폭넓게 퍼져있으나, 북한 사회는 폐쇄적·통제적 통치구조와 미분화된 사회구조를 갖고 있음에 따라 근대성보다는 전통적 가치에 보다 매몰되어 있다.

그리고 남북한은 전통문화, 전통규범, 그리고 언어 등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초기 발달단계에서 그들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부터 사회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남북한 사회에 남아있는 전통문화, 전통규범 등과 같은 관습 및 전통적 가치와 더불어 그들의 부모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가족온정주의, 가부장주의 등과 같은 가치정향에 영향을 받아 여러 부문에서 유사한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남북한 청소년 의식비교 및 시사점

가. 동질성

(가) 청소년 문화

우선, 학교생활에 있어 찾아볼 수 있는 남북한 청소년 문화의 동질성은 교과 과정상 수학이나 기타 과학과 관계된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탈북청소년들의 이야기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학은 그들이 남한에 와서 공부하는 경우 가장 무리 없이 오히려 쉽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북한에서 수학은 중요한 기초과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학 과목에 있어 용어상 차이점을 제외하면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수업이 여타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보충수업을 하는 부분도 형식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부분인 것 같다. 또한 학교 교실을 통해 점차 무너져 가는 교사의 권위나 위상도 현재의 남북한을 비교해보았을 때 동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원인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나타나는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한 측면이 보여진다.

한편, 청소년 문제행동의 측면에 있어서도 남북한 청소년 행동의 공통점이 확인되어진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오늘날 급

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그 정도나 외형적 특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 폭력이나 가출 등도 남북한 사회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들 중 하나이다.

여가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악기(기타)나 카세트 등을 틀고 음악을 즐기고자 하는 것, 즉 청소년 여가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음악과 스포츠(축구, 당구 등) 등이 주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등은 매우 유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

남북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정도는 남한과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간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북한 청소년들의 경우 현재의 경제난과 같은 어려움의 원인이 남북분단에 있다고 봄으로써 분단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남한 청소년들 역시 조사결과를 보면 남북 분단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48.1%에 달하는 등 분단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들의 경우 탈북청소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남북 분단상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정도가 남한의 정도보다 매우 높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등 인식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다)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남북 청소년들간 태도는 매우 유사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한 청소년들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81.8%가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와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에 응답하고 있으며, 북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고 또한 지금까지 교육받아왔던 교육내용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어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체제 청소년들 모두 통일

의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남북한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남북한 동질성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 남북 청소년 모두 가장 중요한 과제로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지적하고 있는 등 의식의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남한 청소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28.7%가 이 응답항목에 응답하고 있으며, 북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접에 응한 탈북청소년들 중 대다수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이와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다소의 상이함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남한 청소년들은 다른 과제들, 예를 들면 ‘북한사회의 개혁, 개방(25.7%)’, ‘남한과의 교류, 협력 확대(25.4%)’ 등에도 중요성을 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은 대부분이 김정일 체제의 붕괴에 응답함으로써 그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나. 이질성

(가) 청소년 문화

우선 대표적인 부분으로서 학교생활에서의 교과내용상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남한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다양한 과목에 대한 경쟁위주의 교육을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해 받고 있는 데 반해, 북한 청소년들은 계층 성분이나 가족의 사회적 위치 등에 의해 이미 어느 정도 상급학교(대학)로의 진학 가능성이 결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한국에서와 같은 경쟁적 모습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남한 사회에서 왕따와 같은 이지메식 폭력이 일반적인데 반해 북한에서는 집단 패싸움과 같은 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상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는 남녀 합반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이성교제가 활발하지 않은데 반해 남한에서는 어느 경

우이든 청소년들 사이에 남녀 이성교제가 보다 보편적이고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도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의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두 문화간의 상이함은 더욱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남한 청소년들의 여가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북한 청소년들의 여가는 아예 그 개념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서 따라서 여가의 수준이 매우 열악하며, 그 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력이나 음주, 흡연 등과 같은 지위비행적 차원을 통해 여가를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노래방, pc방, 영화관 등을 이용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

통일에 대한 당위성에서 보여주었던 동질적 태도와는 달리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다소 이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한 청소년들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가 31.0%, 그저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49.8%, 그리고 관심이 없다에 응답한 경우가 19.2%의 수치를 보였다. 이를 확대 해석한다면 70%이상의 청소년들이 남북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매우 적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면접결과 피면접자 전체가 통일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이는 곧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밀접히 연계되어졌었다. 북한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관심 정도가 상호 일치되는 데 반해 남한 청소년들은 두 항목간 태도의 상이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이함은 북한 청소년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진정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대다수의 남한 청소년들은 교과서적 통일 희망과 현실적 관심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통일의 장애요인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도 남북 청소년들의 태도간에는 다소의 이질성이 관찰되어진다. 여러 응답항목들 중 남한 청소년들은 ‘북한이 공산주의체제 고수’가 통일을 위해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 ‘남북한의 이념대립’ 등을 그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반면, 북한 청소년들은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미군 주둔’과 남한의 정부를 지목하고 있는 등 양 체제 청소년들간의 관점에 있어 커다란 이질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경우 정보의 차단과 사상교육의 강화 등으로 이루어진 왜곡된 관점 주입에 의해 그와 같은 태도가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라) 통일을 위한 과제

앞서 살펴보았던 남북한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에서와는 달리 통일을 위한 과제에서는 남북한 청소년간 이질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한 청소년들은 통일을 위해 중요시해야할 과제로 ‘남북한간 상호 이해 및 신뢰구축’,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 ‘서신왕래 및 이산가족 등의 상호방문’ 등에 응답했지만, 북한 청소년들은 동질성 증진 과제에서와 동일하게 무엇보다도 김정일 체제의 붕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볼 수 있는 햇빛 정책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서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마) 전통적인 규범이나 관습의 사회적 영향력

면접 대상 탈북 청소년들은 대부분 남한 사회가 한국적 전통을 더 잘 보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사회는 김일성 유일체제로서 전통이나 역사에 대한 교육이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남한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 편 남한 청소년들은 권위주의, 가부장주의, 남존여비사상, 상부상조의 관습, 부모에 대한 효도 관념, 조상숭배 사상, 노인공경 의식 등 비교적 전통적인 것에 가깝다고 판단되어 지는 가치관들이 북한 사회에서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등 북한 사회를 더욱 전통적인 사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남북한 청소년 행동특성에 대한 상호 의식비교

남한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청소년들의 행동특성은 대부분 ‘타율적이다’, ‘집단주의적이다’, ‘몰개성적이다’, ‘폐쇄적이다’, ‘엄격하다’, ‘협동적이다’, ‘성실하다’, ‘근면하다’, ‘비사교적이다’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들은 면접 조사에서 실시한 이미지 조사결과 자신들에 대한 이미지로 ‘자율적이다’, ‘집단주의적이다’, ‘몰개성적이다’, ‘폐쇄적이다’, ‘협동적이다’, ‘엄격하다’, ‘불성실하다’, ‘게으르다’, ‘비사교적이다’ 등에 표시함으로써 남한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북한 청소년들의 행동특성에 대한 그것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율적이다’, ‘불성실하다’, ‘게으르다’ 등의 항목은 남한 청소년들이 바라 본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서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 편, 북한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에게 ‘타율적이다’, ‘경쟁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개성적이다’, ‘개방적이다’, ‘자유롭다’, ‘성실하다’, ‘근면하다’, ‘사교적이다’ 등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성실하다’ 와 ‘근면하다’라고 하는 항목들은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 청소년들에게 부여한 이미지 군으로서 상호 서로를 성실하고 근면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 시사점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부각은 남북한 동질성과 이질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일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연구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째, 그 동안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던 남북 청소년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과 방향성이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 째, 동질성 증진과제와 통일을 위한 과제에 있어 남북 청소년들, 특히 남한 청소년들이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곧 북한 청소년들이 통일을 희망하는 정도 보다 남한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정도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 째, 통일이나 동질성 증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김정일 체제의 붕괴가 중요한 변수임을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넷 째, 전통에 대한 관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양 체제 청소년들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다섯 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청소년들의 말처럼 청소년 세대는 서로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기성세대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상호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몇 가지 중요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정책이 구성되어진다면 양 체제간의 청소년 문화 동질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곧 올바른 방향성을 지니는 통일로의 걸음을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4.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남북한 두 사회에 존재하고 있거나 형성되어 있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여, 새로운 가치체제나 목표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전환과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류·협력 참가 활성화 및 관련제도의 개선

청소년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많은 장애를 제거하여야 한다. 교류관련 신청서 서식이나 양식,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성인

들과 달리 간단한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교류활성화 촉진 특례법(가칭)”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제안한다. 여기에는 인솔자의 책임 하에 방북 또는 방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자매 결연을 통한 상호 방문, 홈스테이 제도의 활용, 육로를 통한 수학 여행 및 졸업 여행, 각종 학술 탐사 활동 등이 쉽게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청소년 참여기제 마련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북한·통일관련 활동 참여의 폭은 훨씬 넓어질 수도 있으나, 직접 참여에는 여전히 많은 제한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각종 국제 평화 단체 등을 통하여 제한 없이 참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당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돕기 운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거나, 해당 청소년들이 희망할 경우에 북한 관련 직종에서 우선적으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수용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각 종의 봉사 활동을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북한에 의료 봉사활동을 가는 경우, 농업 생산 기술이나 서비스 정신의 전파 등)의 모색과 북한 돕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참여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청소년 문화운동 전개

청소년들이 동질성을 증진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하여 설득력 있게 접근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정서적인 동질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청소년중심의 문화운동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 문학 읽기 동호회, 남북한의 좋아하는

가요 부르기 동호회, 남북한 영화 동호회의 결성, 통일 캠프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활동이 사업과 같은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노력이 동질성 증진 방안으로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라. 통일관련 관심 제고 방안 강구

평화 공존의 단계에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매체나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붙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정보나 의사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급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통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중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대중 매체는 동일한 내용을 전파하는 데 있어 그 어느 것보다 탁월하다. ‘북한 리포트’ 등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을 이해해 가는 과정을 보면 그 효과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남북 상호간의 동질성 증진 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 중 하나가 체육 활동을 통한 상호 이해의 증진이다. 각종 체육 행사를 학교 단위로 지역 단위로 연계하여 치루는 것은 청소년들의 동질성 증진에 매우 효과가 높은 수단이 될 것이다.

마. 통일교육과 교과내용의 개선

통일문제 접근은 각급 학교 중심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와 가정, 사회 기관과 연계된 통일 교육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또 다른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을 부모와 함께 묶어서 교육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평화공존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에 우리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방향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교육 내용으로 공동체 교육, 평화 교육, 다문화

교육, 시민 교육 등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그 밖에 전 교과목으로의 통일교육 확대, 시민사회 차원의 통일교육 지원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바. 시민단체와 청소년간의 네트워크 구축

‘화해와 평화’, ‘민족적 동질성의 확대’를 위한 접근 방법으로 청소년 체험학습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주도에 의한 청소년 체험학습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과 같은 교사단체와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은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일캠프’, ‘평화캠프’와 같은 독자적인 어린이 청소년 단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청소년지도자간의 협력에 의한 청소년 단체활동을 체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 대중매체 보도 내용의 개선과 전문지도자 양성

대중매체의 보도는 청소년들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의 긍정적 의식 형성을 위한 방송인들의 보도 내용 개선 노력과 이를 촉구하고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요구된다. 동시에 교사와 청소년지도자 등과 같이 제활동에 관여하는 학교 및 시민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재교육, 전문화 교육이 광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6
II.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특징	8
1. 사회문화적 특징	9
2. 남북한 청소년의 행동양식 비교	12
3. 사회문화 구조의 이질적·동질적 측면	16
가. 이질적인 측면	17
나. 동질적인 측면	21
III. 북한·통일관련 청소년 의식조사	27
1. 조사의 개요	27
가. 조사의 목적	27
나. 조사의 내용	27
다. 조사의 방법	28
2. 조사결과 분석	31
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견	31
나. 남북한 교류에 대한 인식	45
다. 남북한 이질성 인식	50
라.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61
3. 요약 및 논의	67
가. 요약	67
나. 논의	72

4. 탈북청소년 심층면접 조사	74
가. 피면접자들의 일반적 배경	74
나. 탈북 원인	75
다. 통일관련 의식	77
라. 북한의 청소년문화	80
마. 남북한 동질성에 대한 의식	90
5. 남북한 청소년 의식 비교 및 시사점	92
가.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 비교	92
나. 시사점	99
IV.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방안	101
1. 전제조건과 기본방향	101
2. 남북한 청소년의 동질성 증진 방안	106
가. 교류·협력 참가 활성화 및 관련제도의 개선	107
나. 청소년 참여기제 마련	108
다. 청소년 문화운동 전개	109
라. 통일관련 관심 제고 방안 강구	112
마. 통일교육과 교과내용의 개선	113
바. 시민단체와 청소년간의 네트워크 구축	118
사. 대중매체 보도 내용의 개선과 전문지도자 양성	119
V. 결 론	121
참 고 문 헌	125
[부록 1]	128
[부록 2]	138
[부록 3]	163

표 차 례

<표Ⅱ-1>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	18
<표Ⅲ-1> 표본집단의 특성	29
<표Ⅲ-2> 사회계층 변인의 구분기준과 구성비	30
<표Ⅲ-3> 통일지향성 변인 구성을 위한 척도점수	31
<표Ⅲ-4> 통일지향성 정도별 하위집단 구성	31
<표Ⅲ-5>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	32
<표Ⅲ-6>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 하위집단별	33
<표Ⅲ-7>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	34
<표Ⅲ-8>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 하위집단별	34
<표Ⅲ-9> 통일지향성 정도의 하위집단별 분포	35
<표Ⅲ-10>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36
<표Ⅲ-1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하위집단별	37
<표Ⅲ-12> 통일의 장애요인 인식	38
<표Ⅲ-13> 통일의 장애요인 요인분석: 회전된 요인행렬표	39
<표Ⅲ-14> 통일의 장애요인 요인별 신뢰도 및 평균값	40
<표Ⅲ-15> “상호 대립·갈등” 변인 평균값	40
<표Ⅲ-16> “통일의지·노력 부족” 변인 평균값	41
<표Ⅲ-17> “강대국 이해관계” 변인 평균값	42
<표Ⅲ-18>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	42
<표Ⅲ-19>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 요인분석	43
<표Ⅲ-20>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 요인별 평균값	44
<표Ⅲ-21> “개방·교류 확대” 변인 평균값	44
<표Ⅲ-22> “군사적 대립 지양” 변인 평균값	45
<표Ⅲ-23> 북한관련 교과내용 만족도	46
<표Ⅲ-24> 북한관련 교과내용 만족도: 하위집단별	46
<표Ⅲ-25> 매체별 북한관련 정보입수의 도움 정도	47
<표Ⅲ-26> 활동유형별 남북한 청소년교류 참여의사	48

<표Ⅲ-27> 북한방문시 예상되는 부모님의 태도	49
<표Ⅲ-28> 북한방문시 예상되는 부모님의 태도: 하위집단별	50
<표Ⅲ-29> 남북한 생활·의식의 차이 인식	51
<표Ⅲ-30> 남북한 생활·의식 차이 인식 요인분석	51
<표Ⅲ-31> 남북한 생활·의식 차이 인식 요인별 평균값	52
<표Ⅲ-32> “현대적 생활문화” 변인 평균값	52
<표Ⅲ-33> “역사의식·전통문화” 변인 평균값	53
<표Ⅲ-34> 전통규범·관습 영향력 차이인식	54
<표Ⅲ-35> 전통규범·관습 영향력 차이인식 요인분석	55
<표Ⅲ-36> 전통규범·관습 영향력 차이인식 요인별 평균값	55
<표Ⅲ-37> “효·조상숭배 사상” 변인 평균값	56
<표Ⅲ-38> “부권 중심주의” 변인 평균값	57
<표Ⅲ-39> “연고주의” 변인 평균값	57
<표Ⅲ-40> 남북한 이질화의 심화요인	58
<표Ⅲ-41> 남북한 이질화의 심화요인: 하위집단별	59
<표Ⅲ-42> 남북한 청소년의 사고방식 차이	60
<표Ⅲ-43> 남북한 청소년의 사고방식 차이: 하위집단별	60
<표Ⅲ-44>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식	61
<표Ⅲ-45> 동질성 증진을 위한 북한의 과제	62
<표Ⅲ-46> 동질성 증진을 위한 북한의 과제: 하위집단별	63
<표Ⅲ-47> 동질성 증진을 위한 남한의 과제	63
<표Ⅲ-48> 동질성 증진을 위한 남한의 과제: 하위집단별	64
<표Ⅲ-49>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정부	65
<표Ⅲ-50>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시민사회	65
<표Ⅲ-51>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청소년부문	66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그동안 심화되었거나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남북한의 사회문화 구조와 청소년들의 이질성과 동질성 실태를 비교적 시각에서 고찰함으로써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을 구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서로 다른 국가체제, 사회경제적 구조, 대외관계 속에서 50여년을 살아온 남북한의 주민 및 청소년들은 같은 역사·문화적 뿌리에도 불구하고 분단상태에서 극명한 분리와 이질화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의 방식과 내용 여하에 따라 남북한 주민 및 청소년간에는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 주민 및 청소년간에 형성된 가치, 규범, 행동양식과 생활문화의 차이가 상호간의 접촉과정에서 상대방 사회문화에 대한 오해, 무시, 편견으로 이어진다면 양자 사이에는 심각한 집단적 감정의 골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고려되어 최근에 남북 통일에 대한 접근 방향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향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시민사회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통일교육을 비롯한 제사회적 통일 접근노력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을 인식'¹⁾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남북 체제의 역량 비교를 통해 대북 자신감을 심어 주었던 그간의 인식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1)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이라는 개념은 1956년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간의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동·서 진영간의 경쟁이 평화적일 수 있다고 선언한데서 비롯되었다. 즉, 군사적 수단 대신에 비폭력적인 경제적,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간의 투쟁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연구

평화공존이 담고 있는 양자간 관계의 내포적인 양태는 경쟁에서 협력까지를 포함한다. 남북한 사이가 주로 대립적 관계로 규정될 때,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하여 평화공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평화공존은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적 양태의 관계가 발생하며, 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 사이에 대립관계를 관리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협력이 상호 관계의 주된 존재 양식이 되도록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개념이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 화해·협력만으로 남북한이 곧바로 통일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한간의 적대적인 대결구조와 반세기에 걸쳐 심화된 남북간 이질화를 단시일 내에 극복하는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평화공존과 관련된 개념에 입각하여 볼 때, 통일의 지향점을 과거와 같이 체제 비교적인 시각과 대결적 구도만으로 편향될 때, 현 단계에서 추구하는 ‘평화공존’, ‘화해·협력’의 지향과 상호 충돌하는 측면이 발생한다. 북측에게는 ‘흡수통일의 논리’로 비취질 가능성이 있으며, 남측 국민에게는 대북 우월 의식과 북을 여전히 경쟁, 대결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의식을 강화하여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은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에 바탕 하여 남북의 상생을 추구해 나갈 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이 반세기의 다른 체제와 문화 등으로 ‘다름’이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동질성 증진’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남측의 우월적 시각 속에서 일방적으로 북측이 남측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때 동질성의 추구는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저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고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에 부합하는 동질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월 의식’을 버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만들어 가는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 사회의 기저에 형성되어 있는 통일문제는 지금까지 당위적 사실로 받아 들여왔지만, 한국 전쟁을 겪은 기성세대와 비교해 볼 때, 최근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은 차츰 약화되고 있으며, 굳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의 현 상태로 만족할 수 있다는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른바 ‘통일무용론’과 ‘통일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층인 10-20대에서 나타나는 통일의 당위성과 절실함은 기성세대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통일무용론’과 ‘통일회의론’은 동·서독의 경험에서 크게 영향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와 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중심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노력은 그동안 정치 및 영토상의 체제통합에 중점을 두어 왔던 남북한 통합논의의 접근 시각과 범위를 새롭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사회에서 통합 논의는 분리된 정치적 실체로서의 남북한이 하나의 체제, 하나의 국민으로 합쳐지는 방법과 과정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과정과 이후에 전개될 지역간·계층간·집단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접근 기제를 탐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론적 명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중심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노력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보다 통일과정 또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내적 통합, 즉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과정론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통일주역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남북한 청소년들의 동질성 증진 노력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커다란 파급효과(spill-over)를 기대할 수 있는 통일접근을 위한 최상의 도약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형성되어 온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구조와 이의 영향 하에 있는 청소년들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우리 청소년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와 탈북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방안을 구안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을 구안하기 위하여 먼저, 남북한의 사회문화구조와 이의 영향하에 있는 남북한 청소년의 행동양식을 이질적 측면과 동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 청소년 대상의 통일과 관련된 전반적 인식과 사회문화적 이질성·동질성 실태에 관한 질문문항을 구성하고, 유사 문항을 중심으로 탈북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비교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특징

북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민감한 신체·정신적 발달시기에 통제되고 폐쇄된 사회의 집단생활과 정치교육을 통한 고도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식구조면에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많은 부분에서 이질화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급격한 외래 문화의 수용, 그리고 전통적 윤리 및 가치관의 파괴에 따른 새로운 청소년문화의 형성에 따라 남북한 청소년간의 문화적 간극은 기성세대의 괴리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간격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이질성은 처음 단계에서는 체제의 이질성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지만, 분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양 청소년간에는 ‘분단문화’라는 새로운 차원의 그들 문화가 형성되어 이질화가 근본적으로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현재 남북한의 인구 구성은 전후 세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질화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형성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의 행동양식을 비교하고, 사회문화구조의 이질적·동질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나. 청소년 의식 조사

우리 청소년 대상으로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이질성과 동질성 실태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그동안 수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통일관련 의식을 통일의 당위성, 분단 상황에 대한 평가, 통일의 장애요인, 통일을 위한 주요 과제, 그리고 교류·협력 관련 의식 등으로 구성·조사하여 2000년도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이산가족 상봉, 예술단 순방 공연 등과 같이 일련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고조된 이후의 의식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사회문화분야의 이질적·동질적 측면을 가정, 언어, 놀이, 학교생활 등의 생활양식과 타율적·자율적, 집단주의적·개인주의적 등과 같이 청소년의 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동질성이 잔존하고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질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규범, 관습 등과 관련된 내용과 사회문화분야의 동질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 및 법·제도적 차원, 시민사회 차원, 청소년 및 통일교육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 탈북청소년 심층면접 조사

탈북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양식, 가치관, 의식 등과 관련된 실태를 진단하였다. 특히, 우리 청소년 대상의 의식조사 내용과 연계된 면접지를 구성하여 남북한 사회문화분야의 이질성과 동질성 실태는 어떠한지를 비교하고, 최근 변화되고 있는 북한 사회의 변동과 관련하여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과 일상생활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도 살펴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이질성·동질성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증진방안을 구안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라.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모색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와 청소년 의식조사 및 탈북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법·제도적 차원, 시민사회 차원, 청소년 및 통일교육 차원에서 동질성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청소년 대상의 의식조사, 탈북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조사 등을 사용하였다.

가. 문헌연구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단 이후에 각 사회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치관, 의식 등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것은 한 사회의 구성들에게 형성된 의식, 가치관 등은 그 사회의 사회문화구조와 밀접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규명하는 시각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남북한 청소년들의 행동양식 중 전혀 다르거나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여, 우리 청소년 대상의 의식조사 문항 구성과 탈북청소년 대상의 면접조사 내용을 구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나. 설문조사

서울시 소재 고등학생 1,1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통일 및 북한관, 그리고 남북한 사회문화분야의 이질성과 동질성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인문계와 실업계의 표본 비율은 8:2로

하였으며, 남·녀 비율은 5:5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각 문항과 배경 변인간 교차분석 방법을 이용하였고, 조사결과는 탈북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와 비교하여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다. 심층면접조사

탈북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최근 변화되고 있는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 가치관,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 청소년 대상의 의식조사 내용과 연계된 면접지를 구성하여 비교적 관점에서 남북한간 사회문화분야를 중심으로 잔존하고 있거나, 이질화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실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II.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특징

남한사회는 그동안 서구 산업사회와 비슷한 사회규범과 대인관계 등 새로운 생활양식을 발달시키며,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여 왔다. 경쟁 지향적이며,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실용성을 강조하며, 활동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규범은 근대사회의 변동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남한사회는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수용 결과 상업주의적 대중문화의 발달을 초래하여 전통문화가 급속히 해체되는 병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효 규범과 경로사상의 퇴조, 그리고 이기적 개인주의 문화의 팽배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²⁾

반면, 북한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 맞는 생활양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북한의 산업화가 자유경쟁적 시장원리에 기반을 두었다기보다는 사회주의식 노력동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북한의 도시는 인구 이동보다는 오히려 인구의 자연증가를 통하여 도시가 성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³⁾ 따라서 북한 주민의 생활양식은 남한 주민들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은 역사인식, 전통문화, 언어구조 등에서 부분적으로 동질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지만, 분단 이후의 이질적인 체제와 상이한 사회문화적 변동으로 인하여 더 많은 이질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사회변동의 시점에서 상호교류와 의사소통의 단절은 심각한 사회문화적 이질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길은배,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 연구”,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158쪽.

3) 고성호, “통일한국의 사회체제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문제연구원 편, 『한반도 통일론: 전망과 과제』(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155쪽.

1. 사회문화적 특징

남북한 사회문화의 특징은 무엇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질적인 사회문화의 특성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두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와 지배적 가치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은 각기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인민주의를 지향하면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상극성을 지닌 체제로 사회변동을 경험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는 상당한 이질화를 겪어왔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상이한 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남북한 양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정향을 비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은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문화 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집단주의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특성은 기본적으로 남한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각 개인의 독자적인 정체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개인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개인보다 사회와 집단성원의 단결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집단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⁴⁾ 이러한 특성은 향후 양쪽 주민과 청소년의 사회통합과정에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로 동·서독의 경우에도 우리와 비슷한 사회문화적 특성이 체제통합 이후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서독은 사회 및 권력 분화를 바탕으로 자율적·개방적이며 다원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발전한 반면, 동독은 협동과 공동체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경직된 사회주의적 통제문화가 형성되어 출발부터 서독과는 매우 상이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구축하였다.⁵⁾ 이러한

4) 이경숙, “남북한 사회문화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편,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28쪽.

5)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경제와 사회』, 통권 제26호, 1995년 여름, 27-38쪽 참조.

동독주민 및 청소년들의 공동체적 문화와 사회심리적 왜곡상태는 통일과정과 이후에 사회경제 및 체제적응의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심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남한 문화의 다양성과 북한 문화의 획일성을 들 수 있다. 남한은 자유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생활방식과 가치관에서부터 여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욕구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된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문화의 내용이 획일적으로 혁명사상 고취와 김일성 유일사상의 확산으로 채워져 있으며,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⁶⁾ 남한의 사회문화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민간차원의 다양한 문화운동을 발전시키면서 대항문화도 탄력적으로 포함하는 여러 차원의 하위문화를 지니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에 의한 획일적인 문화로 북한의 학술논문이나 저술은 서두에 김일성의 교시를 반드시 명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나 문화예술 영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창작과정과 대중적 수용에 있어서 김일성 부자의 교시는 지도적인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남한의 권위주의 문화와 북한의 계급문화를 들 수 있다. 남한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권위주의 문화가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군사정권의 통치 하에서 일상적인 문화현상으로 뿌리를 내렸다. 민주화가 가속화되는 현재에도 그러한 성향은 아직 극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시민문화의 부재에 대한 탄식에서 증명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과 김일성·김정일의 전체주의적 통치행태 사이의 불일치는 두 말할 것도 없고, 당관료 중심의 새로운 계급의 형성, 관료화·산업화에 따른 계급구조의 변화 등에서 보듯이 사회주의적 평등원칙 조차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⁷⁾

6)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20-21쪽.

7) 북한의 계급구조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김용기, “계급의 불평등구조와 계급정책”, 고현욱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

넷째, 남한 문화의 개방성과 북한 문화의 폐쇄성을 들 수 있다.⁸⁾ 남한은 해방 이후 이질적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문화변용에 따른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외부 사조의 유입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북한은 조선의 봉건사회, 일제하의 군국주의를 거쳐 곧바로 폐쇄적 공산정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타문화와의 접촉을 통한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남한은 이질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적응력이 크며 이질적인 문화와의 공존을 당연시하는 반면, 북한의 경우 사회의 폐쇄성과 유일사상 및 문화적 순수성의 강조로 인해 이질적인 것에 대한 허용범위가 적으며, 타문화에 대한 적응력도 약하다.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체계가 외래적인 사회문화 요소에 대한 면역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은 통일과정 및 이후의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통일 이전에 북한사회의 개방이 어떠한 형태로든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사회문화 구조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유는 북한문화의 혁명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의 완결을 위하여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사유재산을 몰수하였으며, 토지개혁을 단행하였고 생산과 노동의 집단화를 실천함으로써 집단노동, 집단주의 문화가 발달하였다. 반면, 남한은 급격한 산업화의 진전과 서구 사조의 유입에 따른 전통문화의 변질, 그리고 구성원의 가치체계가 변화되어 북한과는 많은 부분에서 상이한 사회문화적 구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보다 남한이 더 복잡·다양한 사회문화 구조를 지녔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향후의 통일과정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맥을 같이하는 평가다. 체제통합은 법·제도적인 합의나 이행체계의 구비를 통하여 가능할 수 있지만, 양쪽 주민과 청소년간

소, 1987), 187-218쪽 ; 도홍렬, “북한의 사회통제, 사회문제 그리고 사회변동”,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548-574쪽 ; 서재진, “북한사회 계급구조의 재편과 사회변동”,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575-617쪽.

8)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앞의 글, 21쪽.

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문화적인 이질성의 통합은 오랜 기간의 노력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남북한 청소년의 행동양식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사회문화 구조는 성격과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이질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하위구조에 놓여 있는 남북한 청소년간의 의식과 행동양식은 양쪽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크게 영향 받고 있어, 더욱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집단주의와 이기적·개인주의를 들 수 있다. 북한에서 집단주의가 발달한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집단노동을 사회체제의 유지·발전의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사회구성원리는 ‘균중노선’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북한 주체사상의 중심은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 사회적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사람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화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살아간다고 보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 것이 생활의 가치척도로 되어 있다’⁹⁾ 라고 교육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청소년들에게는 집단생산성을 높이는 방편으로 집단적 경쟁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체육대회시 개인간의 시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이 집단간의 대항 형식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¹⁰⁾ 이러한 결과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개별적으로 무엇인가를 잘해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집단적으로 잘해야 하며, 이것이 훌륭한 공산주의의 청년상으로 의식화되고 있다. 결국, 북한 청소년들에 있어 집단주의는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금지는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안일을 추구하는 타인에 대해서 집단주의의 이름으로 비판하는

9) 강민구,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인생관”, 『근로자』, 1989, 55쪽.

10) 이원봉, 『북한청소년생활의 심층연구』(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140쪽.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남한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의 주요한 특징인 집합적 가족주의, 혈연중심의 공동체주의적 가치성향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서구적 가치관인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을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려는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외면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이 왜곡된 이기적 행동양식은 전통적인 집합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벗어나 있는 청소년 세대에서 한층 두드러진다.¹¹⁾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개인보다는 가족, 친족, 회사 등 개인이 속한 집단을 더 중시 여겨, 집단의 목표를 위해서는 개인적 가치가 희생되어도 좋다는 의식이 더욱 지배적이나, 청소년세대는 집단목표에의 충성이나 공동체의 동일시 감정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개인적 가치추구에 더 큰 비중을 둠으로써 개인주의, 나아가 이기주의적 가치성향을 강하게 보인다.

둘째, 배타주의와 극단주의를 들 수 있다. 북한에서 배타주의의 연원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식민지배, 한국전쟁을 통한 미국으로부터의 피해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지배적 이념인 주체사상으로 발전되면서 배타주의가 더욱 강화되었다. 배타주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적대감뿐만 아니라 지주 등의 착취계급, 부르조아 사상, 다원주의 등에 대한 적대감도 동시에 포함된다. 북한청소년들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다른 국가나 민족의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지적 자율성을 습득하지 못했다. 지배이념으로 교육받은 것 외에는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는 자율적이고 진실로 주체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과는 상당히 괴리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청소년들의 인성은 권위의 직속계통과 자기집단 이외에는 배타주의적이고 적대주의적인 행동양식이 나타난다.¹²⁾ 예로 김일성대학 조선어문학부의 경우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의 주관 아래 6.25당시 미군의 ‘소행’

11) 정희욱 외, 『한·중·일 청소년의식 비교연구』(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20-21쪽.

12) 서재진·김태익, 『북한주민의 인성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83-84쪽.

을 고발하는 자료 및 홍보영화를 마련하여, 주 1회씩 해설강의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연단, 웅변모임, 글짓기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대미증오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양식은 외부집단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과 자기집단에 대한 극도의 복종심으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남한 청소년들은 서구적인 가치관이나 태도를 맹종한 나머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여 서구식 문화와 생활을 모방하거나, 혹은 반대로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한국적인 것만을 우수한 것으로 생각하는 극단적인 배타주의가 형성되어 있다.¹³⁾ 이러한 과정에서 서구적인 풍조가 무비판적으로 도입되어 서구에서는 그곳 사회에 순기능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가치관도 우리 사회에서는 역기능적일 수도 있는데 맹목적 수용이나 거부반응을 나타낸다.

셋째, 몰개성화와 다양한 개성의 행동양식을 들 수 있다. 북한청소년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식과 행동양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철저히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의 계획과 동원에 의해서 행동하는 타율적·수동적인 인간형으로 사회화되어 있다. 즉, 북한청소년들은 집단생활 안에서 자기 정체감을 확인하고 집단규범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몰개성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청소년들은 자기의 개인적 정체성을 잃고 집단속으로 익명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북한청소년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방향과 자기정체성을 찾는 그들에게 집단이 그러한 것을 제시하고 유도함으로써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집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후반에 소련과 동구권 공산주의 체제가 자유세계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수동적 인간형의 양성 교육이 자유경쟁 세계에 대처하는 유연한 능력을 키워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남한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획일화로부터 개성화로 변동하고 있다.

13) 최운실, “청소년 교육의 방향”, 권이중·남정걸 외, 『청소년교육론』(서울: 양서원, 1998), 484-485쪽.

청소년들은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나 동질적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획일화된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이질적인 것을 허용하는 개성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한다.¹⁴⁾ 이로부터 파생되는 청소년들의 즉흥성과 개인주의 경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무미건조한 생활방식 보다는 자신의 감정·기호, 좋고 싫음에 충실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물론 학생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대입시의 압박으로 북한청소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수동적 태도가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신의 개성과 주장을 표출하고 피력하는데 있어서는 기성세대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은 독특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하여 그들만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공유하고 표출한다.

넷째, 일원적 절대주의와 다원적 상대주의를 들 수 있다. 북한청소년들은 폐쇄와 단절의 조건에서 ‘당의 유일사상’이나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일원론적 절대가치체계를 기준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일원적 절대주의는 사고의 단순성에서 오는 안일성과 시행착오의 과정이 생략되어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나 창의적 자기개발은 기대할 수 없다. 상대적이고 다원적인 가치관의 사회에서는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갖게되지만, 절대적이고 일원적 가치관에서 형성된 인성은 유교적 수직원리에 따른 적응력이 부족하여 경직된 사고와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¹⁵⁾

남한 청소년들은 점차 전통적 윤리관이나 유교문화, 권위주의 문화로부터 탈피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면 개성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듯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별되는 행태이다.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관, 행동양식 등은 기성세대의 간섭이나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정체성에 근거한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고 있으며 절대가치 기준은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남북한 청소년간에 형성되어 있는 의식이나

14) 길은배·문지연, 『청소년과 소비생활』(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18쪽.

15) 김동규,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 및 동질성 요인분석”, 『민족정체성과 남북한 청소년』(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2), 80쪽 참조.

행동양식은 그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현 단계에서 사회문화분야의 동질성 증진을 전제로 추진되는 제노력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양쪽의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논리적 근거이다. 즉, 사회문화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노력은 간접적으로, 그리고 청소년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노력은 남북한 청소년들의 의식 및 행동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문화는 타 문화와의 접촉시 연령과 계층을 포함하여 교차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무리 완벽한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분단기간 동안 개인 및 사회를 지배해 왔던 체제종속적인 규범, 가치, 신념 등의 타성은 쉽사리 극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화(differentiation)가 가속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이나 갈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 사회문화적 이질성의 극복문제는 통일 후유증의 최소화라는 통일 대비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남북한의 상호신뢰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사회문화 구조의 이질적·동질적 측면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은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성과 생활양식에서도 이질화가 심화되어왔다. 특히, 북한 주민은 폐쇄적 사회주의 체제에서 강요된 생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남북한 주민은 한국전쟁 및 이질적 사회문화를 통하여 심화된 적대감을 극복하여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생활양식과 의식구조는 당대에 그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화되고 후대에 전승된다고 볼 때 남북한의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청소년층도 상당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동독과는 달리 북한은 거의 완벽히 폐쇄된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대한 기초지식과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북한

주민이 극복하여야 할 과제가 남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임을 시사한다.¹⁶⁾ 결국 인구구조 측면에서 ‘청소년 인구’ 구조는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역사적 측면에서 중·장년층의 의식구조에 청소년층이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임을 가정할 때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응은 독일보다 어려울 것이다.

현재 남북한 주민 및 청소년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랜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이질감이 형성되었지만 전통문화, 언어, 역사 등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동질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회문화 구조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이질성과 동질성이 갖는 성격과 내용을 살펴본다.

가. 이질적인 측면

먼저 남북한의 이질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체제의 이질성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가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양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이질성은 지난 50여년간 상충하기 어려운 두 사회체제가 존립해 온 당연한 귀결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¹⁷⁾ 그러므로 양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정치사회화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또한 상당한 이질화가 진전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처럼 양 사회의 이질화가 체제의 상이한 이념과 통치형태에서 비롯되었다는 단순비교는 이질화의 정도 즉, 분단 이전의 동질성이 과연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그리고 체제 이질성이 사회문화적 이질화를 생성·촉진시킨 유일한 또는 직접적 요인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16) 상이한 사회문화적 구조에 의하여 형성된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성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의한 실업의 감소 및 사회복지 제도의 강화를 제시한다. 둘째, 과거청산은 그동안 이질적인 체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호불신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셋째, 일상적 상호작용에 대한 적응은 대규모 인구가동에 의하여 촉진되는 대면적 접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 할 것으로 본다. 고성호, 앞의 글, 160-161쪽 참조.

17) 이장호,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격차와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제3회 통일대비 교육포럼 세미나』(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11-13쪽 참조.

사회문화적 이질화를 체제 이질성과의 인과관계에서만 바라보는 태도는 단순성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들뿐만 아니라, 체제경쟁이라는 냉전적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갖는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양독의 사회문화적 통합의 어려움은 단순히 체제 이질성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상호 편견에 의해 과장·증폭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사회문화적 이질화는 분단국 특유의 분단문화에 의해서 생성·심화된 결과로도 나타난다는 또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경우 지금까지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를 비롯한 제노력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남한은 북한에 대해, 북한은 남한에 대해 이질성의 체감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타난 남북한 이질화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

구 분	남 한	북 한
이념체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적 가치관, 개인주의	주체사상, 사회주의적 가치관, 집단주의
규범적 가치의식	개인의 권리 중심 개인주의적 도덕관 합리적 사고 중시	집단의 이익 중심 집단주의적 도덕관 혁명적 사고 중시
근대화와 전통	근대화 지향적	전통지향적
선호되는 가치순위	1. 행복한 가족관계 2. 편리한 삶 3. 자 유 4. 타인의 인정 5. 국가의 안정 등	1. 국가의 발전 2. 평 등 3. 편안한 삶 4. 행복한 가족관계 5. 자 유 등

※ 자 료: 임현진·정영철,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현실과 과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3권 제1호, 1999, 353쪽.

위의 표를 통하여 남북한의 사회문화분야를 중심으로 한 이질화는 전 부문에 걸쳐 상당히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념체계는 남한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적 가치관 등이 형성되어 있으나, 북한은

주체사상, 사회주의적 가치관 등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이념체계는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대결구도와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체제의 이질화에서 비롯된 다양한 통일정책은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소속 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규범적 가치의식은 남한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도덕관이 확립되어 있고, 합리적 사고가 사회운영의 기본 원리로 정착되어 있으나, 북한은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과 집단주의적 가치를 더 중시하며, 혁명적 사고를 절대시하는 원리가 만연해 있다. 이것은 남한 사회가 다원적이며 다양한 경쟁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어, 융통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사회인 반면에 북한 사회는 경직되고 자율성이 근원적으로 차단된 사회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남한 사회는 산업화·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역동적 미래지향성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폭넓게 퍼져있으나, 북한 사회는 폐쇄적·통제적 통치구조와 미분화된 사회구조를 갖고 있음에 따라 근대성보다는 전통적 가치에 보다 매몰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남북한은 50여년이 넘는 상이한 체제에서 습득된 가치와 행위 양식 등으로 많은 분야에서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이 갖는 이질성의 문제가 앞으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에서부터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과정에 이르러까지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남북한이 그동안 ‘분단문화’ 속에서 습득한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냉전적 대결의식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그만 차이도 전체의 차이로 확대 해석될 소지가 높다.¹⁸⁾ 이러한 이질화는 독일통합의 경험에서 보듯이 제도적인 차원의 통합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며, 비교적 장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북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민감한 신체·정신적인 발달시기에 통제되고 폐쇄된 사회의 집단생활과 정치교육을 통한 고도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식구조면에서 많은 이질성이 심화되었을 것이다. 반면,

18) 독일의 경험에서도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주민의식과 서독의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주민의식이 쉽사리 동화되지도 않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증폭되면서 갈등적 상황이 심화되었다.

남한 청소년들은 급격한 외래 문화의 수용, 그리고 전통적 윤리 및 가치관의 파괴에 따른 새로운 청소년문화의 형성에 따라 남북한 청소년간의 문화적 간극은 기성세대의 괴리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간격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이질성은 처음 단계는 체제의 이질성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지만, 분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양 청소년간에는 ‘분단문화’라는 새로운 차원의 그들 문화가 형성되어 이질화가 근본적으로 심화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남북한의 인구구성은 전후 세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질화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인구구성 비율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문화, 가치, 생활양식, 규범 등과 같은 제영역에서의 상호작용이 증대될 경우에 사회문화적 공감대는 빠르게 형성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선협적인 편견과 체제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확고하게 경직된 의식이 덜 형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특유의 발달단계가 내포하고 있는 빠른 적응력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같은 사회문화분야의 동질성 증진 노력은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⁹⁾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사회통합의 어려움은 “마음의 벽” 또는 “한 국가 내 두 사회”라는 표현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애초부터 사회문화적 통합문제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초기 통일의 열광에 묻혀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적 현실 속에서 예상보다 더욱 심각하게 표출되었다.²⁰⁾ 특히,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통일과정 및 이후의 사회통합 정책상의 문제와 분단시기 동안 각각 상이하게 형성되었던 동·서독의 사회문화적 갈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기인한다. 통일과정과 통일정책의 문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급속한 체제흡수 방식의

19) 김은배, 앞의 글, 172쪽.

20) Peter Bauer-Kaase and Max Kaase, “Five years of unification: The Germans on the path to inner unity”, *German Politics*, Vol. 5, No. 1, April 1996, p. 3.

통일로 인해 불가피하게 초래된 것으로서 서독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통일비용의 부담, 동독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와 구조적으로 서독체제로의 동화를 강요하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²¹⁾.

위의 논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두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이질성은 그 차이가 단순히 이질성으로서 배타적·분열적 작용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단절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²⁾ 여기에서 문제는 양 체제간에 동질성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남북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체제 이질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기성세대와는 달리 그들만의 독특한 가치정향과 청소년문화를 형성·발전시켜 나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사회에도 일정부분 존재하고 있음이 탈북 청소년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사회를 ‘이중적 사회’라고 지칭하듯이 평양거리에도 우리 청소년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오렌지족’이라는 청소년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남북한 청소년간에 형성되어 온 사회문화적 이질성은 절대적 측면에서는 심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대적 측면에서는 동질성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유사한 가치 정향이 기저에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나. 동질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동질성이란 그 내부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그 내부에 서로 짝은 달리하면서도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여 더 높은 차원의 동질성에 도

21) 김학성, “문화적 이질성 극복과 통일문화 형성”, 한국문제연구편, 앞의 글, 278쪽.

22)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 방안: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대 방안 중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4-5쪽.

달하려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공동체 내부에는 이질적 기능 혹은 요소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의 동질성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의 목표를 향해 작용하게 되며, 이들간에는 공동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질서가 형성된다.²³⁾ 그러므로 남북한은 교류·협력과 같은 사회문화분야의 동질성 증진 노력을 통하여 상호의존관계를 높이는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이것은 이질화된 부문에 대한 해소 노력보다는 남북한간에 존재하고 있는 동질적인 부문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현재 남북한은 전통문화, 전통규범, 그리고 언어 등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초기 발달단계에서 그들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부터 사회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남북한 사회에 남아있는 전통문화, 전통규범 등과 같은 관습 및 전통적 가치와 더불어 그들의 부모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가족온정주의, 가부장주의 등과 같은 가치정향에 영향을 받아 여러 부문에서 유사한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의 동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북한의 전통문화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듯이 북한사회는 전통적인 것의 형식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표현되는 민족의식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에서 유사한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⁴⁾ 첫째, 명절 풍습으로 남북한 모두 한식, 설날과 같은 공통의 명절이 남아 있어 비슷한 명절 풍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전통풍속을 중심으로 한 놀이문화에서 매우 유사한 내용과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제3국을 통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시 민속놀이는 양쪽 청소년 모두가 큰 거리감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의사소통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관혼상제로 대표되는 유교적 전통은 남북한 모두 현대화, 간소화

23) 윤덕희·김도태, 위의 글, 3-4쪽.

24) 길은배, 앞의 글, 175-176쪽.

의 경향을 띠고는 있지만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는 동질적인 측면으로 남북한 전통의 전승정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문으로 보인다.²⁵⁾ 이것은 주로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질적인 부문으로 50여년간의 분단 구조에도 불구하고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민족적 정서 및 예법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모두 가족중심적인 전통적 규범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민족적 정서나 예법 등에서는 커다란 간극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남북한은 탈춤이나 민요 등을 중심으로 동질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가면극은 사상예술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강조·발전되었으며, 남한의 경우에도 북청사자놀이, 봉산탈춤, 강령탈춤 등이 지속적으로 전승·발전되어오고 있다. 또한 민요는 북한에서는 노동민요로 불리어지며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 남북한 모두 민족음악의 핵심적 장르로 인정하고 있는 부문이다. 이러한 부문은 청소년들의 학교 교육 및 특기·적성 교육 차원에서도 양체제 모두가 중요시하고 있는 영역임과 동시에 비교적 이념적인 색채의 주입이 어려운 부문이기 때문에 순수한 상태의 민족적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영역으로 보인다.

넷째, 전통적인 규범으로 북한의 경우도 역시 유교적 가치의 잔재 및 유교적인 사회조직 원리가 강하게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한사회 역시 국제사회로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애국심’, ‘반일주의’ 등에서 나타나듯이 민족적 가치 또한 적지 않게 남아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동질적인 유교적 가치의 잔존은 향후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유리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²⁶⁾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남북한간에 의

25) 북한의 혼상제 전통은 유교의 반동성을 비판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생활양식’ 즉, ‘낡은 생활습성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투쟁’과 관련되어 있으나, 북한의 정치·사회·문화 전 분야에 유교적 사고와 행위규범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26) 이와 관련해 송두율은 남북한의 이질화가 통일 실현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남북한의 접촉에서 유교적 가치와 민족의식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송두율,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서울: 한겨레신문사, 1995).

의 동질성이 보존된 측면이 있고, 이것이 앞으로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주로 전통적인 배경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유래한다.

가령 위에서 제시한 실례 이외에도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의식 가운데서 두드러진 몇 가지를 들어보면, 인간관계나 사회적 유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정주의’와 ‘연고주의’를 들 수 있다. 또한 가족주의적 집단주의가 강하고,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사회질서를 지배하고 있으며, 연고주의, 학벌주의 등도 아직까지 주민과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속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원래 가족중심주의적 가치는 농경사회의 산물이지만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강화된 부계혈연중심의 가족단위는 남북한 모두 사회생활의 절대적 단위로 견고히 위치해왔다. 가족에 관한 한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 반응을 불러일으켜 가족주의적 의식은 안정의 토대이자 보수성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다.²⁷⁾ 이러한 가족주의와 관련하여 전통적 가치성향의 차원에서 가부장적 권위주의도 남북한간에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동질적인 측면이다. 물론 현재 남한 사회는 자본주의적 변형으로서의 현대적 남성 지배체제가 점차 완화된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심층적인 차원에서 그 특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 역시 김일성에 대한 절대복종과 결부되어 사회질서 전체에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남아있다. 따라서 북한은 근대적 합리성보다는 가정의 위계상으로 권위를 부여받고 행사하는 가부장적 권위구조는 가족단위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동질적인 측면의 하나로서 남북한 모두 언어도구관의 관점을 들 수 있다. 즉, 언어는 인간관계에서 의사전달의 매개체로서,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즉, 민족과 언어의 관계에서 언어가 민족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민족의식의 형성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의 언어가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이질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언어 격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

27)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193쪽.

남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말 순화를 위하여 각기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은 남한에서는 ‘국어순화 운동’을 통하여 대중속에 깊이 스며들었으며, 북한은 ‘문화어 운동’을 통하여 그 성과를 많이 이룩하여 왔다. 남북한 모두 우리말 순화 운동의 목적은 이념적 요인 때문에 상당한 이질성을 보이고 있으나 양쪽 모두 고유어의 어근을 중심으로 우리말을 발전시키지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언어상의 동질적인 측면이 강하게 존재·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은 남북한 모두 고유어와 생활어를 중심으로 변화되거나 시의적으로 필요한 언어를 담기 위한 언어정책을 통하여 알 수 있다.²⁸⁾ ①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말로 고친다. ② 한자말과 외래어 중 이미 우리말로 생활화된 것은 국어로 수용한다. ③ 어휘정리를 하나감에 있어 국민들 속에서 널리 쓰이는 좋은 말을 적극 발굴하여 선후를 가려서 생활어부터 점진적으로 고쳐 나간다. ④ 한자어 내지는 외래어는 가능한 한 유사한 고유어로 바꾸어 차용하도록 한다. ⑤ 같은 뜻의 단어로써 고유어와 한자어가 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고유어를 쓴다 등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북한간에 존재하고 있는 언어적 동질성은 정보문화에 바탕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우리 청소년의 문화가 빠르게 외래문화를 접하면서 언어구조가 흡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변화된 언어들이 남북한의 생활어로서 정착되어 의사소통에 혼란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언어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교류·협력을 진행시켜야 한다. 특히, 그 대상은 빠르게 우리의 언어를 외국어로 대체하여 가거나,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인식에 기초한 의사소통의 언어구조를 변형시켜 나가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남북한간에는 아직 몇 가지 측면에서 동질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재 남북한간 가능한 부분에서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그 파급효과를 통해 남북한간에 동질

28) 장경모, “남북한 언어 변동에 관한 연구”, 탈냉전시대에 부응한 남북한 통합방향 모색 I II; 남북한 실태 분석의 모형설정을 중심으로, 『경찰대 공안문제 연구소 공안연구』, 1992, 233-235쪽 참조.

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질화되어 있는 두 체제 사이의 사회문화분야의 동질성 증진은 정치적 통합처럼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문화의 지체현상으로 말미암아 사회문화적인 동질성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²⁹⁾

예를 들어 동·서독은 인적교류에 있어서 ‘동·서독 이주협정’에 따라 1983년 동독인의 서독이주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처음 8,000명이던 이주민 수가 다음해부터는 30,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통합 이전까지 40만명에 달하는 동독인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동독지역으로의 청소년 수학여행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적·전통적 일체감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동독의 사적지, 박물관 등의 견학을 포함시켰다. 같은 목적으로 서독정부는 동독 청소년의 서독 방문시에도 여행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동·서독의 동질성 증진 노력으로 양독 사이의 교류·협력 과정은 2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전 단계에서의 동질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 결과가 다음 단계의 정책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현재의 남북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통일과정이나 이후에 남북한 주민 및 청소년간의 상대방에 대한 정서상의 문제는 장기적 과정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남북한 사회의 격리, 역사적 경험의 차이 등 때문에 남북한 주민 및 청소년간에 형성되어 있는 차이의식과 거리감은 상당히 심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통일과정에서 여러 조치의 성격과 추진방식은 과거의 유산이라는 성격 때문에 상존하는 남북한의 이질감과 감정적 차원을 더욱 악화 혹은 완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문화분야의 동질성 증진 노력을 통하여 꾸준한 북측 생활세계의 변화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주민 및 청소년간의 정서상의 문제는 설령 소멸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남을 것이다.

29) Appelbaum, Richard, *Theories of Social Change*, 김지화 역, 『사회변동의 이론』(서울: 한울아카데미, 1990), 73쪽.

Ⅲ. 북한·통일관련 청소년 의식조사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작년에 실시한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의 2차년도 조사연구로서 올해에는 주로 남북한의 이질성·동질성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의견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나. 조사의 내용

조사의 내용은 크게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견”, “남북한 교류에 대한 인식”, “남북한 이질성 인식”, “남북한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주요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견에서는 청소년들이 분단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통일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한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고, 현 단계에서 통일의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또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중요시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남북한 교류에 대한 인식”에서는 현재 학교의 북한관련 교과내용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북한관련 지식·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로 입수하는지, 활동유형별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참여의사와 북한과의 교류 참여시 부모님의 예상되는 태도 등을 조사하였다.

“남북한 이질성 인식”에서는 남북한 생활·의식의 각 영역별 차이와 전

통규범·관습의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조사하였고,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북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에서는 동질성 증진을 위한 남한과 북한이 노력해야 할 주된 과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사회 내부에서 정부, 시민사회, 청소년부문이 각각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다. 조사의 방법

(1) 조사의 방법

조사의 모집단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다. 표본집단의 선정은 모집단을 ① 성별(남·녀), ② 학교계열별(인문계·실업계), ③ 학교소재지별(강동·강서·강남·강북)의 네가지 범주로 층화하여 각 범주별로 실제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유의할당표집 방식을 채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학교는 모집단 범주별 구성비를 기준으로 서울의 각 지역별로 안배하여 총 15개의 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학교가 선정된 뒤에는 연구진이 대상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급단위로 설문응답 요청을 설명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시 후 회수된 설문지는 총 1,300매로서 오류검토 작업을 거쳐 총 1,166매가 최종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조사결과 통계분석은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차분석, 변량분석,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49.6%, 여자가 50.4%로서 여자가 다소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이 77.8%, 실업계 학생이 22.2%로서 실제 모집단 구성비를 감안할 때 인문계 고등학생이 과대표집되었다. 부친의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13.3%에 불과한 반면, 고등학교 졸업이 45.9%, 대학교 졸업 이상도 40.9%에 달하였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정의 생활수준은 중간수준이라는 응답이 약 7할(68.8%)을 점하였고, 잘 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21.7%로서 못 사는 편이라는 응답(18.5%)보다 많은 편이었다. 자신의 가족(조부모 또는 부모) 중에 남북 이산가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1할(11.9%)에 머물렀다. 종교 유무별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6할(61.7%)에 달하였고, 개신교 신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Ⅲ-1> 표본집단의 특성

(단위: %, 명)

		빈도	비율
성별	남자	578	49.6
	여자	587	50.4
학교계열	인문고	906	77.8
	실업고	258	22.2
부친학력	무학	10	0.9
	국졸	38	3.3
	중졸	106	9.1
	고졸	533	45.9
	대졸	380	32.7
	대학원	95	8.2
생활수준	매우 못 사는 편	22	1.9
	중간보다 못 사는 편	193	16.6
	중간 수준	802	68.8
	중간보다 잘 사는 편	137	11.7
	매우 잘 사는 편	12	1.0
이산가족	있다	138	11.9
	없다	1024	88.1
종교	종교가 없다	446	38.3
	종교가 있다	719	61.7

※ 비고: 각 변인별 무응답자의 수치 및 비율은 표에서 제외되었음

(3) 독립변인

조사결과 분석에 활용된 주요 독립변인은 배경변인으로서 “성”(남·여), “학교계열”(인문고·실업고)과 응답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구성한 “사회계층”, “통일지향성”의 네 가지이다.

“사회계층” 변인은 “부친의 학력”과 “가정의 생활수준” 변인을 활용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계층구분은 “상층-중간-하층”의 세 단계로 하였으며, 구분의 기준과 구성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Ⅲ-2> 사회계층 변인의 구분기준과 구성비

계층	계층구분 기준	빈도 (명)	구성비 (%)
상층	- 부친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 인 경우 전체 - 부친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며, 가정 생활수준이 “중간보다 잘 사는 편” 이상인 경우	167	14.4
중간	- “상층” 과 “하층” 을 제외한 전체	842	72.5
하층	- 부친의 학력이 “무학” 또는 “국민학교 졸업” 인 경우 전체 - 부친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며, 가정 생활수준이 “중간 수준” 이하인 경우	153	13.2

“통일지향성” 변인은 “현재의 남북 분단상황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통일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정의되며, 본 조사의 조사문항인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응답결과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두 조사문항에 대하여 각각 분단 유지·반통일 성향의 응답항목에 낮은 점수를, 통일지향적인 응답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곱한 값에서 상·하위 20%를 기준으로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유별하였다. 여기서 “상” 집단은 통일지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하” 집단은 가장 낮은 집단을 의미한다.

<표Ⅲ-3> 통일지향성 변인 구성을 위한 척도점수

척도 점수	“분단상황에 대한 태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1	매우 만족한다	절대로 통일은 되지 말아야 한다
2	만족한다	통일은 되지 말아야 한다
3	그저 그렇다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4	만족하지 않는다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표Ⅲ-4> 통일지향성 정도별 하위집단 구성

(단위: 명, %)

	빈 도	비 율	구분기준(척도점수 I x II)
상	240	20.7	8점 이하
중	681	58.6	9~12점
하	241	20.7	15점 이상

2. 조사결과 분석

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견

(1)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

현재와 같은 남북한 분단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만족한다”에 이르는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그저 그렇다”가 43.9%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37.7%),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4%), “만족한다”(6.6%)의 순이었고, 매우 만족한다(1.5%)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분단상황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청소년이 다수(48.1%)였으나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낸 청소년이 4할을 상회하고 만족한다는 응답률도 1할(8.1%)에 달하는 점이 주목된다.

<표Ⅲ-5>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빈 도	비 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21	10.4
만족하지 않는다	439	37.7
그저 그렇다	512	43.9
만족한다	77	6.6
매우 만족한다	17	1.5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성, 학교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분단 현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남학생이 과반수(50.8%)에 달하고 유보적인 태도의 응답(“그저 그렇다”)이 40.8%인 반면, 여학생은 45.3%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유보적인 태도의 응답이 남학생보다 훨씬 많았다(47.0%). 계층별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층 56.3%, 중간층 47.8%, 하층 39.9%로서 계층별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률은 하위계층일수록 높았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상층 청소년이 중-하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경향은 상층 청소년의 경우, 중-하층 청소년에 비해 분단현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갖기 보다는 만족-불만족의 보다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Ⅲ-6>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 하위집단별

(단위: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성 별	남자	13.3	37.5	40.8	6.2	2.1
	여자	7.5	37.8	47.0	6.8	0.9
계 층	상층	13.2	43.1	34.7	8.4	0.6
	중간	9.7	38.1	44.3	6.5	1.3
	하층	9.8	30.1	52.9	4.6	2.6

※ 통계치: 성별 $X^2=15.20^{***}$; 계층 $X^2=15.61^*$

※ 비 고: 본 보고서에서 통계적 유의도의 수준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기로 한다.

* = $p < 0.05$, *** = $p < 0.1$, **** = $p < 0.01$

(2)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

통일의 당위성 문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대-찬성을 나타내는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찬성(“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이 61.0%로서 가장 다수였고, 강한 찬성(“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도 2할(20.8%) 수준인 반면, 반대(“통일은 되지 말아야 한다”)가 15.2%, 강한 반대(“절대로 통일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극소수(2.9%)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청소년이 8할(81.8%)에 달하여 통일에 반대하는 청소년(18.1%)의 4배에 달하였다.

<표Ⅲ-7>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빈 도	비 율
절대로 통일은 되지 말아야 한다	34	2.9
통일은 되지 말아야 한다	177	15.2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709	61.0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242	20.8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성·학교계열·사회계층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률이 남자(83.9%)가 여자(79.9%)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의 83.6%가 통일에 찬성한 반면, 실업계 고교생의 찬성율은 8할에 훨씬 못 미쳤다(75.8%). 계층별로는 통일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상층·중간층이 모두 8할을 상회하였지만, 하층 청소년은 75.7%로서 가장 낮았다. 특히 강한 찬성에 대한 응답률이 상층 청소년은 3할(31.9%)에 달하여 2할에 못미치는 중·하층 청소년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Ⅲ-8>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 하위집단별

(단위: %)

		절대로 통일은 되지 말아야한다	통일은 되지 말아야한다	통일은 이루어져야한다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성별	남 자	4.2	11.8	57.8	26.1
	여 자	1.7	18.4	64.2	15.7
계열	인문고	3.2	13.3	61.0	22.6
	실업고	2.0	22.3	61.3	14.5
계층	상 층	3.0	15.7	49.4	31.9
	중 간	2.7	14.3	63.9	19.0
	하 층	3.9	20.4	56.6	19.1

※ 통계치: 성별 $X^2=31.47^{***}$; 계열 $X^2=17.96^{***}$; 계층 $X^2=20.42^{**}$

(3) 통일지향성

본 조사에서는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응답결과를 활용하여 “통일지향성” 변인을 조작적으로 재구성하였다. “통일지향성”을 “현재의 남북 분단상황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통일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정의하고 앞서 설명한 방식에 따라 표본집단을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비율은 각각 20.7%(상), 58.6%(중), 20.7%(하)였다.

통일지향성 정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이 실업계 고교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별로는 상층 청소년의 약 3할(28.9%)이 상위 집단으로 분류된 반면, 중-하층 청소년 중 상위집단에 속한 청소년은 모두 2할에 못미쳐서 생활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분단 현실에 불만을 느끼고 통일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Ⅲ-9> 통일지향성 정도의 하위집단별 분포

(단위: %)

		상	중	하
전	체	20.7	58.6	20.7
성	남	25.8	54.9	19.3
	여	15.7	62.4	22.0
계	인문고	22.1	59.6	18.3
	실업고	15.2	55.1	29.7
계	상	28.9	50.6	20.5
	중	19.4	61.3	19.3
	하	17.8	53.9	28.3

※ 통계치: 성별 $X^2=18.09^{***}$; 계열 $X^2=17.85^{***}$; 계층 $X^2=15.22^{**}$

(4) 통일문제 관심도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심도를 측정하는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약 절반 정도가 “그저 그렇다”(49.8%)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관심이 있다”(26.9%), “관심이 없다”(13.4%)의 순이었으며 “전혀 관심이 없다”(5.8%)는 응답률이 “매우 관심이 있다”(4.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다수의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도(“그저 그렇다”)를 갖고 있는 한편, 관심을 가진 청소년은 3할(31.0%)에 불과하고 관심이 없다는 청소년도 2할(19.2%)에 달하는 점이 주목된다.

<표Ⅲ-10>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단위: 명, %)

	빈 도	비 율
전혀 관심이 없다	67	5.8
관심이 없다	156	13.4
그저 그렇다	579	49.8
관심이 있다	313	26.9
매우 관심이 있다	48	4.1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도를 하위집단별로 살펴 보면, 앞서 문항들과 유사한 응답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성·학교계열·사회계층·통일지향성의 네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률을 비교해 보면, 남자(33.4%)가 여자(28.8%)보다, 인문계 고교생(33.6%)이 실업계 고교생(21.8%)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한편 통일지향성 정도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에서는 상위집단의 관심 있다는 응답률이 68.4%로서 중간(24.7%)-하위(11.6%)의 배 이상에 달하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Ⅲ-1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하위집단별

(단위: %)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저 그렇다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성 별	남 자	8.0	13.2	45.4	28.0	5.4
	여 자	3.6	13.5	54.2	25.9	2.9
계 열	인문고	6.2	12.6	47.6	29.5	4.1
	실업고	4.3	16.3	57.6	17.5	4.3
계 층	상 층	3.6	10.9	38.8	34.5	12.1
	중 간	6.2	13.8	51.7	25.7	2.6
	하 층	5.9	14.4	51.0	25.5	3.3
통 일 지향성	상	0.4	4.2	27.1	53.8	14.6
	중	2.9	12.5	59.9	23.5	1.2
	하	19.1	25.3	44.0	9.5	2.1

※ 통계치: 성별 $X^2=19.21^{**}$; 계열 $X^2=18.16^{**}$; 계층 $X^2=42.36^{***}$; 통일지향성 $X^2=351.32^{***}$

(5) 통일의 장애요인

우리나라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남북한의 이념 대립” 등 모두 11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평가하게 하였다.

장애가 된다는 응답의 비율(“매우 장애가 된다” 포함)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공산주의체제 고수”(76.1%),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73.3%),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70.0%)의 세 항목이 7할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남북한의 이념 대립”(69.7%)과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60.0%)이 6할 이상, 이어서 “주한미군 주둔”(58.3%), “남북한간의 이질성 심화”(58.0%), “통일방법상의 차이”(57.2%), “상호 실질적인 노력부족”(54.7%),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52.2%)가 과반수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상호 통일의지 결여”(47.2%)를 지적한 청소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2> 통일의 장애요인 인식

(단위: %)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보 통	장애가 된다	매우 장애가 된다
남북한의 이념 대립	3.0	4.2	23.0	44.9	24.8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	1.9	4.9	23.1	42.1	27.9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	4.0	9.1	27.0	37.3	22.7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4.0	4.9	17.9	35.4	37.9
남북한간의 이질성 심화	3.2	6.6	32.1	36.4	21.6
통일방법상의 차이	2.2	6.6	33.9	36.1	21.1
북한의 공산주의체제 고수	2.0	3.8	18.1	34.2	41.9
주한미군 주둔	4.0	8.2	29.6	33.6	24.7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5.9	12.1	29.7	30.2	22.0
상호 통일의지 결여	5.8	10.4	36.6	31.0	16.2
상호 실질적인 노력부족	4.4	7.7	33.3	33.4	21.3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분석을 위해 항목별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모두 세가지의 요인이 추출되었다(주성분분석-고유치 1 이상-직교회전).

요인 I 은 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치·경제·군사적인 대립과 갈등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대립·갈등” 변인으로, 요인 II 는 남북한간의 대립·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의지·노력” 변인으로, 요인 III 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대국 이해관계” 변인으로 각각 명명하기로 한다.

<표Ⅲ-13> 통일의 장애요인 요인분석: 회전된 요인행렬표

요 인	항 목	I	Ⅱ	Ⅲ
요인 I	남북한의 이념 대립	<u>0.748</u>	0.119	-0.040
	북한의 공산주의체제 고수	<u>0.704</u>	0.107	0.184
	통일방법상의 차이	<u>0.621</u>	0.230	-0.034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u>0.609</u>	-0.069	0.257
	남북한간의 이질성 심화	<u>0.596</u>	0.281	0.129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	<u>0.532</u>	0.126	0.204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	<u>0.517</u>	0.257	0.217
요인Ⅱ	상호 통일의지 결여	0.123	<u>0.822</u>	0.154
	상호 실질적인 노력부족	0.190	<u>0.794</u>	0.076
요인Ⅲ	주한미군 주둔	0.199	0.031	<u>0.821</u>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0.116	0.233	<u>0.797</u>

세 변인의 척도로서의 신뢰도는 각각 0.77(요인 I), 0.63(요인Ⅱ), 0.62(요인Ⅲ)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이들 세 변인의 평균값(항목별 점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을 비교해 보면, “상호 대립·갈등”이 3.8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강대국 이해관계”(3.58)였고, “통일의지·노력 부족”이 3.50으로 가장 낮았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분단 이후 반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착되어 온 내부적 대립·갈등 구도를 통일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그 다음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두 변인과 비교하여 “통일의지·노력 부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현 정권 출범 이후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남북간의 대화·협력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Ⅲ-14> 통일의 장애요인 요인별 신뢰도 및 평균값

	척도신뢰도	평 균	표준편차
요인Ⅰ(상호 대립·갈등)	0.77	3.83	0.63
요인Ⅱ(통일의지·노력)	0.63	3.50	0.89
요인Ⅲ(장대국 이해관계)	0.62	3.58	0.93

※ 비 고 : 척도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임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이들 세 변인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상호 대립·갈등” 변인에 대한 응답결과는 성·학교계열·사회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북한간의 “상호 대립·갈등”에 대하여 남자(3.72)보다는 여자(3.94), 실업계 고교생(3.61)보다는 인문계 고교생(3.89)이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 수록 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상층의 응답결과 평균값(3.9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중간층(3.82)이고, 하층(3.69)이 가장 낮았다.

<표Ⅲ-15> “상호 대립·갈등” 변인 평균값

		평 균	표준편차	통계치
성 별	남 자	3.72	0.70	F=35.43***
	여 자	3.94	0.54	
계 열	인문고	3.89	0.63	F=38.74***
	실업고	3.61	0.61	
계 층	상 층	3.97	0.58	F=7.89***
	중 간	3.82	0.64	
	하 층	3.69	0.63	

“통일의지·노력 부족” 변인에 대한 응답결과(평균값)를 비교해 보면, 성·학교계열, 통일지향성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3.43)보다는 여자(3.57)가, 학교계열별로는 실업계 고교생(3.30)보다는 인문계 고교생(3.56)이 “통일의지·노력 부족”이 통일의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 청소년의 응답결과 평균값(3.6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간집단(3.47), 하위집단(3.45)의 순으로 나타나 통일지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통일의지·노력 부족”을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Ⅲ-16> “통일의지·노력 부족” 변인 평균값

		평 균	표준편차	통계치
성 별	남 자	3.43	0.95	F=6.76**
	여 자	3.57	0.83	
계 열	인문고	3.56	0.91	F=16.66***
	실업고	3.30	0.82	
통 일 지향성	상	3.63	0.96	F=3.40*
	중	3.47	0.84	
	하	3.45	0.94	

“강대국 이해관계” 변인에 대한 응답결과(평균값)를 비교해 보면, 성·학교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3.47)보다는 여자(3.69), 학교계열별로는 실업계 고교생(3.40)보다는 인문계 고교생(3.63) 중에서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통일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Ⅲ-17> “강대국 이해관계” 변인 평균값

		평 균	표준편차	통계치
성 별	남 자	3.47	1.01	F=17.18***
	여 자	3.69	0.83	
계 열	인문고	3.63	0.95	F=12.86***
	실업고	3.40	0.83	

(6) 통일을 위한 과제

현 단계에서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중요시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남북한간의 상호이해 및 신뢰 구축” 등 모두 8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그 중요도를 단계별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포함)고 평가한 응답비율에서 “남북한간의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이 75.8%로서 가장 높았으며,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72.0%)과 “서신왕래 및 이산가족 등의 상호방문”(71.6%)이 7할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이어서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와 동질성 증진”(69.1%), “문화, 학술 등과 같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68.0%)의 순이었으며,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51.8%) “남북한의 국방예산·군비축소”(48.7%)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Ⅲ-18>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

(단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남북한간의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	2.9	3.8	17.5	41.7	34.1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와 동질성 증진	1.9	4.6	24.4	40.5	28.6
서신왕래 및 이산가족 등의 상호방문	1.9	3.8	22.7	39.0	32.6
남북한 고위당국자간의 평화협정체결	2.5	4.7	26.1	39.2	27.5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	2.3	4.4	21.2	36.0	36.0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	4.4	9.0	34.8	30.2	21.6
문화, 학술 등과 같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2.8	4.6	24.7	38.3	29.7
남북한의 국방예산·군비축소	5.8	8.8	36.7	28.4	20.3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위해 항목별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두 가지의 요인이 추출되었다(주성분분석-고유치 1 이상-직교회전).

요인 I 은 주로 북한의 개방을 전제로 한 남북한 상호간의 사회·문화적 교류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교류 확대” 변인으로, 요인 II는 군사·군비의 축소를 통한 상호 대립구도의 지양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대립 지양” 변인으로 명명하였다.

**<표Ⅲ-19>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 요인분석
: 회전된 요인행렬표**

요 인	항 목	I	II
요인 I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와 동질성 증진	<u>0.794</u>	0.155
	남북한간의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	<u>0.791</u>	0.082
	남북한 고위당국자간의 평화협정체결	<u>0.670</u>	0.189
	서신왕래 및 이산가족 등의 상호방문	<u>0.666</u>	0.268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	<u>0.526</u>	0.379
	문화, 학술 등과 같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u>0.501</u>	0.491
요인 II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	0.184	<u>0.762</u>
	남북한의 국방예산·군비축소	0.121	<u>0.759</u>

이들 두 변인의 척도로서의 신뢰도를 검사한 결과 “개방·교류 확대”는 0.80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군사적 대립 지양”은 낮은 편이었다(0.46). 이들 두 변인에 대한 응답결과의 평균값(항목별 점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을 비교해 보면, 개방·교류 확대가 3.93으로서 “군사적 대립 지양”(3.5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의 과제로서 우선 남북한간의 지속적인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군사·군비 축소와 같은 군사적 대립의 완화는 그 다음 단계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Ⅲ-20>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 요인별 평균값

	척도신뢰도	평 균	표준편차
요인 I (개방·교류 확대)	0.80	3.93	0.68
요인 II (군사적 대립 지양)	0.46	3.52	0.86

※ 비 고 : 척도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임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두 변인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평균값)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개방·교류 확대” 변인의 경우 성·학교계열·사회계층·통일지향성의 네 가지 변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3.86)보다는 여자(3.99)가, 학교계열별로는 실업계 고교생(3.74)보다는 인문계 고교생(3.98)이 “개방·교류 확대”를 통일을 위한 과제로서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상위계층의 평균값(4.02)이 가장 높고, 다음이 중간계층(3.93), 하위계층(3.82)의 순이었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도 상위집단으로 올라갈수록 “개방·교류 확대”를 통일의 과제로서 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평가점수 평균값이 상위집단(4.14)이 가장 높고 다음이 중간집단(3.94)이었으며 하위집단(3.69)이 가장 낮았다.

<표Ⅲ-21> “개방·교류 확대” 변인 평균값

		평 균	표준편차	통계치
성 별	남 자	3.86	0.75	F=9.80**
	여 자	3.99	0.59	
계 열	인문고	3.98	0.66	F=25.93***
	실업고	3.74	0.69	
계 층	상 층	4.02	0.64	F=3.40*
	중 간	3.93	0.67	
	하 층	3.82	0.71	
통 일 지향성	상	4.14	0.61	F=28.37***
	중	3.94	0.59	
	하	3.69	0.85	

“군사적 대립 지양” 변인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통일지향성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3.60)가 남자(3.44)보다 “군사적 대립 지양”을 통일의 과제로서 보다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중요도 평가점수가 높았는데, 상위집단(3.61)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간집단(3.54), 하위집단(3.37)의 순이었다.

<표Ⅲ-22> “군사적 대립 지양” 변인 평균값

		평 균	표준편차	통계치
성 별	남 자	3.44	0.94	F=9.56**
	여 자	3.60	0.77	
통 일 지향성	상	3.61	0.90	F=4.89**
	중	3.54	0.79	
	하	3.37	0.98	

나. 남북한 교류에 대한 인식

(1) 북한관련 교육의 만족도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북한관련 교과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흡”-“적절”을 나타내는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미흡하다가 43.0%로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매우 “미흡하다”가 30.4%에 달하는 반면, “적절하다”(5.3%), “매우 적절하다”(1.3%)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그저 그렇다” 20.0%).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7할을 상회(73.4%)하여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북한관련 교과내용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Ⅲ-23> 북한관련 교과내용 만족도

(단위: 명, %)

	빈 도	비 율
매우 미흡하다	352	30.4
미흡하다	497	43.0
그저 그렇다	231	20.0
적절하다	61	5.3
매우 적절하다	15	1.3

북한관련 교과내용 만족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학교계열·통일지향성의 세 가지 변인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미흡하다고 평가한 응답률을 비교해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76.3%로서 여자(70.6%)보다 높았으며,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이 77.3%로서 실업계 고교생(60.1%)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 청소년의 8할 이상(81.5%)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반면, 중간집단은 73.4%, 하위집단은 65.4%로서 통일지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현행 교과내용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24> 북한관련 교과내용 만족도: 하위집단별

(단위: %)

		매우 미흡하다	미흡하다	그저 그렇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성 별	남 자	35.1	41.2	17.3	5.2	1.2
	여 자	25.9	44.7	22.7	5.3	1.4
계 열	인문고	32.3	45.0	16.9	4.6	1.2
	실업고	23.8	36.3	30.5	7.8	1.6
통 일 지향성	상	41.2	40.3	11.3	6.3	.8
	중	27.3	46.1	21.9	4.0	.7
	하	29.1	36.3	23.6	7.6	3.4

※ 통계치: 성별 $X^2=12.99^*$; 계열 $X^2=30.64^{***}$; 통일지향성 $X^2=42.19^{***}$

(2) 북한관련 지식·정보 입수경로

청소년들이 북한에 관한 정확한 지식·정보를 얻는 데 주로 어떤 매체에 의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6가지의 정보입수 경로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단계별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포함)는 응답비율에서 “텔레비전”이 61.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신문”(43.8%), “인터넷”(38.6%), “부모님”(17.0%), “학교수업”(13.2%)의 순이었으며, “친구·선후배”가 8.2%로서 가장 낮았다. 청소년들은 북한관련 지식·정보를 인적인 경로보다는 주로 정보통신매체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신문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달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정보화 추세와 더불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이 전통적인 정보통신매체에 뒤지지 않은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Ⅲ-25> 매체별 북한관련 정보입수의 도움 정도

(단위: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텔레비전	5.4	6.3	27.3	41.7	19.3
신문	7.2	10.7	38.2	32.7	11.1
학교수업	21.5	29.4	35.9	10.3	2.9
부모님	20.3	25.2	37.6	13.7	3.3
친구·선후배	41.3	26.9	23.6	5.9	2.3
인터넷	15.3	14.2	31.9	27.2	11.4

(3) 남북한 교류시 참여희망 활동

남북한간의 청소년 교류가 이뤄지게 된다면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선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7가지의 교류활동 유형을 제시하고 참여의사를 단계별 5점 척도를 통해 응답하게 하였다.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다(“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포함)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명승지·관광지 여행”이 63.8%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은 북한과의 교류시 부담 없는 여행형태의 활동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청소년과의 음악·미술 등 예술활동 교류”(55.7%), “북한청소년과의 인터넷 교류”(메일/채팅 등)(54.8%), “북한의 역사·문화유적지 답사활동”(54.0%), “북한청소년과의 스포츠 교류활동”(47.7%), “북한청소년과의 국토순례대행진”(39.9%)의 순이었으며 “북한청소년과의 종교관련 활동”이 16.1%로서 가장 낮았다.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교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스페이스상의 교류에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26> 활동유형별 남북한 청소년교류 참여의사

(단위: %)

	전혀참여 하고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지않다	그저 그렇다	참여하고 싶다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북한의 역사·문화유적지 답사활동	7.3	12.0	26.8	36.5	17.5
북한청소년과의 음악·미술등 예술활동 교류	7.1	10.9	26.4	35.2	20.5
북한청소년과의 스포츠 교류 활동	7.2	12.9	32.2	29.3	18.4
북한의 명승지·관광지 여행	6.2	8.8	21.1	35.9	27.9
북한청소년과의 국토순례대 행진	13.4	16.2	30.4	21.7	18.2
북한청소년과의 인터넷 교류 (메일/채팅 등)	7.1	11.3	26.8	30.0	24.8
북한청소년과의 종교관련 활동	33.3	25.2	25.4	10.2	5.9

(4) 북한방문시 부모님의 태도

만약 자신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반대”-“찬성”을 나타내는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찬성(“찬성하실 것이다”)이 37.1%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30.6%), 적극 찬성(“적극적으로 찬성하실 것이다”, 16.4%), 반대(“반대하실 것이다”, 10.9%)의 순이었으며, 적극 반대(“적극적으로 반대하실 것이다”)가 5.0%로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과반수의 청소년(53.5%)이 찬성하실 것으로 응답하여 반대하실 것이라는 응답률(15.9%)을 월등하게 상회하였다.

<표Ⅲ-27> 북한방문시 예상되는 부모님의 태도

(단위: 명, %)

	빈도	비율
적극적으로 반대하실 것이다	58	5.0
반대하실 것이다	127	10.9
찬성하실 것이다	432	37.1
적극적으로 찬성하실 것이다	191	16.4
잘 모르겠다	356	30.6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와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성·사회계층·통일지향성의 세 변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찬성 응답률을 비교해 보면, 여자가 과반수를 상회하는 55.4%로서 남자(51.6%)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고, 사회계층별로는 상층이 57.8%로서 가장 높았고 하층(49.1%)이 가장 낮았다. 특히 하층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응답이 4할(40.5%)로서 상층(21.7%), 중간층(30.6%)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편인데, 이것은 여행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에 고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지향성 정도별 하위집단의 경우 상위집단의 찬성응답률이 6할을 상회(62.3%)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간(54.2%), 하위집단(42.3%)의 순이었다.

<표Ⅲ-28> 북한방문시 예상되는 부모님의 태도: 하위집단별

(단위: %)

		적극적으로 반대하실 것이다	반대하실 것이다	찬성하실 것이다	적극적으로 찬성하실 것이다	잘 모르겠다
성별	남자	6.3	10.8	33.2	18.4	31.4
	여자	3.7	11.1	40.9	14.5	29.8
계층	상층	5.4	15.1	35.5	22.3	21.7
	중간	5.1	10.9	37.3	16.1	30.6
	하층	3.9	6.5	37.3	11.8	40.5
통일 지향성	상	4.2	6.7	34.7	27.6	26.8
	중	2.6	10.7	41.0	13.2	32.5
	하	12.4	15.8	27.8	14.5	29.5

※ 통계치: 성별 $X^2=11.32^*$; 계층 $X^2=20.65^{**}$; 통일지향성 $X^2=77.49^{***}$

다. 남북한 이질성 인식

(1) 남북한 생활·의식의 차이 인식

청소년들은 남북한간의 이질성의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생활·의식과 관련된 모두 9가지 항목들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남북한간에 차이의 정도를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남북한이 서로 다를 것이다(“전혀 다를 것이다” 포함)고 응답한 비율에서, “가치관·사고방식”이 79.7%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놀이문화”(72.7%), “언어생활”(71.6%), “학교생활”(69.2%), “생활방식”(의식주 등)(62.9%), “가정생활”(59.5%), “종교관련 의식 및 활동”(55.9%) 등이 과반수에 달한 반면, “역사의식”(46.1%), “전통문화”(35.3%)에 대하여 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Ⅲ-29> 남북한 생활·의식의 차이 인식

(단위: %)

	진혀다를 것이다	다를 것이다	보통 이다	같은 것이다	매우같은 것이다
생활방식(의식주 등)	20.5	42.4	23.1	11.0	2.9
가치관·사고방식	33.7	46.0	13.7	5.0	1.5
가정생활	19.0	40.5	26.6	10.7	3.2
언어생활	23.5	48.1	19.2	7.3	1.9
놀이문화	30.0	42.7	17.6	7.3	2.3
학교생활	26.5	42.7	21.5	7.1	2.2
전통문화	10.5	24.8	32.2	25.5	7.0
역사의식	18.0	28.1	26.1	19.9	7.9
종교관련 의식 및 활동	23.3	32.6	30.1	10.4	3.6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항목별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두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주성분분석-고유치 1 이상-직교회전).

요인 I 은 주로 분단 이후 확산되어 온 현대사회의 생활양식·가치관 등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생활문화” 변인으로, 요인 II 는 분단 이전에 형성되었던 역사·종교, 전통문화 등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의식·전통문화” 변인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표Ⅲ-30> 남북한 생활·의식 차이 인식 요인분석
: 회전된 요인행렬표

요 인	항 목	I	II
요인 I	놀이문화	<u>0.755</u>	0.037
	가치관·사고방식	<u>0.704</u>	0.116
	학교생활	<u>0.682</u>	0.152
	가정생활	<u>0.626</u>	0.211
	언어생활	<u>0.623</u>	0.179
	생활방식(의식주 등)	<u>0.619</u>	0.185
요인 II	역사의식	0.122	<u>0.848</u>
	전통문화	0.112	<u>0.768</u>
	종교관련 의식 및 활동	0.240	<u>0.594</u>

두 변인의 척도로서의 신뢰도는 각각 0.77(“현대적 생활문화”), 0.63(“역사·전통문화 인식”)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변인에 대한 응답결과의 평균값(항목별 점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을 비교해 보면, “현대적 생활문화”가 2.17로서 “역사·전통문화 인식”(2.67)보다 월등히 낮은 편이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남북한간에 분단 이전에 형성된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보다는 분단 이후 상이한 정치·경제체제 속에서 형성된 다양한 생활문화의 차이가 더 현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Ⅲ-31> 남북한 생활·의식 차이 인식 요인별 평균값

	척도신뢰도	평 균	표준편차
요인 I(현대적 생활문화)	0.77	2.17	0.66
요인 II(역사의식·전통문화)	0.63	2.67	0.85

※ 비 고 : 척도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임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두 변인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평균값)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현대적 생활문화”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통일지향성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남자(2.21)보다는 여자(2.14)가 현대적 생활문화의 측면에서 남북한간의 이질화가 더 심할 것으로 응답하였고,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하위집단으로 내려갈수록 남북한간에 서로 다를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Ⅲ-32> “현대적 생활문화” 변인 평균값

		평 균	표준편차	통계치
성 별	남 자	2.21	0.68	F=3.47
	여 자	2.14	0.64	
통 일 지향성	상	2.30	0.72	F=9.52***
	중	2.18	0.60	
	하	2.04	0.72	

“역사의식·전통문화”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에서도 성·통일지향성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2.73)보다는 여자(6.62)가,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2.94)-중간집단(2.67)보다는 하위집단이 남북한간의 역사의식·전통문화의 차이가 심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다. 통일지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현대적 생활문화, 역사의식·전통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남북한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33> “역사의식·전통문화” 변인 평균값

		평 균	표준편차	통계치
성 별	남 자	2.73	0.90	F=4.23*
	여 자	2.62	0.79	
통 일 지향성	상	2.94	0.88	F=22.98***
	중	2.67	0.80	
	하	2.42	0.86	

(2) 전통규범·관습의 영향력 차이

전통규범·관습의 사회적 영향력이 남북한중 어느 쪽이 더 강할 것인지에 대하여 모두 10가지의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북한이 더 강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더 높은 항목은 “권위주의”(북한이 강할 것 76.6%- 남한이 강할 것 23.4%), “가부장주의”(72.5%-27.5%), “남존여비사상”(68.9%-31.0%), “상부상조의 관습”(64.9%-35.0%), “부모에 대한 효도 관념”(63.9%-36.0%), “노인공경의식”(60.3%-39.7%), “조상숭배 사상”(59.8%-40.1%) 등 7개 항목이었으며, 북한보다 남한이 더 영향력이 강할 것이라고 응답한 항목은 “가족중심주의”(33.0%-67.1%), “지역주의”(연고주의)(29.3%-70.7%), “학벌주의”(15.1%-84.9%)의 세 항목이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유교적 윤리관에 기초한 규범·관습의 사회적 영향력이 북한이 더 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 공동체意識의 왜곡된 형태인 혈연·지연·학연에 기초한 연고주의적 성향은 남한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34> 전통규범·관습 영향력 차이인식

(단위: %)

	북한이 더 강할 것이다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약간	약간	훨씬
권위주의	46.3	30.3	16.1	7.3
가부장주의	41.8	30.7	18.3	9.2
남존여비사상	37.4	31.5	20.4	10.6
지역주의(연고주의)	11.5	17.8	36.1	34.6
가족중심주의	14.0	19.0	38.4	28.7
학벌주의	6.8	8.3	24.3	60.6
상부상조의 관습	25.5	39.4	27.4	7.6
부모에 대한 효도 관념	28.9	35.0	26.6	9.4
조상숭배 사상	26.6	33.2	27.9	12.2
노인공경의식	23.7	36.6	29.5	10.2

남북한간 전통규범·관습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항목별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요인이 추출되었다(주성분분석-고유치 1 이상-직교회전).

요인Ⅰ은 주로 유교적 효·조상숭배 사상에 기초한 전통규범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조상숭배 사상” 변인으로, 요인Ⅱ는 가정 내에서의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권(夫權) 중심주의” 변인으로, 요인Ⅲ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준으로 개인의 자질·능력보다 우선시되는 학연·지연·혈연 등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고(緣故)주의” 변인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표Ⅲ-35> 전통규범·관습 영향력 차이인식 요인분석
: 회전된 요인행렬표**

요 인	항 목	I	II	III
요인 I	부모에 대한 효도 관념	<u>0.830</u>	0.044	-0.024
	노인공경의식	<u>0.761</u>	0.028	0.022
	조상숭배 사상	<u>0.737</u>	0.109	0.126
	상부상조의 관습	<u>0.619</u>	0.151	-0.037
요인 II	가부장주의	0.191	<u>0.829</u>	0.003
	권위주의	-0.024	<u>0.778</u>	0.024
	남존여비사상	0.161	<u>0.732</u>	0.122
요인 III	학벌주의	0.036	-0.066	<u>0.725</u>
	지역주의(연고주의)	-0.190	0.243	<u>0.717</u>
	가족중심주의	0.191	0.031	<u>0.703</u>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세 변인의 척도로서의 신뢰도는 “효·조상숭배 사상”이 0.73, “부권 중심주의”가 0.69, “연고주의”가 0.52로 나타났다. 이들 세 변인에 대한 응답결과의 평균값(항목별 점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을 비교해 보면, “부권 중심주의”가 1.93으로 가장 작았고, “효·조상숭배 사상”이 중간(2.20), “연고주의”가 3.05로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윤리관에 기초한 전통적 요소(“부권 중심주의”, “효·조상숭배 사상”)가 남한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우리사회의 오래된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연고주의(학연·지연·혈연)는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표Ⅲ-36> 전통규범·관습 영향력 차이인식 요인별 평균값

	척도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요인 I(효·조상숭배 사상)	0.73	2.20	0.69
요인 II(부권 중심주의)	0.69	1.93	0.76
요인 III(연고주의)	0.52	3.05	0.68

※ 비 고 : 척도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임

이들 세 변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효도·조상숭배 사상”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성·학교계열·사회계층·통일지향성의 네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남자(2.15)가 여자(2.25)보다,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2.16)이 실업계 고교생보다 북한이 더 강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계층별로는 북한이 더 강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상층 청소년(2.1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간층(2.20), 하층 청소년(2.33)의 순이었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 집단일수록 북한이 더 강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Ⅲ-37> “효·조상숭배 사상” 변인 평균값

		평 균	표준편차	통계치
성 별	남 자	2.15	0.73	F=6.11*
	여 자	2.25	0.65	
계 열	인문고	2.16	0.68	F=15.12***
	실업고	2.35	0.71	
계 층	상 층	2.13	0.65	F=3.53*
	중 간	2.20	0.69	
	하 층	2.33	0.75	
통 일 지향성	상	2.11	0.67	F=5.58**
	중	2.19	0.67	
	하	2.32	0.77	

“부권 중심주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평균값)은 성·학교계열·통일지향성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1.85)가 남자(2.03)보다,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1.89)이 실업계 고교생(2.07)보다 북한이 남한에 비해 부권 중심주의가 더 강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북한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중간집단(1.8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위집단(1.97), 하위집단(2.06)의 순이었다.

<표Ⅲ-38> “부권 중심주의” 변인 평균값

		평 균	표준편차	통계치
성 별	남 자	2.03	0.77	F=15.87***
	여 자	1.85	0.74	
계 열	인문고	1.89	0.75	F=10.90**
	실업고	2.07	0.79	
통 일 지향성	상	1.97	0.77	F=5.28**
	중	1.88	0.73	
	하	2.06	0.82	

“연고주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평균값)의 차이는 학교계열·통일지향성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교계열별로는 실업계 고교생(2.91)이 인문계 고교생(3.09)보다 북한이 더 강할 것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북한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하위집단(2.9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간집단(3.04), 상위집단(3.18)의 순이었다.

<표Ⅲ-39> “연고주의” 변인 평균값

		평 균	표준편차	통계치
계 열	인문고	3.09	0.67	F=13.13***
	실업고	2.91	0.70	
통 일 지향성	상	3.18	0.68	F=7.80***
	중	3.04	0.66	
	하	2.93	0.73	

(3) 남북한 이질화의 심화요인

분단 이후에 남북한 주민들간의 이질화를 심화시킨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두 6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이념·사상적 차이”를 지적한 청소년이 35.6%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치체제상의 차이”(16.4%), “남북한간 경제적 불균형”(16.4%), “남북한간 대중문화의 차이”(13.9%), “생활방식의 차이”(의식주 등)(10.3%)의 순이었으며 “학교 교육”을 지적한 청소년(7.4%)이 가장 적었다.

<표Ⅲ-40> 남북한 이질화의 심화요인

(단위: 명, %)

	빈도	비율
생활방식의 차이(의식주 등)	120	10.3
학교 교육	86	7.4
남북한간 대중문화의 차이	161	13.9
남북한간 경제적 불균형	190	16.4
이념·사상적 차이	414	35.6
정치체제상의 차이	191	16.4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성·학교계열·통일지향성의 세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이념·사상적 차이”(35.7%), 여자는 “남북한간 대중문화의 차이”(16.0%), “학교교육”(10.2%)를 지적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은 “이념·사상적 차이”(39.8%)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면, 실업계 고교생은 “남북한간 대중문화의 차이”(23.0%)를 지적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이념·사상적 차이”의 응답률은 21.1%에 머물렀다. 통일지향성 정도에 있어서는 “정치체제상의 차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중간-하위집단의 경우 14%선에 머문 반면, 상위집단은 24.7%에 달하여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Ⅲ-41> 남북한 이질화의 심화요인: 하위집단별

(단위: %)

		생활방식의 차이(의식 주 등)	학교 교육	남북한간 대중문화 의 차이	남북한간 경제적 불균형	이념·사 상적 차이	정치체제 상의 차이
성 별	남 자	11.8	10.2	16.0	17.2	30.2	14.6
	여 자	8.9	4.6	11.6	15.6	41.0	18.3
계 열	인문고	9.6	7.0	11.2	15.7	39.8	16.7
	실업고	12.9	8.6	23.0	18.8	21.1	15.6
통 일 지 향 성	상	7.5	8.4	13.8	13.0	32.6	24.7
	중	10.7	6.2	13.7	16.0	39.0	14.4
	하	12.1	10.0	14.2	20.4	29.2	14.2

※ 통계치: 성별 $X^2=31.20^{***}$; 계열 $X^2=44.04^{***}$; 통일지향성 $X^2=28.52^{**}$

(4) 남북한 청소년의 사고방식 차이

북한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들은 사고방식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다를 것이다”가 47.7%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전혀 다를 것이다”(32.7%), “같을 것이다”(11.7%)의 순이었으며, “매우 같을 것이다”이라는 응답은 1할에도 못미쳤다(7.9%).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청소년(80.4%)이 다를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2할(19.6%)에도 못 미쳤다.

<표Ⅲ-42> 남북한 청소년의 사고방식 차이

(단위: 명, %)

	빈 도	비 율
전혀 다를 것이다	377	32.7
다를 것이다	549	47.7
같은 것이다	135	11.7
매우 같은 것이다	91	7.9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성·통일지향성의 두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북한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이 같은 것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이 22.7%였으나 여학생은 16.6%에 머물렀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같은 것이라는 응답률이 상위집단의 경우 27.1%에 달하는 반면, 중간(18.1%), 하위집단(16.5%)은 2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43> 남북한 청소년의 사고방식 차이: 하위집단별

(단위: %)

		전혀 다를 것이다	다를 것이다	같은 것이다	매우같은 것이다
성 별	남 자	34.1	43.2	13.8	8.9
	여 자	31.3	52.2	9.7	6.9
통 일 지향성	상	24.7	48.1	19.2	7.9
	중	30.2	51.7	11.1	7.0
	하	48.3	35.2	5.9	10.6

※ 통계치: 성별 $X^2=11.23^*$; 통일지향성 $X^2=54.92^{***}$

(5)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식

북한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성격이나 행동면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9가지의 성격·행동특성을 제시하고 그 정도를 단계별 4점 척도를 통해 평가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북한 청소년의 이미지는 남한청소년에 비해 “집단주의적”(73.2%), “엄격”(69.8%), “타율적”(65.9%), “몰개성적”(65.3), “폐쇄적”(64.1%)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성실”(58.8%)하고 “근면”(57.9)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성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청소년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스테레오타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Ⅲ-44>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식

(단위: %)

	매 우	대체로	중 간	대체로	매 우	
타율적이다	31.5	34.4	22.7	7.0	4.4	자율적이다
집단주의적이다	44.8	28.4	16.4	6.4	4.0	개인주의적이다
몰개성적이다	34.5	30.8	24.7	6.1	3.9	개성적이다
폐쇄적이다	33.1	31.0	24.8	7.2	3.9	개방적이다
경쟁적이다	17.9	16.6	29.4	19.1	17.1	협동적이다
엄격하다	43.3	26.5	18.0	6.9	5.4	자유롭다
불성실하다	5.7	8.7	26.9	28.5	30.3	성실하다
게으르다	4.6	7.1	30.4	29.5	28.4	근면하다
비사교적이다	14.8	18.8	43.7	16.0	6.7	사교적이다

라.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1)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북한

남북한간의 동질성 증진을 위해 북한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두 5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김정일 체제의 붕괴”(28.7%), “북한사회의 개혁·개방”(25.7%), “남한과의 교류·협력 확대”(25.4%)가 모두 1/4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반면, “북한사회의 경제적 발전”(13.4%),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외교관계 정상화”(6.8%)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표Ⅲ-45> 동질성 증진을 위한 북한의 과제

(단위: 명, %)

	빈도	비율
북한사회의 개혁·개방	298	25.7
김정일 체제의 붕괴	333	28.7
북한사회의 경제적 발전	155	13.4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79	6.8
남한과의 교류·협력 확대	294	25.4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와의 차이는 성·통일지향성의 두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지적한 응답률이 남학생은 24.6%에 머문 반면, 여학생은 32.9%에 달하여 큰 대조를 이루었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지적한 응답률이 상위집단이 21.8%로서 가장 적고, 하위집단이 34.9%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한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지적한 응답은 상위집단이 34.0%에 달하는 반면 하위집단은 그 1/2수준(17.0%)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지향성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남북관계에 있어서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대립구도보다는 상호간 이익이 되는 교류·협력관계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46> 동질성 증진을 위한 북한의 과제: 하위집단별

(단위: %)

		북한사회의 개혁·개방	김정일 체제의 붕괴	북한사회의 경제적 발전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남한과의 교류·협력 확대
성 별	남자	27.5	24.6	15.0	9.4	23.5
	여자	23.8	32.9	11.8	4.3	27.2
통 일 지향성	상	26.5	21.8	10.5	7.1	34.0
	중	26.5	29.0	12.1	7.0	25.4
	하	22.4	34.9	19.5	6.2	17.0

※ 통계치: 성별 $X^2=23.41^{***}$; 통일지향성 $X^2=31.16^{***}$

(2)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남한

다음으로는 남북한간의 동질성 증진을 위해 남한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두 5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북한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지적한 청소년이 46.3%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통일교육의 개선”(17.8%), “대중매체 등의 북한에 대한 보도내용의 개선”(16.6%), “정부 대북정책의 전환(수정)”(14.5%)이 각각 1할 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를 지적한 청소년(4.8%)은 소수에 불과했다.

<표Ⅲ-47> 동질성 증진을 위한 남한의 과제

(단위: 명, %)

	빈 도	비 율
통일교육의 개선	206	17.8
대중매체 등의 북한에 대한 보도내용의 개선	192	16.6
정부 대북정책의 전환(수정)	168	14.5
북한과의 교류·협력 확대	536	46.3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	55	4.8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학교계열의 두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정부 대북정책의 전환(수정)”(16.4%)을 지적한 청소년이, 여학생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확대”(50.1%)를 지적한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확대”(47.4%), 실업계 고교생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8.2%)의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48> 동질성 증진을 위한 남한의 과제: 하위집단별

(단위: %)

		통일교육의 개선	대중매체 등의 북한에 대한 보도내용의 개선	정부 대북정책의 전환(수정)	북한과의 교류·협력 확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
성별	남자	18.7	16.4	16.4	42.6	5.9
	여자	17.0	16.6	12.7	50.1	3.6
계열	인문고	17.7	16.2	14.9	47.4	3.8
	실업고	18.3	17.5	13.2	42.8	8.2

※ 통계치: 성별 $X^2=10.02^*$; 계열 $X^2=9.62^*$

(3)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정부, 시민사회, 청소년부문

남북한의 통일과 동질성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정부, 시민사회, 청소년부문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그 중요도를 단계별 5점 척도를 통해 평가하게 하였다.

먼저 정부 차원의 과제들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제시된 6가지의 과제들 중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포함)고 평가한 응답비율에서 “고위당국자간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전개”가 64.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정부중심의 교류·협력 확대”(60.4%), “통일교육과 북한관련 교과내용의 개선”(56.4%), “통일관련 법·제도의 제·개정”(55.3%),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의 확대·발전”(47.6%)의 순이었으며, “통일관련 예산의 증액”이 41.9%로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표Ⅲ-49>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정부

(단위: %)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 다
통일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6.0	9.2	29.4	41.1	14.2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의 확대·발전	5.5	10.3	36.6	35.4	12.2
정부중심의 교류·협력 확대	4.8	8.7	26.1	37.2	23.2
고위당국자간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전개	4.3	7.7	23.1	36.0	28.9
통일관련 예산의 증액	6.3	13.9	37.8	30.2	11.7
통일교육과 북한관련 교과내용의 개선	5.7	8.6	29.4	35.4	21.0

시민사회 차원의 과제들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제시된 4가지의 과제들 중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포함)고 평가한 응답비율에서, “북한 관련 대중매체의 보도 내용 개선”이 61.3%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민단체의 교류·협력 참가”(58.2%), “범국민적 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의 전개”(49.7%)의 순이었고,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48.0%)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표Ⅲ-50>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시민사회

(단위: %)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중요 하다	매우중요 하다
북한관련 대중매체의 보도 내용 개선	5.3	7.0	26.4	40.3	21.0
시민단체의 교류·협력 참가	3.7	7.9	30.1	38.3	19.9
범국민적 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의 전개	5.4	8.7	36.3	31.8	17.9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6.4	10.6	35.0	32.5	15.5

마지막으로 청소년부문의 과제들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제시된 5가지의 과제들 중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포함)고 평가한 응답비율에

서, “청소년관련 교류·협력의 참가”가 57.4%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청소년들의 통일관련 관심의 제고”(54.0%), “통일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51.8%), “북한동포돕기 운동(식량, 의약품, 의류 등)의 적극적인 참여”(51.0%)의 순이었고, “통일관련 청소년운동의 전개”(43.0%)의 응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51〉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청소년부문

(단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관련 교류·협력의 참가	6.0	8.1	28.4	39.1	18.3
북한동포돕기 운동 (식량, 의약품, 의류 등)의 적극적인 참여	6.1	10.9	32.0	33.3	17.7
통일관련 청소년운동의 전개	7.9	11.3	37.7	30.9	12.1
청소년들의 통일관련 관심의 제고	5.7	8.7	31.6	36.8	17.2
통일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	6.7	9.6	32.0	32.7	19.1

3. 요약 및 논의

가. 요약

(1)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견

(가)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

남북한 분단상황에 대하여 절반 정도(48.1%)의 청소년만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낸 청소년이 4할, 만족한다는 청소년도 1할에 달하였다. 여자보다는 남자,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고교생, 상위계층의 청소년일수록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대다수(81.8%)였지만 통일에 반대하는 청소년도 2할 수준(18.1%)에 달하였다. 여자보다는 남자,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고교생, 하위계층보다는 중·상위계층 청소년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다) 통일지향성

하위집단별 통일지향성(“남북 분단상황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통일을 추구하는 성향”)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이 실업계 고교생보다, 사회계층별로는 상위계층 청소년이 중·하층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통일문제 관심도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청소년은 3할(31.0%)에 머물렀으며 대다수가 “그저 그렇다”(49.8%)고 응답하였으며 관심이 없다는 청소년도 2할(19.2%)에 달하였다.

(마) 통일의 장애요인

통일의 장애요인으로서 “북한의 공산주의체제 고수”(76.1%),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73.3%),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70.0%) “남북한의 이념 대립”(69.7%)의 응답률이 높았고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52.2%), “상호 통일의지 결여”(47.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청소년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착되어 온 내부적 대립·갈등 구도를 통일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그 다음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 정권 출범 이후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남북간의 대화·협력 분위기를 반영하듯 “통일의지·노력 부족”을 지적한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바) 통일을 위한 과제

통일을 위하여 중요시해야 할 과제로서는 “남북한간의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75.8%),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72.0%)과 “서신왕래 및 이산가족 등의 상호방문”(71.6%)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51.8%) “남북한의 국방예산·군비 축소”(48.7%) 등 군사적 측면의 과제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2) 남북한 교류에 대한 인식

(가) 북한관련 교육의 만족도

현행 학교의 북한관련 교과내용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응답이 7할(73.4%)을 상회하는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1할에도 못미쳐서(6.6%)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북한관련 교과내용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지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현행 교과내용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북한관련 지식·정보 입수경로

북한에 관한 정확한 지식·정보를 얻는 경로로서 “텔레비전”(61.0%)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문”(43.8%), “인터넷”(38.6%) 등의 순이었으며 “학교수업”(13.2%)의 응답률은 매우 낮았다. 급속한 정보화의 확산과 더불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학교수업보다는 인터넷이 북한관련 지식·정보를 얻는 유용한 매체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남북한 교류시 참여희망 활동

남북한간 청소년 교류가 이뤄질 경우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북한의 명승지·관광지 여행”(63.8%), “북한청소년과의 음악·미술 등 예술활동 교류”(55.7%), “북한청소년과의 인터넷 교류(메일/채팅 등)”(54.8%) 등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스페이스상의 교류에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북한방문시 부모님의 태도

만약 자신이 청소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부모님의 태도에 대하여 과반수의 청소년(53.5%)이 찬성하실 것으로 응답하여 반대하실 것이라는 응답률(15.9%)을 월등하게 상회하였다.

(3) 남북한 이질성 인식

(가) 남북한 생활·의식의 차이 인식

남북한간의 생활·의식상의 차이에 대하여 “가치관·사고방식”이 다를 것이라는 응답(79.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놀이문화”(72.7%), “언어생활”(71.6%), “학교생활”(69.2%) 등의 순이었고 “역사의

식”(46.1%), “전통문화”(35.3%)가 다를 것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남북한간에 분단 이전에 형성된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보다는 분단 이후 상이한 정치·경제체제 속에서 형성된 다양한 생활문화의 차이가 더 현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전통규범·관습의 영향력 차이

남북한간 전통규범·관습의 사회적 영향력 차이에 청소년들은 “권위주의”, “가부장주의”, “남존여비사상”, “상부상조의 관습”, “부모에 대한 효도 관념”, “노인공경의식”, “조상숭배 사상” 등은 북한이 더 강할 것으로, 반면에 “가족중심주의”, “지역주의”, “학벌주의” 등은 남한이 더 강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유교적 윤리관에 기초한 규범·관습의 사회적 영향력이 북한이 더 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 공동체의식의 왜곡된 형태인 혈연·지연·학연에 기초한 연고주의적 성향은 남한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남북한 이질화의 심화요인

분단 이후에 남북한 주민들간의 이질화를 심화시킨 주된 요인으로서 “이념·사상적 차이”(35.6%)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정치체제상의 차이”(16.4%), “남북한간 경제적 불균형”(16.4%), “남북한간 대중문화의 차이”(13.9%) 등의 순이었다.

(라) 남북한 청소년의 사고방식 차이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하여 대다수의 청소년(80.4%)이 다를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2할(19.6%)에도 못 미쳤다. 대체로 여자보다는 남자, 통일지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남북한 청소년의 사고방식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마)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북한청소년의 이미지는 남한청소년에 비해 “집단주의적”(73.2%), “엄격”(69.8%), “타율적”(65.9%), “몰개성적”(65.3%), “폐쇄적”(64.1%)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성실”(58.8%)하고 “근면”(57.9%)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스테레오타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가)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북한

남북한간의 동질성 증진을 위한 북한사회의 과제로서 “김정일 체제의 붕괴”(28.7%), “북한사회의 개혁·개방”(25.7%), “남한과의 교류·협력 확대”(25.4%)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남자보다는 여자, 통일지향성이 낮은 청소년들이 높은 청소년들에 비해 김정일 체제의 붕괴의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다.

(나)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남한

남북한간의 동질성 증진을 위해 남한내의 과제로서 “북한과의 교류·협력 확대”(46.3%)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이어서 “통일교육의 개선”(17.8%), “대중매체 등의 북한에 대한 보도내용의 개선”(16.6%), 등의 순이었다.

(다)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정부, 시민사회, 청소년부문

남북한의 통일과 동질성 증진을 과제로서, 정부 차원에서는 “고위당국자간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전개”(64.9%)가,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북한관련 대중매체의 보도내용 개선”(61.3%)이, 청소년부문에서는 “청소년관련 교류·협력의 참가”(57.4%)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나. 논 의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청소년들이 분단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다. 분단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약 5할,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8할에 달하지만,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할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학교교육과 마스크 등을 통해 민족의 당면과제로서의 통일의 당위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내면화하고 있지만 통일을 현실적인 문제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조사대상 연령층이 머지 않은 장래에 사회에 진출하여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를 주도해 나갈 연령층임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이 통일의 문제를 추상적·당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당면하게 될 현실적인 과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교육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청소년들은 현행 북한관련 교과내용에 많은 불만을 느끼고, 북한관련 지식·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학교수업보다는 주로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관련 교과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7할을 넘고, 북한관련 지식·정보의 입수원으로서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을 지적한 청소년이 학교수업의 응답률을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경향은 필연적인 추세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영리적이며 선정적인 보도가 만연하고 있는 대중매체의 속성상 청소년들이 텔레비전, 신문 등을 통해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해 대중매체의 북한관련 보도내용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정립해 갈 수 있도록 북한·통일문제와 관련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북한·통일관련 교육에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필

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급속한 정보화 추세와 더불어 인터넷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청소년들은 북한관련 지식·정보의 입수원으로서 학교수업보다도 인터넷이 더 유용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채팅, 메일 등)에 참여하고 싶다는 청소년이 과반수에 달한다. 인터넷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활용도와 관심을 감안하여 북한·통일관련 정보를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스페이스상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개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현재까지의 진척정도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북한의 실정을 감안하면 그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정보통신관련 기업 등의 협찬을 통해 우선 제한된 범위의 시범사업으로 북한의 학교에 인터넷 접속장비를 제공하고 남한의 자매학교와 인터넷을 통해 교류할 수 있게 한다면 북한·통일문제에 관한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시각과 인식에 있어서 청소년층 내부에도 성인사회 못지 않은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응답결과를 재구성하여 청소년들의 통일지향성(의식)을 측정한 결과, 성별·사회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여자보다는 남자, 중·하위계층 청소년보다는 상위계층 청소년의 통일지향의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통일지향의식이 높은 청소년들은 남북한간의 관계를 대립·갈등의 구도보다는 교류·협력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양 체제간의 사회·문화적 이질성도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층 내부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시각과 인식의 차이는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통일문제와 관련한 교과구성에 있어서 획일적인 내용보다는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특성과 차이가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4. 탈북청소년 심층면접 조사

본 연구에서는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 일반을 알아보기 위해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방법을 이용하였다. 면접은 총 3일에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각각 2명씩 한 조를 이루어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가. 피면접자들의 일반적 배경

(1) 연령

피면접자들의 연령은 16세부터 21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고등학교 이하 탈북 청소년들만을 섭외 하는데 문제가 있어 20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섭외 대상이 되었다. 6명(약칭으로 A, B, C, D, E 등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F와의 면접내용은 사정상 본문에서는 인용하지 않기로 한다)의 연령분포는 16세 1명, 19세 1명, 21세 4명으로 이루어졌다.

(2) 사회적 지위

6명의 피면접자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2명의 20세 미만 청소년들을 제외하고 4명 모두 현재 서울의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16세와 19세 청소년들은 현재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며 입시준비를 하고 있었다.

(3) 가족여부

6명의 청소년들 모두 탈북 할 때 가족과 동반하였으며, 현재 서울에서도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1명의 청소년을 제외하고 5명 모두 부모, 형제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4) 종교

북한 내에서는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탈북 과정을 통해 선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들 중 3명은 현재에도 개신교 교회에 다니며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3명은 종교를 가지지 않았다.

(5) 북한에서의 생활수준

면접 결과 사유재산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 북한사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암묵적으로 재산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6명의 피면접자들도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재산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들 중 2명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성분, 직업, 경제력 등)가 다소 좋은 편이었다고 판단되어졌으며, 4명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되었다.

나. 탈북 원인

6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탈북하게 된 연도는 대부분 99년도였고 이중한 명만 2001년도이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탈북 이유들 중 공통점은 북한에서의 삶을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다.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면접 내용을 볼 때 이와 같은 이유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다.

“근데 아빠, 엄마랑 생각이 있잖아요. 자식도 많지, 앞으로 번다해도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오길 결심하고 오늘 저녁에 가니까 다 준비해라 그래서 그 오전까지 공부하고 오후에 준비해서 무사히 이제 탈출했죠.”(A)

“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큰 계기점이 있어 가지고 탈북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예요. 못 살고 못 살고.... 굶고 굶고....이런게 다 지속되다 보니까 언젠가 모르게 난 북한이 싫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고 그 다음에

어딘가 모르게 이젠 다른 데로 나가야 되겠다 이게 자동적으로 들게 됐지 이게 변환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남한을 오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우선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했다가 중국에 갔다 남한 소통 알고 오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남한목표로 북한에서 남한방송을 들었으니까 그런걸 통해서...”(C)

“뭐 딱 특별히 계기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길이가 되게 길지요... 학생이 공부는 못하지요, 아무리 북한이 미래가 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앞날을 자기네 엄마를 보면서 지금도 이런데 나도 앞으로 저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D)

이들 세 청소년의 경우 탈북의 주된 원인은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생존해나갈 수 있는 사회적 여유가 없고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꿈을 가꾸어나갈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이 이들을 탈북 하게 자극한 주된 원인이었던 것이다. 한 편, 다음 두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소 정치적인 이유가 보다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저희는 아버지가 그쪽에서 군인이셨거든요. 군인으로 계시다가 아버지가 검찰수사 받게 되어서 아버지가 먼저 탈북하셨구요, ...북한은 그렇게 되면 가족들 탄압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탄압 때문에 탄압이 받기 싫어서 탈북했구요... 아버지 찾으려... 탈북했구요.”(E)

“저는 큰아버님들이 미국이랑 한국에 살고 계세요. 북한에서 성분이 나쁜 집안이니까”(B)

결국, 이들 두 청소년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사상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 계층에 포함되어짐으로 인해 앞으로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탈북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볼 때 오늘날의 북한 성인들 및 청소년들은 정치, 사회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그곳에서의 삶 자체에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해 있으며, 결국 목숨을 건 탈북이라고 하는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을 탈출해도 중국에서의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3국을 거쳐 한국에 도달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볼 때 이들의 탈북은 절박한 상황에서의 최후의 선택이 아니었는가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통일관련 의식

북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장애요인,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 남한에 대한 생각 및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정보 원천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통일에 대한 북한 청소년들의 관심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하며 이는 곧 민족을 해방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물론, 이와 같은 태도는 북한사회의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어버림으로 인해 북한 청소년들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어버린 원인에 기인하고 있지만, 탈북청소년들의 말을 빌리면 북한사회의 경제난과 생활고 등으로부터 하루 속히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면접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생시를 좌우하는... 북한 애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애들이 생각하기에요 굶어 죽으면서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서는 안된다는 거 우리도 알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그냥 가선 아니란건 우리가... 탈출방법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거죠 나름대로. 뭐 진짜 애들도 우리 군사비에서 몇 프로만 돌려줘도 이렇게 안산다더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통일되고 우리 군사비 안쓰면 그리고 뭐 남한이 우리보다 좀 잘사니까 우리 많이 봐주면 우린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다더라, 뭐 그렇게 말하거든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지요.”

더불어, 북한 청소년들은 통일은 남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올 때면 눈시울을 붉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북한사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 북한 청소년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남쪽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 내용을 보자.

“(통일이)안되고 있는 원인은 미국놈들 때문이다....그게 어... 물론 이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요, 북한 사람들 좀 순진한 사람들 농촌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에서 선전하는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미군놈들이 경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살고, 미군놈들이 남조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할 수 없고, 미군놈들의 조정을 받는 괴뢰당들 때문에 우리가 남조선하고 더 친해질 수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거죠.....(그렇지 않다는 것)그거를 알 방법이 없죠.....(그 사실을 아는 건)라디오를 남몰래 듣는 사람이라든가, 외부하고 접촉이 가능한 사람들밖에 없죠.“

북한사회의 정보가 아직까지도 철저히 통제되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북한 청소년들 대부분은 교육받는 그대로를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준 탈북 청소년들도 중국에 도착해서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를 듣고 또 한국사회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도 북한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폐쇄적 정보체계와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전쟁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흡수통일이 대부분이죠. 전쟁하자 전쟁. 그러니까 북한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그렇겠죠. 저도 생각하기를 평화통일이라는 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다....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청소년들도 그걸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나보죠.”

“전쟁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냥... 방향도 그렇고 아.. 전쟁... 전쟁

이 일어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지금도 막 굶어 죽고 막 그때 저 있을 때는 최악의 수준이었었는데... 막 하루에 몇 십 명씩 막 굶어 죽고... 그런 상황 그러면 오히려 전쟁하는 게 낫다. 사람들이 하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탈북에 성공한 청소년들이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외는 다른 방식이었다. 그들의 생각이 변화된 것이다. 6명의 생각들 중 공통적인 부분이며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김정일의 사망 또는 김정일 체제의 붕괴였다. 즉, 다른 어떠한 방법도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들이 김정일에 대해 가지는 분노에 가까운 부정적 감정은 매우 강한 듯 보였으며, 통일에 대한 의지 또한 매우 강하게 표현되었다.

한 편,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나 청소년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같은 민족이고 못살며, 불쌍하다고 하는 이미지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의 면접내용에서처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무엇인가 다르다고 하는, 즉 남한 사회가 신비롭다거나 잘산다고 하는 생각도 표현되지 못할 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한에 대한 이야기는) 그게 정치적인 문제니까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민감한 사항이고 애들도 그런 사회에서 자기가 말 조금만 잘못해도 일이 이상하게 꼬인다는 거 아니까 함부로 말 안하거든요. 함부로 말 안하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막 표현 안해요.....

(남한에 대한)정보 들을 길이 별로 없지요....

노래 같은 게 들어오는데 사실 그것도 그래요. 한국 노래가 많이 북한에서 유행한다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때까지 유행한다 그건 다 밀수거든요. 밀순데 애들이 진짜 어느 게 한국노래고 어느 게 중국 노래고 어느 게 연변노래고 어느 게 북한에서 만든 건지 몰라요. 물론 이는 애들은 알거든요. 물론 어떻게 남한노래다 하는걸 아는 애들은 알아요. 근데 개네가 이거 테이프를 복사해서 돌리는데 복사해서 돌

릴 때 이진 남한 노래다 하구선 그러면서 돌리는 애들은 ... 없거든요.

라디오는 워낙 나올 때부터 채널 고정시켜 딱 시켜노니까 못 듣는거구, 그리고 기술 있는 사람들은 채널 뜯어 가지구 듣긴 듣는데 그걸 이렇게 함부로 말 안하죠. 자기만 듣고,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머리가 휙 돌아가지고 탈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구 뭐 티비 같은 경우야 남한 데모 할 때... 데모하면 보여주고 (데모할 때 환경.. 사람들 옷 입은거라던가 이런거) 그런거 보며는 아이구 잘사네... 계속 그러니까 그런걸 눈여겨 보지 않는 애들도 있는데 눈여겨 보는 애들은 와 잘한다 모... 우리보다 낫다 일본만큼 잘산다더라 그런 소문이 돌기도 하구요.”

결국,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은 무엇인가 변화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폐쇄적 정보체계와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남한사회와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사상교육을 통해 알고 있는 정도를 크게 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다양한 소규모의 부정확한 정보이지만 그와 같은 단편적 정보들을 접하게 된 청소년이나 성인들 중에는 남한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면서 탈북을 꿈꾸거나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북한의 청소년문화

북한의 청소년문화에 대해서는 학교생활, 여가 및 일상생활, 청소년 문제 등과 같이 크게 네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 및 학교의 분위기, 교사와 청소년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여가 및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놀이형태, 가정생활, 친구관계, 종교활동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 편, 청소년 문제는 북한 사회에서 빈도나 심각성의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문제 행동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학교생활

북한사회에서의 학제는 1-4-6제로서 탈북청소년들이 설명한 학교생활은 마지막 단계인 6년에 해당하는 고등중학교의 경우였다.

북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 교육은 의무규정으로선 오전 시간은 8시부터 시작되고 12시까지 수업을 한 후 다시 각자 집으로 가서 점심식사를 한 후 1시부터 오후 수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후 2-3시간 동안 오후 수업이 진행되고 나면 방과후에는 다시 이미 구성되어 있는 각 조별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때의 활동은 농어촌지원이나 기타 작업에 동원되는 것이라고 한다.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조별로 할당된 일의 양이 마무리되어야 집에 귀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학교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작업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부족한 수업시간을 보충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북한 청소년들은 붉은청년 근위대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 훈련은 1주일로서 각종 군사훈련과 총기 조작 기술, 사격 등을 배우며 퇴소하는 날 사격시험을 보고 점수를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17세가 되면 모든 남학생들은 군 입대를 하게 되는 것과 관계되는 것 같다.

한 편, 북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은 대부분이 체제유지를 위한 정신교육이지만, 특히 수학 등 이과 계열과 관계되는 내용은 남한과 크게 상이하지 않게 배운다고 한다. 실제로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응답 내용에서처럼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 도착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 수학이 가장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제일 쉬운데 수학이에요. 수학은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치는데 100점 맞고..”

그러나, 역사와 사회 등과 같이 사상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배우는데 그나마 이 부분도 내용의 대부분은 김

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거이라고 한다. 특히,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탈북청소년들은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 전혀 배운바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남자청소년들은 모두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입대 기간은 13년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성분과 재산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좋아야 학교 성적도 좋고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다고 한다. 대학 입학은 “예비시험”에서 합격하고 다시 교육부가 정해주는 대학에 가서 다시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한국에서와 같이 모든 청소년들이 대학입시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여학생들이 대학준비를 보다 많이 하는데 요즘은 대학에 입학해서도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되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신 군에 입대하여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이 남자 청소년들은 17세부터 13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 평균 연령은 남자가 31세 이후이며 여성은 20대 중반 정도라고 한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학교붕괴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위기가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학급 규모나 분위기 등은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한 학급당 80명 정도로서 남녀 합반이라고 하며, 각 학급당 담임선생님 한 명과 학급 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강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에 제시되어있는 한 탈북청소년의 말처럼 교사의 권위는 교사의 낮은 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으며, 교사와 청소년들의 관계도 매우 자유로운 관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깐 지리적 여건이 많이 관계되는데요. 평안도 지역은 내륙지방이라 내륙은 외부하고 접촉이 좀 드물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고지식하고 옛날 방식에 많이 쫓겨 있거든요..... 청진이나 함경... 국경 주

변의 사람들은 많이 외국물 많이 먹었잖아요. 외국물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개방적이고 막 그… 평안도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그런 남녀관계도 되게 진전돼 있고, 선생님들하고 만나서도 같이 술 먹고…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함경도에서는… 함경도에서도 청진에서도 몇몇 어떤 학교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술도 먹고, 같이 뭐…

(수업시간에)자유롭다고 말하긴 좀 그렇구요 선생님들은 되게 통제하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이제 말을 안듣는거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옛날엔 권위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하면 사회적으로도 인정해 줬고, 사회적으로 그만큼 보상도 줬고, 그만큼 지위를 인정해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 하면 진짜 다 회피하거든요. 왜냐하면 모 국가에서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버는 것도 없고, 그냥 오직 모 선생님들이 먹고 살 길이 있다면 학생들한테 아부 해가지고 학부형들한테 조금씩 받는 것 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우습게 보이는 거지요. 모 선생이 내 집에서 갖다준 쌀 6kg가지고 사는데 애들이 그거를 그냥 모… ‘아, 우리선생님 힘들게 사시는구나’ 철든 그케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좀 싸가지 없는 애들은… ‘아이…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수업시간에도 막 니름대로 막… 선생님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되고… 그런 면모들이 많구요, 그러구 또… 좀 사고가 좀 진보적… 앞서 가시는 분들은 ‘아, 이제는 애들을 힘으로 통제하는게 아니다. 이렇게 해선 이제 애들은 말 안듣는다’ 이래가지구 그냥 애들하고 놀이주면서 통제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서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좀 자유로운 분위기라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측면을 볼 때, 통제하고자 하지만 통제가 어렵고, 또한 교사들 스스로도 직업의 가치를 느낄 수 없는 상황으로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은 한국에서의 현상과 그 원인이나 본질적 의미는 전혀 동일하지 않지만, 외형적 모습은 일련의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북한 청소년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전체가 교복을 착용하는데 북한에서도 일종의 ‘멋내기’로 함축될 수 있는 교복 고쳐 입기가 특히 남학

생들을 중심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교복 바지의 밑단을 줄여 디스코 바지처럼 입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치마 높이가 무릎 위로 올라가서는 안되며 고쳐 입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머리 스타일은 스포츠 머리로서 길게 기르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머리 모양내기’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2) 여가 및 일상생활

북한 청소년들의 통제적이고 또한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그들의 여가 및 일상생활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탈북청소년들의 면접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북한 청소년들의 여가는 여가라고 해설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

탈북청소년들이 이야기 한 북한청소년들의 여가는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집단적 형태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노래하고 음악을 듣는 것, 축구 등 운동하는 것, 그리고 다소 지위비행과 관계되어 지는 것으로서 술과 담배를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것 등이었다.

주로 듣는 음악은 북한의 것보다는 남한의 대중가요가 보다 많이 선호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노래는 사상적인 강조가 포함되어 있지만 남한의 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물론 대부분 그것이 남한의 노래인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 표현을 하지 않고 그저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 남한 음악의 유통은 중국과의 교역이나 기타 왕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도구인 카세트 등은 어느 정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라디오나 카세트 등도 채널이 고정되어 있어 남한의 음악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개인 지식을 이용하여 채널을 풀고 듣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TV도 있지만 가격이 고가이며 대부분이 흑백이고 또한 수동식 채널의 경우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단 리모콘을 사용하는 TV의 경우에는 채널 고정 어렵기 때문에 남한의 방송을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음악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은 사회 전체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기타를 통한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하모니카의 보급율이 높았는데 현재는 기타의 보급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들이 남한의 음악을 기타나 여타의 도구들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크게 연주하고 따라 부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은 나름대로의 여가활용 방안으로 기관원이나 주변인들 모르게 이와 같은 활동을 한다고 한다.

운동을 하는 경우 운동 도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갈밭에서 농구공으로 맨발 상태에서 축구경기를 한다고 한다. 이는 축구공이 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발 또한 그러한 사정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아예 신발을 벗고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화나 여행 등도 북한 사회에서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한 제한된 내용만 상영되기 때문에 북한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 흥미로운 여가의 대상은 아닌 듯 하였다.

한 편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생활은 전반적으로 북한 사회가 과도한 가부장적 사회이며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임으로 인해 다음의 면접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북한에서는 진짜 그 가부장제도가 좀 심각한 정돈데... 아버지가 말 하면 무조건... 근데 요즘에는 부랑아들이 하도 많으니까... 부랑아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제도가 그만큼 심한 만큼 애들도 또 그만큼 막... 뭐랄까... 질겨 지니까...요즘 부모 자식 지간에 갈등이 워낙 심해요.....다투고 싸우고 막... 뭐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버지가 하도 세시니까 아버지 앞에선 막 별별 기어다닙니다. 다른 가정들도...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래요. 아버지가 세고, 엄마는 집안에서 그냥 일만 하고 그러거든요. 자식들은 아버지 말이면 꿈쩍 못하고 그러는데... 일부 가정에서는 애들이 많이... 부모들과 부딪치죠.”

친구들과의 관계는 매우 관계의 친밀성이 높아 언제나 대부분 친구들과과의 집단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예를 들면 사탕 하나를 먹어도 입으로 친구들의 수만큼 쪼개어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이야기나 기타 사상적인 문제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암묵적으로 대화를 기피한다고 한다.

북한 사회에서의 종교활동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탈북청소년들 전체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북한에서의 목사, 승려 등과 같이 성직자들은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즉, 본연의 성직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종교 자체도 허용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탈북청소년들 중에는 탈북 과정을 통해 한국의 종교단체나 성직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현재 착실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3) 청소년 문제

북한 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를 볼 때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집단 폭력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청소년 여가 부분에서도 이미 서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북한 청소년 문화는 기본적으로 매우 강한 집단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불어, 북한 사회의 특성이 억압과 통제라고 하는 개념들로 설명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 문화 또한 이러한 억압성을 표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적이며 물리적인 방식이 일반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중에서도 집단폭력의 문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면접내용을 살펴보자.

“폭력은 좀 요즘 지방마다 차이가 많이 심한데 좀 지역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싸우면 장난 아니예요. ... 거의 200이 한꺼번에 확 붙었는데 거기서 옆에 두만강이 만났던 다리에서 싸움했거든요 막 돌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보니까 (뿔로) 내리쳐서 심했죠.”

“북한에서는 싸움도 조직 아닙니까.우리는 조직적으로 하게 되면 그제 엄청 혼났어요.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 싫어해요. 애들 모아 가지고 우리 조직적으로 김일성을 연구 하자 뭐 이렇게 하면 국가에 알리지도 않고 우리끼리 조직을 했잖아요? 그것도 욱먹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가 알기로는 한사람이 사상을 잘못 가지게 되면 그거는 적당히 제압할 수가 있는데 만약 조직적으로 얘기하다 조직적으로 사상을 잘못 가지면 그것은 건전치 못하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만약 조직적으로 하다 걸리면....”

“우리는 그냥 오로지 애들만 보면 우리 쪽 애들이 외지 애들만 무조건 잡아 팠어요. 누구든 잡아 패면 또 그 외지엔 나름대로 친척이 있잖아요. 개가 또 그 쪽 사람 데리고 와서 또 싸움 붙고 맨날 그냥 싸움질하고 학교에 가도 어지간한 말다툼가지고도 요즘은 신경이 너무 예민해 가지고 어지간한 말다툼 가지고도 싸움하면 책상 걸상 다 부러지고 이젠 우리 반 원래 책상 걸상이 새거였는데 그게 또 다 부러져가지고 선생님이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그거 다 고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졸업하기 전에 그거 다 고치고 막 그랬어요.”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 남자 청소년들에게 있어 폭력은 억압된 상황으로부터의 탈출구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타집단에 대해 물리적 공격을 시도하고 이와 같은 싸움을 통해 승자는 또 다른 쾌감과 성취감을 얻게 되는 등 일련의 왜곡된 폭력의식이 북한 청소년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

폭력 이외에도 중요한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흡연과 음주를 들 수 있다. 흡연과 음주는 북한 남자 청소년들에게는 폭력과 동일하게 일종의 사회적 탈출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면접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음주와 흡연은 청소년들에게는 그들만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며, 절대 체제 속에서 나름대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청소년 공간을 갖기 위한 도구로 보여진다.

“술이나 담배 같은 거는... 요새는 정말 진짜 장난도 아니예요. 저는 담배 2학년 때부터 피우다가 지금은 끊었는데, 중학교1,2학년 때 담배

피우는 애들 다반사구요, 그러구 또... 북한은 담배가....술과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면 술 먹잖아요. 모이면 술 먹고...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해요. 뭐하면 담배 피우고... 수업 끝나고 나와서 담배 피우는 애들도 있고 같이 어울려서 막 담배 없으니까 담배 살 돈도 없고 하니까 막 담배 한대 가지고 나눠 피우거든요. 그렇게 나눠 피면서 친해지고... 그러니까 담배 안 피면 진짜 왕따 되기 쉽죠.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나오고 그냥 짤 애들 다 나갔는데 몇 명만 교실에 남아 있으니까 왕따처럼 보이는 거죠. 주로 술 같은 문제도... 요즘에는 북한에서 술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데.....교칙상은 불법인데 화장실에 가면 담배꽂초 때문에 하수도가 막히고 진짜 학교에서도 골칫거리죠.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몽땅...담배 피우는 애들 몽땅 처벌할 수도 없는거고... 근데, 처음에는 학교측에서 통제를 심하게 해서 규찰대에 집어넣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통제가 잘 안되니까 규찰대 애들이 담배 피우는데... 같이 담배 피우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통제하다가 안되면은 또 못 그러고... 근데 요센 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담배 얻어 피우기 위해서 막 화장실에 잠복해 있다가 담배 피우는 애들 딱 잡아가지고 담배 뺏어가지고....

저희 반에선 두 명을 제외한 전부 다가 피웠어요. 출석인원에서 두 명을 제외한...

술도 거의 마셔요... 그런데 담배는 다 같이 나눠 피우고 그러는데 술만큼은 친한 몇몇 애들끼리 모여서 하고..."

이상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청소년들에게 있어 음주와 흡연의 문제는 기성세대까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가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북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폭력과 더불어 이들 문제 행동들이 일반화되어지고 있다는 점은 따라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의 문제들 이외에도 탈북청소년들이 이야기한 중요북한 청소년 문제는 여자 청소년과 관계되어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본다면 여성의 낮은 지위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문제로서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폭력이 심각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과 폭력이 남자 청소년 및 교사나 기타 성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변에서 그 심각성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 경우 하나의 범죄로서 공개 재판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지만, 범죄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더불어 현재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낙태를 금하고 있어 커다란 경제적 지출이 뒤따르거나 또는 미혼모로 전락할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저희에선 그런 건(원조교제) 못 봤는데 우리 학교에 남자 선생 하나가 내일 모레 결혼할 선생이 자기네 학급에 여자애들 들을 한 거의 여섯달 데리고 살았어요. 학교 경비실 때마다.... 선생이 개네 둘만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전날에 애들이 배 나온거예요. 둘다 임신한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 아버지가 군교육부에 교육부장 다음으로 썬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행히 제재는 하나도 안 받았고 그냥 시골 농장에 시골학교 애들 열 명 있는데 그런데로 선생이 그냥 전학 갔어요.....

애는 못 낳지요. 떼어 버려야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사람들 자체가 애들을 많이 안 낳아요. 왜냐하면 낳아 봤자 키우지 못하니까 버리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임신하는 데로 다 지우자 하는데 요즘 뭐 종자 마른다 해 가지고 김정일이 말하길 애들은 그거 절대 못하게 하라고. 이거 떼는 거 가뜩이나 종자가 계속 마르고 있는데 그럼 안되니까 그러가지고 거의 산부인과에 그제 없어졌어요. 지금 그거 불법으로 돈 내고 해야 되요.

원조교제 같은 건 없지요. 어른들이 해주는 거 없어요. 그냥 어른들이 강간하는 건 있지요. 애들을.

성범죄는 여기와 비교하면 0.1%? 근데 우리 동네 한사람이 미성년자를 강간했는데 자기 딸이었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 부인이 누워 있는 자리에 애가 누워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부인과 착각한 거예요. 애가 막 발악하며 소리쳤어요.....애가 임신한거예요.

그레가지고 재판하는데 사람들이 장난 아니었어요. 돌 던지고...”

결국,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는 매춘보다는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여자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이 북한 청소년 문제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의 평등성을 강조하지만, 여성의 현실적인 면을 살펴볼 때 그 평등성은 심각한 차별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 청소년들은 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불법적인 장사를 하기 위해 또는 가족 내에서의 심한 갈등 등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가출하여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또는 탈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80명 정원인 한 반의 경우 20명 정도가 장기 결석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탈북청소년은 이에 대해 들은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 해주었는데, 한 고등중학교 학생이 탈북해서 2년 동안 중국 생활을 하다 다시 검거되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는 이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었다는 것이다.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 때 교사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은 피해다니면서 결석과 가출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가출과 관계없이 학교 결석만을 하는 경우 먹은 것이 없어 신체적 허약상태가 됨에 따라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마. 남북한 동질성에 대한 의식

조사에 앞선 연구자의 가정은 탈북청소년들이 이미 북한사회와 남한사회 모두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남북 두 사회의 동질성이나 이질성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면접이 이루어지고 난 후 그 결과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로 집약되어졌다.

탈북청소년들은 말하길 북한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은 남한과의 동질성을 이야기 할 때 동일 민족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보다 구체화되어 있었는데, 즉, 한민족으로서 가지고 있는 민족성 중 ‘정’이나 ‘인간적인 것’ 등과 같은 특성을 두 사회의 동질

성으로 지적했다. 남한사회에서도 그러하듯이 북한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민족성은 강하게 잔존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차이, 문화적 차이, 기타 현실적 가치관의 차이 등은 매우 상이한 이질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특히,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련하여 북한 사회에서 보다 남한 사회가 전통문화를 보다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북한사회는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인하여 많은 전통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한 탈북자의 동생은 아직도 스파게티를 먹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그만큼 이들의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적 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남한사회가 그만큼 북한사회와의 이질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이들이 현재 남한 사회에서 적응해 가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로 경쟁관계를 예로 들었는데, 북한사회에서도 경쟁은 있지만 남한사회에서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사귀고, 경쟁이라는 것이 생존법칙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 탈북자는 다음 내용에서처럼 이곳에 온 뒤 친구를 사귀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경쟁관계를 배웠다고 한다.

“이기적인건 나도 갖고 있고 북한애들도 갖고 있는 건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사회에서 개인주의적이지 않으면 모 북한사회처럼 그러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아요. 애들이 그 다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뭐... 우리 학교애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경쟁에 익숙해진 그런 애들인데 깨네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아... 깨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라도 나도 깨네하고 경쟁상대가 되어 줘야 하는구나 그리고 깨네들 이기주의에서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상대가 돼 줘야 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의 법칙이 아닐까 애들하고의 관계가... 친구로 될 수도 있겠지만 친구 되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해서... 물론 북한도 그런 건 있지요 그런건 있는데... 딱 내 이익을 위해서만 친구를 사귀는다고 그렇게는... 뭐 여기서도 그렇게는 아니지만... (북한)그쪽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뿌리주의 같은 게 많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경쟁이라고 하기엔 좀 다소 약하고, 뿌리쪽이 오히려 강한거죠“

결국,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북한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북한간 동질성과 이질성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 이질성은 분단 역사만큼 상이해진 양 체제간의 문화와 삶의 방식, 경제 수준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와 기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간격이 넓어졌지만 아직도 한민족의 고유 정서에는 양 체제간 동질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 남북한 청소년 의식 비교 및 시사점

가.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 비교

남북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대한 이상에서의 조사결과들을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는 남북 청소년들의 의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남한 청소년들에 대한 의식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동질성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남북한 청소년의 동질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청소년 문화를 중심으로 동질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며, 남한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비교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 ‘통일의 당위성’, ‘남북한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등에 있어서의 동질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소년 문화

남북한 청소년 문화의 동질성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학교생활, 여가 및 일상생활, 청소년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학교생활에 있어 찾아볼 수 있는 남북한 청소년 문화의 동질성은 교과 과정상 수학이나 기타 과학과 관계된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

를 들면 탈북청소년들의 이야기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학은 그들이 남한에 와서 공부하는 경우 가장 무리 없이 오히려 쉽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북한에서 수학은 중요한 기초과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학 과목에 있어 용어상 차이점을 제외하면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수업이 여타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보충수업을 하는 부분도 형식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부분인 것 같다. 또한 학교 교실을 통해 점차 무너져 가는 교사의 권위나 위상도 현재의 남북한을 비교해보았을 때 동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원인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나타나는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한 측면이 보여진다.

한편, 청소년 문제행동의 측면에 있어서도 남북한 청소년 행동의 공통점이 확인되어진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오늘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도 청소년 흡연은 지위비행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그 증가와 확산 정도가 급속한 이유로 그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남한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음주 또한 양 체제 모두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규제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라는 것도 예로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그 정도나 외형적 특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 폭력이나 가출 등도 남북한 사회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들 중 하나이다.

여가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악기(기타)나 카세트 등을 들고 음악을 즐기고자 하는 것, 즉 청소년 여가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음악과 스포츠(축구, 당구 등) 등이 주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등은 매우 유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모든 부분을 포괄해 볼 때 남북한 청소년 문화간 공통점 또는 동질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남북한 동질성 증진을 위해, 그리고 나아가 남북 통일의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

남북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정도는 남한과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간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북한 청소년들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현재의 경제난과 같은 어려움의 원인이 남북분단에 있다고 봄으로써 분단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남한 청소년들 역시 조사결과를 보면 남북 분단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48.1%에 달하는 등 분단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들의 경우 탈북청소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남북 분단상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정도가 남한의 정도보다 매우 높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등 인식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다)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남북 청소년들간 태도는 매우 유사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한 청소년들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81.8%가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와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에 응답하고 있으며, 북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고 또한 지금까지 교육받아왔던 교육내용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어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체제 청소년들 모두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남북한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

남북한 동질성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 남북 청소년 모두 가장 중요한 과제로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지적하고 있는 등 의식의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남한 청소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28.7%가 이 응답항목에 응답하고 있으며, 북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접에 응한 탈북청소년들 중 대다수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이와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다소의 상이함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남한 청소년들은 다른 과제들, 예를 들면 ‘북한사회의 개혁, 개방(25.7%)’, ‘남한과의 교류, 협력 확대(25.4%)’ 등에도 중요성을 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은 대부분이 김정일 체제의 붕괴에 응답함으로써 그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이질성

이질성 부분 역시 앞선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양 체제 청소년 문화 중 이질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 ‘통일의 장애요인’, ‘통일을 위한 과제’, ‘전통적인 규범이나 관습의 사회적 영향력’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소년 문화

앞서 살펴본 남북 청소년 문화의 여러 동질적인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남북 청소년문화는 그동안의 분단역사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이질적인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대표적인 부분으로서 학교생활에서의 교과내용상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남한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다양한 과목에 대한 경쟁위주의 교육을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해 받고 있는 데 반해, 북한 청소년들은 계층 성분이나 가족의 사회적 위치 등에 의해 이미 어느 정도 상급학교(대학)로의 진학 가능성이 결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한국에서와 같은 경쟁적 모습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 내용도 인문계통에서는 역사와 사회, 도덕 등의 과목이 없고 대신 김일성 사상을 중심으로 한 교육만이 있을 뿐이라는 점도 상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방과 후 집단적으로 의무적인 차원에서 놓여준 작업 지원을 나가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학업이라는 것은 작업을 위한 부수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상이하다고 하겠다.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남한 사회에서 왕따와 같은 이지메식 폭력이 일반적인데 반해 북한에서는 집단 패싸움과 같은 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상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는 남녀 합반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이성교제가 활발하지 않는데 반해 남한에서는 어느 경우이든 청소년들 사이에 남녀 이성교제가 보다 보편적이고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도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남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원조교제의 경우 그 원인이 여자 청소년들의 경제적 필요성에 집중되어 있는 데 반해, 북한사회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문제점이 있음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대신 여성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성폭력이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호나 뒷처리도 어렵다는 점 등이 전혀 상이한 이질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의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두 문화간의 상이함은 더욱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남한 청소년들의 여가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북한 청소년들의 여가는 아예 그 개념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서 따라서 여가의 수준이 매우 열악하며, 그 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력이나 음주, 흡연 등과 같은 지위비행적 차원을 통해 여가를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노래방, pc방, 영화관 등을 이용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북한에서는 한 탈북청소년의 말처럼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의 구성이 체제 자체의 전복이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청소년 문화가 집단적이라고는 하지만 남한에서와 같이 동호회 등의 성격을 지니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결국 그들의 집단성이 여가의 형태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나)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

통일에 대한 당위성에서 보여주었던 동질적 태도와는 달리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다소 이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한 청소년들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가 31.0%, 그저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49.8%, 그리고 관심이 없다에 응답한 경우가 19.2%의 수치를 보였다. 이를 확대 해석한다면 70%이상의 청소년들이 남북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매우 적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면접결과 피면접자 전체가 통일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이는 곧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밀접히 연계되어졌다. 북한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관심 정도가 상호 일치되는 데 반해 남한 청소년들은 두 항목간 태도의 상이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이함은 북한 청소년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진정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대다수의 남한 청소년들은 교과서적 통일 희망과 현실적 관심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통일의 장애요인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도 남북 청소년들의 태도간에는 다소의 이질성이 관찰되어진다. 여러 응답항목들 중 남한 청소년들은 '북한이 공산주의체제 고수'가 통일을 위해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 '남북한의 이념대립' 등을 그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반면, 북한 청소년들은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미군 주둔'과 남한의 정부를 지목하고 있는 등 양 체제 청소년들간의 관점에 있어 커다란 이질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경우 정보의 차단과 사상교육의 강화 등으로 이루어진 왜곡된 관점 주입에 의해 그와 같은 태도가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라) 통일을 위한 과제

앞서 살펴보았던 남북한 동질성 증진을 위한 과제에서와는 달리 통일을 위한 과제에서는 남북한 청소년간 이질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한 청소년들은 통일을 위해 중요시해야 할 과제로 ‘남북한간 상호 이해 및 신뢰구축’,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 ‘서신왕래 및 이산가족 등의 상호 방문’ 등에 응답했지만, 북한 청소년들은 동질성 증진 과제에서와 동일하게 무엇보다도 김정일 체제의 붕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볼 수 있는 햇빛 정책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서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마) 전통적인 규범이나 관습의 사회적 영향력

면접 대상 탈북 청소년들은 대부분 남한 사회가 한국적 전통을 더 잘 보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사회는 김일성 유일체제로서 전통이나 역사에 대한 교육이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남한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 편 남한 청소년들은 권위주의, 가부장주의, 남존여비사상, 상부상조의 관습, 부모에 대한 효도 관념, 조상숭배 사상, 노인공경 의식 등 비교적 전통적인 것에 가깝다고 판단되어지는 가치관들이 북한 사회에서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등 북한 사회를 더욱 전통적인 사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북한 청소년 행동특성에 대한 상호 의식비교

남한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청소년들의 행동특성은 대부분 ‘타율적이다’, ‘집단주의적이다’, ‘몰개성적이다’, ‘폐쇄적이다’, ‘엄격하다’, ‘협동적이다’, ‘성실하다’, ‘근면하다’, ‘비사교적이다’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들은 면접 조사에서 실시한 이미지 조사결과 자신들에 대한

이미지로 ‘자율적이다’, ‘집단주의적이다’, ‘몰개성적이다’, ‘폐쇄적이다’, ‘협동적이다’, ‘엄격하다’, ‘불성실하다’, ‘게으르다’, ‘비사교적이다’ 등에 표시함으로써 남한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북한 청소년들의 행동특성에 대한 그것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율적이다’, ‘불성실하다’, ‘게으르다’ 등의 항목은 남한 청소년들이 바라 본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서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 편, 북한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에게 ‘타율적이다’, ‘경쟁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개성적이다’, ‘개방적이다’, ‘자유롭다’, ‘성실하다’, ‘근면하다’, ‘사교적이다’ 등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성실하다’ 와 ‘근면하다’라고 하는 항목들은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 청소년들에게 부여한 이미지 군으로서 상호 서로를 성실하고 근면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 시사점

이상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남북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통일의 당위성이나 분단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질적 태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분단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따라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통일의 관심정도는 남한 청소년들이 낮는데 반해 북한 청소년들은 높았으며, 통일의 장애요인이나 통일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도 상호 이질적 태도를 보였고, 더욱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은 양 체제 청소년들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부각은 남북한 동질성과 이질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일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연구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째, 그 동안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던 남북 청소년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과 방향성이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 째, 동질성 증진과제와 통일을 위한 과제에 있어 남북 청소년들, 특히 남한 청소년들이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곧 북한 청소년들이 통일을 희망하는 정도 보다 남한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정도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결국 전격적인 통일에 앞서 무엇보다도 양 체제간 동질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 째, 통일이나 동질성 증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김정일 체제의 붕괴가 중요한 변수임을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관련 정책의 구성에 있어 이와 같은 방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넷 째, 전통에 대한 관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양 체제 청소년들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청소년 또는 문화 관련 교류에 있어 서로의 일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섯 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청소년들의 말처럼 청소년 세대는 서로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기성세대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상호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온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한 청소년도 벌써 한국 청소년들과 어울리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양 체제간의 구조적인 격차로 인하여 많은 이질성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이질성들은 매우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동질성 회복의 가능성이 보다 높은 청소년들의 가치가 인정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몇 가지 중요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정책이 구성되어진다면 양 체제간의 청소년 문화 동질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곧 올바른 방향성을 지니는 통일로의 걸음을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IV.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방안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우리 청소년 대상의 의식조사 결과와 탈북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에 기초하여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을 제시한다. 3장의 논의 결과 남북한의 청소년간에는 동질적 요인보다 이질적 요인이 보다 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석에 따라서는 한민족공동체 형성이 전혀 불가능한 과제이거나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어느 한쪽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른쪽 사회의 가치나 규범 등에 철저히 동화되지 않는 한 이질성 회복이나 동질성 형성은 불가능하다는 가정도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남북한 두 사회에 존재하고 있거나 형성되어 있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여, 새로운 가치체계나 목표를 창출하는 동질성 증진 방안과 아울러,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전환과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방안을 제시한다.

1. 전제조건과 기본방향

남북의 통합이 우리가 추구할 공동체라고 할 때, 거기에는 그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할 공동의 가치와 공동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남북한 주민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상이한 이념과 가치체계 속에서 살아온 청소년들이 그들의 통합을 또는 동질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음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와 유사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쉽게 이끌리듯이, 남북한 청소년들의 통합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다양한 상징, 공동의 이념,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통합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촉진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의 가치를 이끌어 내는 일은 남북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우선은 체제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가치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찾는 일은 먼저 사회문화적 접근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정치적인 부분은 걸림돌을 제거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생활 속에서, 전통의 문화 속에서 추출하여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회문화적 접근에서는 이러한 목적과 이념 설정이 지나치게 표면화되는 것은 자칫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추구할 공동의 가치 등은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한 이념과 목표로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 존중’, ‘인권 중시’, ‘집단과 개인 가치의 중시’, ‘가정의 소중함’, ‘우애’ 등과 같은 내용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설정은 특히, 북한 청소년들의 통합을 유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일 것이다. 남한 사회의 청소년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청소년들은 훨씬 더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⁰⁾.

또한, 우리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무관심, 부정적 인식, 그리고 대북 우월 의식과 배타적 의식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특히, 청소년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주역이라는 점에서 이런 의식의 증대는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각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2000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 및 북한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인지도’ 중에서 ‘잘 모르고 있다’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83.8%에 이르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우리 청소년 대상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보다는 TV, 신문, 인터넷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통일·북한 관련 정보를

30)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 구조는 김일성 신격화, 이상화, 호전성, 타율성, 획일성, 폐쇄성, 조직 생활과 비판 의식, 노력 동원 당연성, 단순한 욕망, 자기 운명에 대한 고정 관념, 자유 인권에 대한 무지, 현대 문명에 대한 무지, 전통 문화에 대한 무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중남, “북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본 학생들의 의식 구조”, 「중등교원 통일 교육 직무 연수」, 2000.

31) 함병수·김은배 외,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0), 56-58쪽.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은 체계적인 교육·학습에 의한 지식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선입견을 비롯한 무작위적 주변 정보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의 부정적 통일 의식이나 북한관이 체계적인 제 사회의 노력에 의하여 충분히 교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부정적 의식, 대북 우월 의식과 배타성은 기존의 통일교육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는 또 다른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무관심은 통일 문제를 자신과 무관한 ‘남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데 근본 뿌리가 있다. 전교조 설문결과에 의하면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으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은 44%에 머물렀고, ‘학교 통일교육에 흥미와 관심을 느낀다’는 학생은 30%에 머물렀다. 이는 그간의 통일과 관련된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통일 문제가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감각에 맞는 교육방법을 갖고 있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관심의 극복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간의 체제,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한 거대담론 중심의 통일과 관련된 접근 방법이 ‘분단과 우리의 삶’의 상호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삶과 관련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나 성인 중심으로 편중되었던 통일과 관련된 노력들은 청소년들에게 통일 문제는 ‘어렵고’, ‘학식 있는 어른들의 일’이라는 잠재적 의식을 형성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평화공존 단계를 지향하는 현 통일과 관련된 교육이나 접근방법은 이를 탈피하여 ‘분단의 피해와 폐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분단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어떤 폐해를 미쳐왔으며, 우리의 미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의

상황을 들어 구체적으로 교육해 나가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지식 중심의 교육 방법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영상 세대이며 주체성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직접 보고 참여하게 만들어 가는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다. 통일교육 또한 영상 보기, 조사 탐방하기, 실천 활동 등 체험 학습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지식 교육도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만들어 가는 접근이 요구된다. 놀이, 그림 그리기, 소셜 쓰기, 조사 보고서 쓰기, 정보 탐색하기 등등 청소년들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으로의 접근이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자주적 판단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통일의식을 형성하는 힘이 될 것이다.

②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식은 주로 통일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사회혼란에 대한 우려에서 ‘통일이 손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 받고 있는 손해가 무엇이며 얼마나 큰지를 적시하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 정착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부정적 통일의식의 판단 근거가 되고 있는 통일 비용,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도 과학적 해명이 필요하다. 통일 비용 연구의 한계와 오류, 분단 비용의 규모와 분단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족 미래의 삶과 관련하여 분단 극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역사적 안목을 심어주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현재적 시야’에서의 이익 문제에 갇혀 사고하는 것과는 관련되므로 21세기 민족의 삶에 분단의 극복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깨닫고, 개인의 삶과 민족의 삶의 연관성을 깨닫게 해주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이란 역사적 안목에서 통일 문제를 바라볼 때, 부정적 통일의식은 점차 극복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③ 청소년들의 대북 우월 의식 및 배타적 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의 대북 우월 의식은 북한 주민에 대한 폄하 의식이나 차별적 태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이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이미 중국 연변 조선족 동포와의 관계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을 함께 통일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주체로 인정하고, 북한 동포를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다른 사회와 타인의 ‘다름’을 수용하면서도 그를 존중하는 생활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접근방법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바탕 위에서 ‘함께 살아야 할’ 동포인 북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청소년들 역시 기성세대 못지 않게 북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 이런 편견은 우월 의식과 배타성의 기초가 되고 있다. 때문에 남북 청소년의 동질성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편견을 불식하기 위한 북한 이해 노력이 필수적이다. 편견을 벗는 북의 이해를 위해서는 북의 부정적 측면만을 교육하거나 홍보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긍정적 측면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북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눈으로 보게 하는 연습을 하게 해야 한다.

흔히 동질성 증진을 위해서는 ‘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들 강조한다. 하지만, 북한 이해교육이 동질성을 높여주고, 화해·협력의 필요성을 일깨워줄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서강대 신호숙은 북한 이해교육을 위하여 남북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북한 김일성의 죽음’이라는 비디오를 보여주었더니, 청소년들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이비 종교 집단을 보는 것 같았다”, “남한 군인이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 귀대하고 있다는 내용은 나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을 쓴웃음 짓게 하였다”는 감상문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영화를 보여주었을 때, “우리 나라의 70년대 영화를 보는 듯한 유치함이 영화 곳곳에 드러나 있고, 흥행과는 거리가 먼 군대 시절에 본 국방영화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감상문도 소개하고 있다³²⁾. 이것은 북한 이해교육이 ‘동질성’의 확대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그것은 북한 이해교육이 북을 함께 상생해야 할 화해·협력의 상대로 대하는 자세에서 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 이해교육이 동질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 그리고 통일이 우리 자신의 이익이며 민족의 생존 조건을 마련하는 길이라는 인식 하에 이것을 잘하기 위해 북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동질성 증진을 위한 방향성은 우선 ‘북한 이해교육’보다는 ‘남한의 현실에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이 왜 절실한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화해·협력할 상대’로서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남북한 청소년의 동질성 증진 방안

분단이 반세기를 넘어서면서 남북한의 이질성은 그 정도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이념에서부터 제도, 언어, 사상, 심지어 생활양식까지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후 2세대가 바뀌면서 그 차이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해방과 동시에 서로 다른 체제에서의 삶은 우리의 의식 구조까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새로운 남북의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통합을 모색할 수도 있겠지만, 동질성을 찾아서 모아보고 그것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더 의미 있는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동질성 증진을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 교류도 중요하지만, 이념적·정치적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문화적인 접근이 더욱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32) 신효숙, “북한 이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세미나 발표 원고, 2001, 4-7쪽.

가. 교류·협력 참가 활성화 및 관련제도의 개선

현재 정치·경제적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³³⁾. 우리 나라의 남북 교류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1990. 8.1 제정 공포)”에 의해서 추진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와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1992)가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98년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제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³⁴⁾. 청소년 분야는 이러한 교류 흐름에서도 여전히 미미한 상태 하에 놓여 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 청소년들을 상호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란트 총리 이후 콜 총리 시절까지 지속적인 동방 정책으로 청소년들의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수학 여행을 동독으로 보냄으로써 오는 청소년들과 가는 청소년들 모두에게 서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었다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정치적 통합을 이룩한 후에도 주민들 간의 이질화로 내적 갈등을 겪고 있고³⁶⁾ 그것이 1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의 통일 주역인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게 하여 의식과 문화적 차원에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대학생들의 만남의 장(場)이 있었던 경우를 보면, 상호 접촉을 통해서 그들은 처음의 어색함을 없애고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하게 된다. 현재 일부 대학들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으로 상호간의 교류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다. 비합법적인 것들은 합법화하고 그들의 교류를 확대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법제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의 ‘금강산

33) 통일부, 「사회문화 분야 남북교류 실무 안내」, 2001.

34) 통일부, 위의 책, 2001.

35) 게하르트 미켈스, “한·독 통일교육 관련 금강산 호텔 선상 세미나 연설에서”, 2000. 11. 3.

36) 김은배, 「NGOs 역할 강화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수학 여행', '백두산 기행' 등이 장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 제도의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성을 배제하면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 부문의 교류이다.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상호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는 단초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실천에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를 벗어나 우리가 좀 더 진전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교류 방법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청소년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많은 장애를 제거하여야 한다. 교류관련 신청서 서식이나 양식,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성인들과 달리 간단한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교류활성화 촉진 특례법(가칭)”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제안한다. 여기에는 인솔자의 책임 하에 방북 또는 방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자매 결연을 통한 상호 방문, 홈스테이 제도의 활용, 육로를 통한 수학 여행 및 졸업 여행, 각 종 학술 탐사 활동 등이 쉽게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³⁷⁾.

나. 청소년 참여기제 마련

단순한 교류·협력 단계를 벗어나 상호 평화 정착의 단계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북한 돕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 증진은 물론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돕기 운동으로는 의약품 보내기, 식량 지원, 의류 보내기, 핵 시설 기술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차원에서는 ‘북한 학생 돕기 동전 모으기’, ‘1인

37) 90년 이후 남북 청소년들의 상호 교류내용을 보면, 제6회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단일팀구성(91. 2), 대학생 대표 최초 북한 주민 접촉 승인(93. 4), 리틀엔젤스예술단 평양 공연(98. 5), 북한 평양 학생 소년예술단 서울공연(2000. 5) 등이 있다.

통일 통장 갖기'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고, 유니세프(국제 아동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는 방법 등으로 북한 돕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소극적 방법을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물론,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참여의 폭은 훨씬 넓어질 수도 있으나, 직접 참여에는 여전히 많은 제한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각종 국제 평화 단체 등을 통하여 제한 없이 참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당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돕기 운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거나, 해당 청소년들이 희망할 경우에 북한 관련 직종에서 우선적으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수용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각 종의 봉사 활동을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북한에 의료 봉사활동을 가는 경우, 농업 생산 기술이나 서비스 정신의 전파 등)의 모색과 북한 돕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참여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청소년 문화운동 전개

청소년들이 동질성을 증진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하여 설득력 있게 접근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³⁸⁾, 심리적·정서적인 동질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청소년중심의 문화운동을 들 수 있다. 통일 관련 각종 캠페인이나 통일 관련 백일장, 포어포스터 대회 등과 자전거 달리기 대회 등을 통하여 이해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활동이 사업과 같은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노력이 동질성 증진 방안으로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38) 박효중, "통일 교육 이론적 기초로서의 합리적 선택이론", 「통일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새로운 통일교육 방법모색」(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1) 남북한 문학 읽기 동호회

북한에도 시, 소설 등의 책읽기를 좋아하는 ‘독서광’들이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하루에 두 시간 이상, 1년에 1만 쪽 읽기’ 운동을 벌이면서 독후감 발표회, 독보회 등을 장려하고 있어서 남북 상호간에 좋은 책읽기 운동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 운동이라고 하겠다. 아직, 북한은 혁명 소설 등이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기는 하지만, 남대현의 “청춘 송가”는 남북한 공히 널리 읽혀진 애정 소설이다. 추리 소설이나 외국 번역 소설 중에도 “돈키호테”, “테스”, “셜록 홈즈 명탐정” 등 그 종류는 상당 수³⁹⁾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소설을 통하여 공감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북한의 주민 및 청소년들의 생활을 엿 볼 수 있는 ‘문학 소설’ 등을 통하여 북한 생활을 이해할 수도 있다. 남한보다는 북한의 이해를 위해 좋은 청소년 활동이라고 판단된다.

(2) 남북한의 좋아하는 가요 부르기 동호회

우리 민족은 남북한 구별 없이 공통적으로 노래 부르기를 좋아 한다. 차이라고 하면, 남한이 상업성 짙은 음악과 노래가 주를 이루었다면, 북한은 노동력과 혁명성을 부추기는 노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⁴⁰⁾ 그러나,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호 유행하는 노래들을 살펴 보면, 남한과 북한의 정서적 동질성을 높이는 데 좋은 방안임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북한 가요는 ‘반갑습니다’, ‘회파람’, ‘도시처녀 시집와요’, ‘사랑의 미소’, ‘친근한 이름’, ‘녀성은 꽃이라네’ 등이 있고, 남한 노래가 북한에 알려진 것으로는 ‘사랑의 미로’,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39) 서현미, “북한의 베스트 셀러를 찾아”, 「통일한국」, 2001. 9월호.

40) 북한 가요는 ‘무게 있는 가요’, ‘생활 가요’로 구분되고, 생활 가요는 일상 생활 속의 감정을 다룬 노래로 우리의 노래와 연결성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들어 보천보 전자악단의 등장으로 북한 가요가 많이 밝아졌다고 한다. 서현미, “남에서 부르는 북한 가요, 북에서 부르는 남한 가요”, 「통일한국」, 2001. 7월호.

‘독도는 우리 땅’, ‘돌아와요 부산항’, ‘허공’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남북이 좋아하는 노래가 생각 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청소년들이 가곡이나 동요를 부르는 것보다는 가요를 더 많이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확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상호간에 정서적 동질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한 영화 동호회의 결성

청소년들의 정서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화해 분위기에 따라 남북간 영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아직은 북한의 영화가 지나친 사상성으로 인해서 남측의 관심을 끌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리랑’과 같은 영화를 남북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은 영화 교류의 새장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영화 제작을 통하여 청소년 의식의 동질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영화보기로는 분열된 하나가 다시 하나가 되는 이데올로기가 내포된 것으로 평가되고⁴¹⁾ 있는 ‘쉬리’ 같은 영화를 추천할 수 있다. 최근, 통일부와 한국독립영화제작협회, 참교육 영상 집단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주제로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남북이 공유한다면, 청소년들의 참여와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통일 캠프 개최

사람들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는 함께 생활하게 하는 방법 이상 좋은 것이 없다. 이미 ‘통일 캠프’를 차이와 차별의 주제로 열어본 결과에 의하면, 그 결과가 주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 행사를 마친

41) 최영훈, “쉬리와 러브오브시베리아”, 통신원리포트, 「통일 한국」, 2001. 2월호.

후에 통일 관심도가 52%에서 75%로 높아 졌다. 동시에 북한 동포에 대한 편견이 14%로 감소하는 등 청소년들의 의식 변화에 주목할 만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났다⁴²⁾. 다만,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동질성 증진을 위한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연합 및 평화 공존의 단계에서 “평화·통일 캠프”는 남북이 상호의 프로그램을 합의하여 작성하고,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라. 통일관련 관심 제고 방안 강구

평화 공존의 단계에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서 청소년들을 N세대, 영상 세대라고 불리어 진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북한 청소년들도 ‘신세대’가 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한에 ‘오렌지족’이 있다면, 북한은 창광거리의 ‘놀이새’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혁명기의 고난을 모르는 신세대로 혁명성이 높지 않다고 한다⁴³⁾.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볼 때, 남북의 청소년들을 연결하는 것은 신세대 문화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짙은 혁명성이나 이데올로기보다는 즉석에서 보고 듣는 것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매체나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붙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정보나 의사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급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보화의 이기를 이용하여 남북 청소년들 상호간에 통일 관련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북한에서도 현재 인터넷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

42) 통일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99 겨레 사랑 나라사랑 청소년 통일 캠프 활동보고서」, 1999.

43) 통일부, “남북한 신세대들의 공동 분모 찾기”, 「통일한국」, 2001년 11월호. 북한 신세대들은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자유주의 사상과 외제 선호 사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현재 북한의 4대 웹사이트가 주로 일본이나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⁴⁴⁾, 북한이 현재의 추세대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면, 홈페이지를 통한 동호회 활동은 대단히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호 의사 소통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공유감정을 잡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통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중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대중 매체는 동일한 내용을 전파하는 데 있어 그 어느 것보다 탁월하다. ‘북한 리포트’ 등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을 이해해 가는 과정을 보면 그 효과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남북 상호간의 동질성 증진 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 중 하나가 체육 활동을 통한 상호 이해의 증진이다. 각종 체육 행사를 학교 단위로 지역 단위로 연계하여 치루는 것은 청소년들의 동질성 증진에 매우 효과가 높은 수단이 될 것이다. 2002년도 월드컵 개최 시에는 남북 분산 개최가 실패하였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과 같은 국제 체육행사를 분산 개최하면서 응원단을 혼성 편성하는 것 등은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한층 높일 것이다.

마. 통일교육과 교과내용의 개선

(1) 학교 중심의 통일교육 개선

통일문제 접근은 각급 학교 중심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와 가정, 사회 기관과 연계된 통일 교육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또 다른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을 부모와 함께 묶어서 교육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나이가 어릴수록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가정 및 사회에서 배우는 것에 괴리를 느낄 때,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44) 북한의 4대 웹사이트는 조선중앙통신(www.kcna.co.jp), 조선신보(www.korea-np.co.jp), 조선인포뱅크(www.dprkorea.com), 평양타임즈(times.dprkorea.com)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회 기관과 연계된 통일 교육에서는 국가나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자주 바뀜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적 일관성의 상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정부보다는 시민단체가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비정치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시민 정치교육센터인 ‘볼크스 호크 슐레’(Volks Hoch Schule)의 사례를 보면, 주민생활 영역 내에서의 사회교육 기관의 운영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시민문화회관’이 건립되어 있다. 이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교의 통일교육이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지라도,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각종 사업적 성격의 행사를 실시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캠페인이나 행사성의 통일교육은 시민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의 통일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고, 남북한의 차이를 강조하는 차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각종 시설과 인원, 장비가 활용되는 통일교육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통일교육 내용의 개선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방식과 내용도 나름대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 지금의 통일교육도 단순한 체제 우위나 이념적 비교, 정책적 홍보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기초로 하는 민족통합교육으로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일부에서 그 단초를 보이고 있을 뿐, 아직은 북한에 대한 이해 교육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⁵⁾.

평화공존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에 우리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방향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교육 내용으로 공동체 교육, 평화 교육, 다문화 교육, 시민 교육 등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45) 황인표, “협동적 구성주의에 의한 학교 통일 교육”, 「통일교육강의 교재」 (서울: 통일교육원, 2001).

(가) 공동체 교육

공동체주의는 어느 정도 공유된 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통일에 대한 열망과 걱정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민족공동체 복원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을 형제애와 동포애로서 포용할 것을 강조하고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⁴⁶⁾. 우리의 통일교육이 하나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남북한 동포가 함께 소속될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하나의 도덕적 선(善)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선에 대한 공유된 전망과 이해가 이루어 질 때, 통일교육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⁴⁷⁾.

(나) 시민 교육

서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교육이나 남북 통합을 위한 인권 교육이 통일교육에 대한 시민 교육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에 필요한 인간을 육성하려면 양자가 자율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시민교육 내용을 배움으로써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평등지향적 사고를 하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청소년들은 북한주민을 같은 동포로 보기보다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국민적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건전한 시민 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통일교육에 원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 환경의 조성은 궁극적인 통일의 주체인 시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46) 박효중, “통일 교육의 이론적 기초로서 합리적 선택이론”, 「통일 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새로운 통일교육 방법 모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1-14.

47) 추병완, “통일교육의 이론적 기초로서 공동체 교육”, 「통일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새로운 통일교육 방법모색」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다)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청소년들의 성, 사회 계급, 인종과 민족 및 문화적 특징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교육적 입장이다⁴⁸⁾. 그리고 체계와 통합 원리를 달리하는 문화가 갖는 행동 준칙에 대한 예측의 유효성과 수용 범위의 범위·수준을 심화, 혹은 고양시키고 반응 기능을 세련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³⁾.

다문화 교육은 몇 가지 상이하고도 중요한 차원(dimensions)을 지닌 광범위한 개념인데, 그 요소는 내용 통합(content integration), 지식 구성 과정(knowledge construction process), 편견 감소(prejudice reduction), 평등 교육(an equity pedagogy) 등 여러 차원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적 논의가 역시 남북 통합의 방법으로서 원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라) 평화 교육

평화공존 단계에서 우리는 평화의 이념을 전파하여야 한다. 즉, 민족의 평화는 일체의 전쟁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고, 폭력에 의한 통치나 반전을 부정하는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는 남북을 포괄하는 행복한 사회를 기본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 교육의 과정은 넓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교실 상황 속에서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긴장과 갈등 속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의식을 키우는 것과 같다. 평화 통일의 의미는 이러한 평화 교육의 의식 속에 건설되는 것이다⁴⁹⁾. (3) 전 교과목으로의

48) 이 정의는 미국의 상황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인종과 민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 중의 하나가 다문화 교육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오랜 역사적 단절과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인해 기인된 문화적 차이와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 중의 하나로 다문화 교육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교육 확대

통일교육은 현재 교육과정에 편성된 내용에 기초하여 볼 때, 사회과와 윤리과에 집중되어 있다. 교련 등 일부 과목에도 통일 관련 내용이 실려 있으나, 그 과목의 특성상 다소 보수적이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다. 새로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적절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가? 또는, 반영의 정도가 적절한가? 를 검토하고 있다.

통일교육이 전과목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하여금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할 가능성이 있고, 둘째로 그 결과 과목 교사들이 청소년들의 통일관련 의식 형성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원래 통일관련 영역은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과목에서 비중을 두고 다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국어는 언어 및 문학의 영역에서, 사회는 시민교육 영역에서, 지리는 산업과 지형적 특성 영역에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통일교육이 남한대 북한이라는 경쟁적·갈등적 구도 속에서 실시되는 것을 탈피하여 한민족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한 단계 올라선 역동적 미래지향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시민사회 차원의 통일교육 지원

그간의 통일교육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아직도 정부는 정보와 자료를 독점하고 통일교육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역사적 경험은 정부의 통일교육이 정권의 정략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적어도 청소년 통일교육은 20-3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통일교육은 그들이 세상의 주역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통일교육은 단기적인 정세 변화나 정권의 변화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항상성’을 가져

49) 박찬석, “보편적 민족주의와 학교 통일 교육”, 「도덕 윤리과 교육 제13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1. 7.

야 한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 통일교육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기보다 시민 사회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런 시민단체의 청소년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정략적으로 통일교육을 이용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비판·견제하고, 스스로 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한 통일교육 역량을 쌓아나가면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바. 시민단체와 청소년간의 네트워크 구축

(1) 시민단체 주도에 의한 청소년 체험학습 확대

‘화해와 평화’, ‘민족적 동질성의 확대’를 위한 접근 방법으로 청소년 체험학습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우리가 남북교류를 매우 중시하는 것도 만남 속에서 형성되는 상호 이해와 신뢰가 무엇보다도 민족의 동질성을 확대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만일 남북청소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동질성 확대 방안’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전면화 되지 못하는 현 상황 속에서 청소년 교류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청소년 교류에 집착하기보다, 청소년의 건강한 화해, 평화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평화체험 학습을 확대·발전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평화체험 학습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분단의 피해를 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청소년 교육장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 국토를 휩쓴 전쟁의 경험과, 50년 가까운 극한적 대결 속에 있어온 한반도 곳곳에는 화해와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적과 삶의 현장이 많다. 이런 현장을 체험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지역 시민단체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문화, 역사 기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관심을 ‘화해, 평화’에 대한 관점으로 옮기려는 노력에 성공한다면 평화체험 학습은 장기적으로 일상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민단체와 청소년지도자간의 협력에 의한 청소년 단체활동 체계화

최근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과 같은 교사단체와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은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일캠프’, ‘평화캠프’와 같은 독자적인 어린이 청소년 단체활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아직 참여자 수가 극히 제한적이지만, 시민단체에 의한 청소년 단체활동의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단체활동은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성과를 집약하여 체험적 실험을 행할 수 있는 장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상호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독자적인 화해와 평화를 위한 단체활동을 형성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보다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단체활동에 해외 동포나 탈북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해와 동질성 확대 경로를 확인해 가는 것도 중요한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사. 대중매체 보도 내용의 개선과 전문지도자 양성

(1) 통일관련 대중매체 보도 내용의 개선

앞의 설문결과에서 보았듯이 대중매체의 보도는 청소년들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의 긍정적 의식 형성을 위한 방송인들의 보도 내용 개선 노력과 이를 촉구하고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수십 년간의 반공, 냉전 교육 탓에 화해와 평화 공존을 위한 교육자료의 축적이 거의 없다. 때문에 대중매체의 보도 내용은 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 교육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의 경우 KBS의 ‘해방 시리즈’, MBC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의 방송자료를 재편집하여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⁵⁰⁾. 그러므로 언론 매체가 단순히 북한관련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남쪽 사회에서 분단으로 인해 발행하는 각종 폐해

에 대해 심층 깊게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은 청소년의 긍정적 통일의식을 형성하고, 동질성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 통일관련 청소년전문지도자 양성

학교의 교사들은 반공, 냉전교육을 받아왔고, 그동안 그런 교육을 하도록 요구받아왔다. 때문에 현재의 많은 교사들은 대다수가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교육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민단체의 구성원들 역시, 대부분 통일관련 청소년지도의 경험이 없을 뿐더러, 더구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지도의 경험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청소년에게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교육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실제 진행되기가 어렵다. 교사와 청소년지도자 등과 같이 제활동에 관여하는 학교 및 시민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재교육, 전문화 교육이 광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관련 청소년전문지도자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은 한국의 새로운 통일접근 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하다.

50) 자세한 사항 <http://cafe.daum.net/edutomgil> 참조.

V. 결 론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청소년의 의식과 가치관의 형성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과 같이 총체적인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은 사회변동의 주체가 제영역 및 대상을 포괄하고 있음과 그 하위영역에서 생활하는 구성원과의 상호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입증해 준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통일의 당위성’, ‘통일후의 사회전망’ 등과 같은 부문의 부정적·소극적 결과는 청소년들만의 단독적 의식 형성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통일운동과 관련한 노력은 정부 및 시민사회 차원의 총체적인 역량이 집결되어야 함과 동시에 상호 견제, 보완, 협조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비판적 협력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통일논의 및 운동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우리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청소년이 통일과정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당위적 차원뿐만 아니라, 현재의 통일운동은 우리 사회가 천명하고 있는 주요한 사회운동 중에 하나로, 전체 인구구성비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계층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그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의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 및 가치관 함양 과제는 단순히 일회적·사업적·선전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향후 통일과정 및 이후의 사회문화적 통합 단계를 고려한 ‘청소년 상’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급격한 외래 문화의 수용, 그리고 전통적 윤리 및 가치관의 파괴에 따른 새로운 청소년문화의 형성에 따라 남북한 청소년간의 문화적 간극은 기성세대간의 괴리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간격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이질성은 처음 단계에서는 체제의 이질성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지만, 분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양 청소년간에는 ‘분단문화’라는 새로운 차원의 그들 문화가 형성되어 이질화는

더욱 심화 내지는 고착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남북한의 인구구성은 전후 세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질화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인구구성 비율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문화, 가치, 생활양식, 규범 등과 같은 제 영역에서의 상호작용이 증대될 경우에 사회문화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선형적인 편견과 체제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확고하게 경직된 의식이 덜 형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특유의 발달단계가 내포하고 있는 빠른 적응력을 감안할 때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통일 의식 및 가치관의 형성·함양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노력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한쪽 사회가 다른쪽 사회 구성원들의 동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차원의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 이것은 통독 이후의 사례를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듯이, 동화나 흡수는 한쪽 사회의 문화나 제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 대상은 급격한 혼돈을 경험하며 부정적 양태로의 변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노력은 북쪽 사회와 구성원들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류·협력과 같은 방법과 더불어, 먼저 우리 청소년과 기성세대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방법에 그 노력이 집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 대북관이나 대북 우월의식, 그리고 수혜적 차원의 대북 지원 등과 같은 인식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가는 과정이 또 다른 차원의 동질성 증진 노력이 될 수 있으며, 이후에 ‘공동체 교육’, ‘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 ‘평화 교육’ 등과 같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동질성 접근 노력이 그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양 사회를 경험해 본 많은 탈북청소년들은 북쪽보다 우리 사회가 보다 많은 전통적 가치와 규범을 보존·유지하고 있음에 동의한다. 북한 사회는 전통적 유교질서를 강조하는 ‘가부장주의’, ‘남존여비사상’ 등과 같이 우리 사회가 산업화·근대화 과정 속에서 점점 해체되어 가는 일부의 전통적 가치와 규범을 중심으로 그 모습이 부분적으로 보전되고 있음

을 지적한다. 이것은 남북한 양사회에 동질적 요인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남북한 모두가 아주 긍정적인 가치로 인정하여 확대·발전시키고자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우려감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확대·발전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양쪽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수용하여 시민사회 차원의 거대 담론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남북한 모두가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가치나 규범 등은 이질화되어 있고,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의 문화적·제도적 환경에서 초래된 상충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질적 요인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새로운 동질성 증진 접근 노력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한민족공동체 형성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경쟁과 대결이라는 갈등적 구도 속에서 양산된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부정적 대북관과 경제적·사회발전적 측면에 기인한 대북 우월인식은 우리 사회를 중심으로 한 동질성 증진 노력의 단초를 풀어 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한 사회의 의식이나 가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화적 변용 과정은 단시일 내에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므로 북한 사회의 경직성이나 체제를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와 관련된 제반 노력을 정부 및 시민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치·경제적 차원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접근 방법은 현 단계에서 그 실효성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그 노력을 점진적으로 옮겨가는 작업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부분적인 합의나 정부 또는 시민사회와 같이 어느 한쪽의 노력을 통하여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음에 그 적실성이 있으며, 그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과거에는 북한과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의 통일노력만을 강조해 온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내의 의식전환을 위한 전향적 통일교육의 개선 노력과 같은 제방안이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측면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사회문

화적 동질성 증진 노력에 아주 주요한 기초과제 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남북한 청소년 중심의 동질성 증진 노력은 우리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점차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우리 것을 외면하는 실태 속에서는 결코, 북한 또는 통일과 같은 거대 담론에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요원한 바램일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노력은 파트너십을 고려한 북한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적 접근과 관련된 방안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삶과 제가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문화, 통일교육, 지역사회, 부모 등과 같은 주변적 환경 요인에서부터 그 동질성 증진 노력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보다 유효 적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강민구,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인생관”, 『근로자』, 1989.
- 게하르트 미켈스, “한·독 통일교육 관련 금강산 호텔 선상 세미나 연설에서”, 2000. 11. 3.
- 고성호, “통일한국의 사회체제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문제연구원 편, 『한반도 통일론: 전망과 과제』,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 길은배, 「NGOs 역할 강화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길은배·문지연, 『청소년과 소비생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김동규,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 및 동질성 요인분석”, 『민족정체성과 남북한 청소년』,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2.
- 김용기, “계급의 불평등구조와 계급정책”, 고현욱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 김학성, “문화적 이질성 극복과 통일문화 형성”, 한국문제연구원, 『한반도 통일론: 전망과 과제』,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 도홍렬, “북한의 사회통제, 사회문제 그리고 사회변동”,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박찬석, “보편적 민족주의와 학교 통일 교육”, 『도덕 윤리과 교육 제 13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1. 7.
- 박효중, “통일 교육 이론적 기초로서의 합리적 선택이론”, 『통일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새로운 통일교육 방법모색』,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 박효중, “통일 교육의 이론적 기초로서 합리적 선택이론”, 『통일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새로운 통일교육 방법 모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1-14.
- 서재진, “북한사회 계급구조의 재편과 사회변동”,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서재진·김태익,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서현미, “남에서 부르는 북한 가요, 북에서 부르는 남한 가요”, 「통일 한국」, 2001. 7월호.
- 서현미, “북한의 베스트 셀러를 찾아”, 「통일한국」, 2001. 9월호.
- 송두율,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5.
- 신효숙, “북한 이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세미나 발표원고, 2001.
-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 방안: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대 방안 중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이경숙, “남북한 사회문화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편,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원봉, 「북한청소년생활의 심층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 이장호,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격차와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제3회 통일대비 교육포럼 세미나」,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 임현진·정영철,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현실과 과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3권 제1호, 1999.
- 장경모, “남북한 언어 변동에 관한 연구”, 탈냉전시대에 부응한 남북한 통합방향 모색 I II; 남북한 실태 분석의 모형설정을 중심으로”, 「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 공안연구」, 1992.
-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경제와 사회」, 통권 제26호, 1995년 여름.
- 정종남, “북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본 학생들의 의식 구조”, 「중등교육원 통일 교육 직무 연수」, 2000.
- 정희욱 외, 「한·중·일 청소년의식 비교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 최영훈, “취리와 러브오브시베리아”, 통신원리포트, 「통일 한국」, 2001. 2월호.
- 최운실, “청소년 교육의 방향”, 권이중·남정걸 외, 「청소년교육론」,

- 서울: 양서원, 1998.
- 추병완, “통일교육의 이론적 기초로서 공동체 교육”, 「통일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새로운 통일교육 방법모색」,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 통일부, “남북한 신세대들의 공통 분모 찾기”, 「통일한국」, 2001년 11월호
- 통일부, 「사회문화 분야 남북교류 실무 안내」, 2001.
- 통일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99 겨레 사랑 나라사랑 청소년 통일 캠프 활동보고서」, 1999.
- 함병수·길은배 외,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황인표, “협동적 구성주의에 의한 학교 통일 교육”, 「통일교육강의 교재」, 서울: 통일교육원, 2001.
- Appelbaum, Richard, *Theories of Social Change*, 김지화 역, 『사회변동의 이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0.
- Bock, P. G., *International Integration: Func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David Shills ed., New York: Macmillan, 1968.
- Choue, Chung-Won, *The Integration of Korea: Theory and Research*, Seoul: Koreaone Press, 1985.
- Collins, Randall, *Three Sociological Traditions*, N. Y. : Stanford Univ. Press, 1985.
- Kaase, Peter Bauer and Kaase, Max, “Five years of unification: The Germans on the path to inner unity”, *German Politics*, Vol. 5, No. 1, April 1996.
- R. H. 라우어, 정근식·김해식 옮김,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2.

[부록 1]

남북한의 동질성 · 이질성에 관한 청소년의식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청소년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금년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조사는 ‘남북한의 동질성 · 이질성에 관한 청소년의식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응답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 10.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청소년개발원 (우)137-715

연구진 : 길은배(2188-8843), 이종원(2188-8812),

최원기(2188-8823)

/ 팩스 : 2188-8819

다음은 귀하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 되는 보기에 V표를 해 주십시오.

- [문 1]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 [문 2] 학년은? ① 고 1 ② 고 2 ③ 고 3
- [문 3] 학교 계열은? ① 인문고 ② 실업고
- [문 4] 당신의 아버님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직업이 없으면 **가장 유사한** 응답항목을 골라주십시오)
- ① 아버님이 안 계시다
 - ② 무직 또는 정년퇴직자
 - ③ 경영·관리직: 회사·관청·단체의 임원·관리직, 장성급 군인 등
 - ④ 사무·행정직: 회사·관청·단체의 중간간부·사무직원, 군인 등
 - ⑤ 교육자: 초·중·고교 교사, 학원 강사 등
 - ⑥ 전문직: 대학교수, 법률가, 의사, 연구원, 회계사, 성직자, 예술가 등
 - ⑦ 기술직: 엔지니어, 건축가, 프로그래머, 파일러트 등
 - ⑧ 자영업: 슈퍼마켓, 전자대리점, 정비소, 주유소, 식당 등 경영
 - ⑨ 서비스직: 요리사, 이발사, 미용사, 웨이터 등
 - ⑩ 판매·영업직: 세일즈맨, 외판원, 상점 점원 등
 - ⑪ 생산·기능직: 공장 근로자, 건설 작업자, 운전기사, 경비원 등
- [문 5] 아버지의 학력은? (중퇴도 졸업에 포함, 예: '중학 중퇴'는 '중졸'로)
- ① 무학 ② 국졸 ③ 중졸
 - ④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 이상
- [문 6]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못 사는 편 ② 중간보다 못 사는 편
 - ③ 중간 수준 ④ 중간보다 잘 사는 편
 - ⑤ 매우 잘 사는 편

[문 12] 다음은 우리사회에서 통일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되고 있는 요인들입니다. 각 요인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통일에 장애가 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보 통	장애가 된다	매우 장애가 된다
1) 남북한의 이념 대립	①	②	③	④	⑤
2)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	①	②	③	④	⑤
3)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	①	②	③	④	⑤
4)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①	②	③	④	⑤
5) 남북한간의 이질성 심화	①	②	③	④	⑤
6) 통일방법상의 차이	①	②	③	④	⑤
7) 북한의 공산주의체제 고수	①	②	③	④	⑤
8) 주한미군 주둔	①	②	③	④	⑤
9)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①	②	③	④	⑤
10) 상호 통일의지 결여	①	②	③	④	⑤
11) 상호 실질적인 노력부족	①	②	③	④	⑤

[문 13] 현 단계에서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중요시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과제들의 중요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 통	중 요 하 다	매우 중요하다
1) 남북한간의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	①	②	③	④	⑤
2)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와 동질성 증진	①	②	③	④	⑤
3) 서신왕래 및 이산가족 등의 상호방문	①	②	③	④	⑤
4) 남북한 고위당국자간의 평화협정체결	①	②	③	④	⑤
5)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	①	②	③	④	⑤
6)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	①	②	③	④	⑤
7) 문화, 학술 등과 같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①	②	③	④	⑤
8) 남북한의 국방예산·군비축소	①	②	③	④	⑤

[문 14]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적절하다
- ⑤ 매우 적절하다

[문 15] 북한에 관한 정확한 지식·정보를 얻는데 다음의 각 매체와 사람들은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TV	①	②	③	④	⑤
2) 신문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수업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5) 친구·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6) 인터넷	①	②	③	④	⑤

[문 16] 만약, 당신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부모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실 것으로 생각되니까?

- ① 적극적으로 반대하실 것이다
- ② 반대하실 것이다
- ③ 찬성하실 것이다
- ④ 적극적으로 찬성하실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

[문 17] 만약, 당신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다음의 활동에 대하여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참여하 고 싶지 않다	참여하 고 싶지 않다	그저 그렇다	참여 하고 싶다	반드시 참여하 고 싶다
1) 북한의 역사·문화유적지 답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2) 북한청소년과의 음악·미술 등 예술활동 교류	①	②	③	④	⑤
3) 북한청소년과의 스포츠 교류활동	①	②	③	④	⑤
4) 북한의 명승지·관광지 여행	①	②	③	④	⑤
5) 북한청소년과의 국토순례대행진	①	②	③	④	⑤
6) 북한청소년과의 인터넷 교류(메일/채팅 등)	①	②	③	④	⑤
7) 북한청소년과의 종교관련 활동	①	②	③	④	⑤

[문 18] 북한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다를 것이다 ② 다를 것이다
③ 같을 것이다 ④ 매우 같을 것이다

[문 19] 북한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성격이나 행동면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각 성격·행동 특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주십시오.

		매 우	대 체 로	중 간	대 체 로	매 우	
1)	타율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자율적이다
2)	집단주의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개인주의적이다
3)	몰개성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개성적이다
4)	폐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개방적이다
5)	경쟁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협동적이다
6)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⑤	자유롭다
7)	불성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성실하다
8)	게으르다	①	②	③	④	⑤	근면하다
9)	비사교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사교적이다

[문 20] 북한은 **남한과 비교할 때** 다음의 각 측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를 것이다	다를 것이다	보통 이다	같을 것이다	매우 같을 것이다
1) 생활방식(의식주 등)	①	②	③	④	⑤
2) 가치관·사고방식	①	②	③	④	⑤
3) 가정생활	①	②	③	④	⑤
4) 언어생활	①	②	③	④	⑤
5) 놀이문화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⑤
7) 전통문화	①	②	③	④	⑤
8) 역사의식	①	②	③	④	⑤
9) 종교관련 의식 및 활동	①	②	③	④	⑤

[문 21] 남한과 북한사회를 비교할 때 전통적인 규범이나 관습의 사회적 영향력은 어느 쪽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북한이 더 강할 것이다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약간	약간	훨씬
1) 권위주의	①	②	③	④
2) 가부장주의	①	②	③	④
3) 남존여비사상	①	②	③	④
4) 지역주의(연고주의)	①	②	③	④
5) 가족중심주의	①	②	③	④
6) 학벌주의	①	②	③	④
7) 상부상조의 관습	①	②	③	④
8) 부모에 대한 효도 관념	①	②	③	④
9) 조상숭배 사상	①	②	③	④
10) 노인공경의식	①	②	③	④

[문 22] 분단 이후에 남북한 주민들간의 이질화를 심화시킨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활방식의 차이(의식주 등)
- ② 학교 교육
- ③ 남북한간 대중문화의 차이
- ④ 남북한간 경제적 불균형
- ⑤ 이념·사상적 차이
- ⑥ 정치체제상의 차이

[문 23] 남북한간의 동질성 증진을 위해 북한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사회의 개혁·개방
- ② 김정일 체제의 붕괴
- ③ 북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

- ④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 ⑤ 남한과의 교류·협력 확대

[문 24] 남북한간의 동질성 증진을 위해 남한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통일교육의 개선
- ② 대중매체 등의 북한에 대한 보도 내용의 개선
- ③ 정부 대북정책의 전환(수정)
- ④ 북한과의 교류·협력 확대
- 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

[문 25] 다음은 남북한의 통일과 동질성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정부, 시민사회, 청소년부문으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각 과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주십시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그저 그렇 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 정부차원					
1) 통일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①	②	③	④	⑤
2)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의 확대·발전	①	②	③	④	⑤
3) 정부중심의 교류·협력 확대	①	②	③	④	⑤
4) 고위당국자간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전개	①	②	③	④	⑤
5) 통일관련 예산의 증액	①	②	③	④	⑤
6) 통일교육과 북한관련 교과내용의 개선	①	②	③	④	⑤
※ 시민사회차원					
1) 북한관련 대중매체의 보도 내용 개선	①	②	③	④	⑤
2) 시민단체의 교류·협력 참가	①	②	③	④	⑤
3) 범국민적 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의 전개	①	②	③	④	⑤
4)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차원					
1) 청소년관련 교류·협력의 참가	①	②	③	④	⑤
2) 북한동포돕기 운동(식량, 의약품, 의류 등)의 적극적인 참여	①	②	③	④	⑤
3) 통일관련 청소년운동의 전개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들의 통일관련 관심의 제고	①	②	③	④	⑤
5) 통일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	①	②	③	④	⑤

설문조사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탈북청소년 인터뷰 내용(예시)

등 장 인 물
A : 연구원
B : 00대 학교 01학번 재학생(21세), 남
C : 검정고시 준비생(18세), 여

- A : 두 사람은 지금 나이가...여기가 19, 여기는 22...만으로 그런가?
 B, C : 예.
 B : 여기 한국 나이로 하면 스물 둘.
 A : 그럼 서양 나이로 하면 21인가?
 B, C : 예, 스물 하나.
 A : 아..그럼 스물 하나, 열여덟, 이렇게 되는구나.
 B : 북한에서는 서양 나이로 치니깐요.
 A : 지금 하고 있는 일은?
 B : 아 지금 고려대 경영학과에 01학번 학생입니다
 A : 여기는? (C에게...)
 C : 검정고시 준비중입니다
 A : 아...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인가? 많이 바쁘겠네, 여기는 01학번 대학생이고, 여기는 검정고시 준비중이고, (검정고시 준비하는 것이)어렵지 않아?
 C : 어려운 거는 모르겠어요, 사회나 역사 새로 배워야 하니까....
 A : 시험 보려면 외워야 하니까...어렵겠구나
 B : 저두 작년에 일년동안 학원에 다녔는데요, 여기서 북한학력을 인정해 주거든요
 A : 아..그렇구나
 B : 북한에서 공대 3학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편입두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경영학과라 학과도 바뀌야 했고 저 나이가 아직 좀 어리기 때문에 여기서 1학년 동안 체계적으로 다시 공부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

고 북한하구 여기하구 실력차이가 있잖아요, 또 교수님들 강의하시는 스타일들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다시 검정고시 봐서 들어왔어요. 그때 한달 동안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거(검정고시 준비)는 제가 대학을 다니다 와서 그런지 알고 있는 게 많았고..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주어져 있잖아요, 비디오투도 있고...그담에 외국어 같은 것들 단어나 문법상에서는 다 같은데 회화면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영국식 영어로 배웠거든요. 수학은 진도 자체가 북한하고 똑같아요

A : 아... 그건(수학은) 뭐 다 비슷하구나

C : 제일 쉬운 게 수학이에요. 수학은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치는데 100점 맞고

A : 이야...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C : 다른 것은 뭐....

A : 다른 건 시험형태가 틀려서 그런 거고...

B : 역사 같은 거는 많이 달라요.

A : 어유.... 그럼....

B : 다른 건 몰라도 북한에서는 역사는 시험도 잘 안보고 많이 배우지도 않고....

역사는 전혀 달라요.

A : 아, 그렇구나...

C : 근데 한글 세종대왕이 만든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안 배웠어요.

A : 아...아니 그럼 누가?(누가 만들 걸로 배웠니?)

B : 그냥 그런 거 안배웠어요. 김일성, 김정일이 내세운 거 그런 것만 배웠어요.

C : 역사나 사회에 대한 그런 수업은 없고 윤리라는 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덕수업이 따로 있구요.

A : 아...도덕수업

B : 그 담에 검정고시 들어가니깐 그런 수업이 있데요. 화학이랑, 과학 뭐 이렇게 되어있데요.

근데 북한에선 그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화학, 물리, 수학도 대수, 기하, 수학...이렇게 달라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들이 배우는 것들

은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수학도 진도는 같은데 말이 다른 것들이 많아요.

A : 아...용어가 틀려서 그런 거구나

B : 예, 용어가 틀리고, 영어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 일단 사회과목 같은 것들... 잘못 알아듣는 이유가 영어를 많이 써서 잘 모르는 것들도 많아요.

A : 도덕책 같은 것들,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지?

C : 여기서는(남한) 사람이 가져야할 도덕, 인격, 개성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파고 들면서 배우거든요. 근데 북한 도덕은 뭐 예절, 공중도덕 같은 거...

B :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관리 잘해야 한다. 뭐 이런 거...

C : 사람이 가져야할 인격, 사회에 대한 것들 이런 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예절 뭐 이런 것들 배우니까요...

B : 근데 그 도덕과목이 뭐랄까...교차과목이랄까...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가 기본 과목이니까...

A : 아, 그렇구나...

C : 김일성 태어난 날부터 몇 년도에 뭐 했고 뭐 했고, 일대기를 다 외워야 해요. 그거 못하면 다른 거 잘해도 점수 안나오니까요.

A : 아...다 외워야 하는구나

B : 그러니까 도덕 과목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가 그냥 김일성, 김정일을 모범으로 삼고 무조건 따라해야 이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이 어린시절 했던 모범을 따라 배우란 얘기예요.
그런데 솔직히 따라할 필요 없잖아요.

C : 도덕에도 김일성이 나와요. 김일성 어린시절, 김정일 어린시절... 어릴적에 ○○○하셨습니다. 이런 거...

A : 아...모든 게 다 그걸 중심으로 되어있구나.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랑 나이랑 똑같나?

C : 아, 그게 아니고 여기는 초등학교 6학년 중 3년, 고 3년이잖아요. 북한은 여기 초등학교에 맞먹는 인민학교라는게 있어요. 그 인민학교가 4년제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긴 따로 따로 있죠. 북한에는 고등중학교가 하나로 되어있고 6년 다녀요.

A : 아...4년 다음에 6년...

B : 4년, 6년이면 10년이잖아요. 근데 인민학교 전에 유치원 1년 있어요. 그래서 11년...이렇게 11년이 의무교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6살에 유치원 들어가서 11년간 의무교육 마치고 17살에 졸업하고 성인으로 인정받은 거죠.

A : 아...17살에...

B : 제가 17살에 대학교 들어갔으니깐 여기 3학년(대학교) 나이가 안되잖아요. 여기는 보통 18-19에 대학교 가잖아요. 거기는 17살에 대학가요.

A : 그러면 거기 청소년들은 상당히 조숙하겠네...성인이 일찍 되니깐...

B : 아...조숙한 거 보다 성숙 하다고 해야 하나...애들이 단련이 많이 되어 가지구...

A : 정신적으로 성숙한 건가?

B : 예...정신적으로 성숙한 거죠. 단련이 많이 되어 가지구... 그리고 거기 16살 때부터 총쏘는 것도 배우거든요. ‘붉은청년근위대’라는데 있어 가지고 16살 때, 거의 고등중학교 5학년이나 6학년정도 되거든요. ‘붉은청년근위대’라고 1주일 짜리가 있거든요. 거기 나가게 되면 총 분해, 결합 배우고 조준 연습 같은거... 마지막 퇴소하는 날에는 사격 해서 점수... 그러니까 실탄사격까지 하고 나오죠. 여자건 남자건 안 가리고 사격까지 배우고 나와요. 그러니까 16살이 되며는 무기를 다루는 것까지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17살, 고등중학교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다 군대를 가게 되거든요. 대학을 가게 되면 군대가 면제예요.

A : 아...그렇구나

B : 여기는 대학을 가도 군대를 가야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대학을 가게 되면 안가게 되죠.

A : 대학을 가는 거는 시험을 봐야 되나?

B : 그렇죠. 여기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예비시험”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통과되어야 대학에 가게되요. 근데 여기에선 원서로 지원을 하잖아요. 복수지원두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교육부에서 다 정해줘요. 넌 여기 가라, 넌 저 대학가라...

A : 예비시험이 합격되면?

B : 예...예비시험이 합격되면요. 거기 대학가서 다시 시험쳐서 합격 되야죠.

A : 아, 그렇게 되는구나...그럼 그 대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나?

여긴 다 준비하잖아. 거의...

B : 거기서는 거의 안해요. 여학생들이 많이 했는데...요즘에는 여학생들도 많이 안해요. 우리학교(대학) 기숙사도 불도 안들어 오고, 춤고 하니깐... 여학생들이 냉병 같은 게 많이 걸려요. 원래 대학두 의무 교육이지만 식사가 제대로 안나오니깐 애들이 그거 먹고 못견디잖아요. 그리고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교과서하고 공책 같은 것들을 사야하니깐...교과서는 몇 사람이 같이 본다고 해도 자기가 공부할 공책을 있어야 하니깐... 그래서 부모들이 다 잘 안보내려고 해요. 돈이 있어야 하니깐...

A : 아...그렇구나

B : 그래서 거의 대학에 못 가요.

A : 그럼 남자는 군대가야 하잖아.

B : 예...군대가고, 여자들도 군대 많이 가요.

A : 아...여자는 의무는 아니고?

B : 의무는 아닌데 성분이 되게 좋은 애들은 간호사라든지...

A : 아...그런 쪽으로...

B : 그런 쪽으로 가면 엄청 편해요.

A : 아...그럼 그게 다 “성분”으로 정해지는 거야?

B : 예...

A : 아, 그렇구나... 그럼 인민학교 마치고 고등중학교 6년을 있게되면 아이들끼리 상당히 나이 편차가 많겠네... 거기 있는 아이들끼리...

B : 아...그 1학년부터 6학년까지...나이차이...되게 많죠.

A : 여기로 따지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있는 건데...

C : 아...거기는 중학교에 들어가면 3학년까진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이제 4학년 위로는 사로청 위원으로 넥타이로 없고 그래요. 그렇게 등분은 있어요.

B : 4학년하고 1, 2, 3학년하고 따로 생각해요. 근데 한 학교죠. 한 학교인데 3학년까지는 농촌활동 안 보내고 4학년부터 보내고 ... 여러 가지로 다르죠.

A : 아, 그렇구나...그럼 그 중등고등학교에서도 좀 나이가 있는 그러니깐 중간정도 되는 학생들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돼? 아침에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끝나고...그런 거 있잖아?

- C : 아침 8시에 수업시작해서... 보통 2시간하고
 A : 그럼 점심이 거기에서 나오나?
 C : 아뇨, 집에 가서 점심 먹고... 1시에 다시 학교 가서 2시간동안 공부
 하고 그리고 과외활동...
 A : 과외활동? 어떤 거?
 C : 보통... 뭐 농촌지원도 나가고...
 A : 그게 몇 시까지?
 B : 하루과제를 맡겨주면 그게 끝나는 시간까지, 그래가지고 보급제로 하
 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맡겨진 일을 못하면 못 가는... 그런 방식을 취
 해요. 북한에서도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5시 6시에 끝날
 때도 있고 7시 정도까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A : 끝나고 나면 뭘 하지?
 B : 끝나고 나면 여기는 PC방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끝내고
 나도 그런데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북한) 전기도 없고... 나이
 많은 6학년, 뭐 이런 애들은 끝나고 나면 따로 빠져서 술 먹고 그런
 것도 해요. 그런데 그 이하의 애들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씻고 자
 죠. 일하고 나면 피곤한데 자죠.
 A : 아... 그러니까 할 것도 없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씻고 자는구나...
 B : 예... 자고 아침에 나오고...
 A : 그러니까 여가가 없구나...
 B : 김일성, 김정일 같은데 여가를 주겠어요. 애들은... 진짜 애들을 딱 묶
 어놓고 개인생활 없게 만들어요.
 A : 토요일, 일요일도?
 B : 토요일, 일요일 연말에도 휴식하기 힘들어요.
 C : 예, 힘들어요.
 B : 한 달에 뭐 한 두 번... 한 두 번도 힘들거예요.
 A : 그럼 그 날도 학교 가서 작업하는 거야?
 B : 그렇죠 작업하다가 수업 진도가 밀리잖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도 수업할
 때도 많단니까요. 수업이 밀리면 진도를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A : 공부하거나, 작업을 시키거나...
 C : 그리고 수업은 50분하고 5분 쉬고
 A : 그럼 화장실 다녀오면 끝이네... 그냥

B : 원래 법적으로는 45분하고 10분 휴식인데 진도가 밀리니깐 50분하고 5분 휴식하고... 그리고 거의 1년에 한 6개월밖에 공부 안해요.

C : 그리고 방학 때도 노는 시간이 없어요. 천 문제, 만 문제 풀기도 하고... 12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A : 밤 12시?

C : 예... 밤 12시요.

B :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김일성 생일 때는 우리지역에 금 캐는 곳이 있어요. 외화벌이 시켰었어요. 애들도... 금 캐가지고 김정일 생일 선물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거 안 바치면 사상투쟁회 하고 그랬었거든요.

A : 방학 때도 시키고?

B : 예... 한 일년에 6개월밖에 공부를 안하니깐요. 한 6개월 동안 일하고 진도 밀린 거를 하루 8시부터 시작해서 6-7시까지 강의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진도가 어느 정도 맞는다하면 일시키다가 안되면 주말에도 시키고, 북한에는 어떤 법칙이 없다니깐요.

A : 야... 그럼 그런 여가가 없으면 너무나 힘들겠다.

B : 그러니깐 여기가 얼마나 편한지를 모른다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학생들 거기 보내봐요. 하루도 못살고 다 도망친다니깐요.

A : 그러면 6학년들 술 먹고 그런다고 했잖아.

B : 아... 그런 몰래 먹는 거예요.

A : 몰래... 담배하고 술, 담배도 하고?

B : 그렇죠.

A : 아... 그 밑에 학생들은 좀 못하나?

B, C : 다 하죠. 몰래 조금씩...

B : 그런데 이제 6학년들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더 많이 하는 거죠.

A : 근데 그게 어디서... 돈이 어디서 사지? 술하고, 담배...

B : 그래도 어디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가져온 쌀 가져가서 바꿔 먹는 경우도 있고, 쌀하고 담배 바꿔주는데 많거든요.

A : 그 바꿔 주는 데가 어디 뭐... 가게야 아니면 어떤 집에 있어?

C : 집이 있어요. 한 마을에 몇 집 있어요.

A : 근데 술을 북한에선 공식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B : 불법이죠. 다 불법인데 만드는 거죠. 여기도 뭐 그런 거 할 때 경찰서

- 장이나 이렇게 끼고 하잖아요. 거기도 다 끼고 해요.
- A : 그러니깐 돈 좀 주고 밀주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 B : 예... 다들 그렇게 해요.
- A : 담배도 그런 식이고, 불법으로...?
- B : 예...
- A : 아...그렇구나... 어떻게 서울에선 술 많이 먹나? 담배도 많이 하고?
- B : 담배, 술 많이 해요.
- A : 어~~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그러는 건 없어?
- B, C : 있긴 있어도 여기처럼 노골적으로 손잡고 그런 거는 없어요.
- B : 거기는 극히 연애하는 거는 남에 눈에 안띄게 하고 그래요
- C : 고등중학교 올라가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도 못해요.
- A : 학교가 남자, 여자 완전히 갈라져 있나?
- B, C : 아~~ 아니예요. 다 혼합반이에요. 다 함께 함쳐 있어요.
- C : 남자, 여자 같이 앉혀요.
- A : 그러면 진짜 (남여간에) 진짜 좋아질 수도 있는데...
- B : 만약 들키게 되면 '사상투쟁회' 하고 그래요.
- A : '사상투쟁회'하고 그러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거야?
- B : 전교학생들 모아놓고 그 앞에 서서 비판하게 되면 정말 창피하잖아요. 연애하는 건 잘못된 거라구 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정말 낮 뜨겁구 그래요. 같은 학교 애들인데 다음날 학교 나가기도 창피하구 정말 괴롭잖아요.
- A : 어... 그렇구나
- B : 대학에서두 연애 못하게 하는데요. 뭘...
- A : 어... 그래? 그럼 언제 사귀지?
- C : 고등중학교 5학년쯤 되면 그때 사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주위에 서 많이들 말리고 그러죠. 뭐... 서로 보위(?)한다. 그러면서 위원들이(?) 말리고 그래요.
- B : 최근에는 그런 게 그래도 많이 풀렸어요. 북한이 아무리 폐쇄되었다 그래두 발전 할 건 발전하니까요. 조금씩 변하니까 여기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사귀지는 못해도 조금씩 사귀고 그래요.
- A : 여기는 청소년들이 들어봤겠지만 여자애들이 원조교재도 하고, 그래서 미혼모들도 많이 발생하고 남자애들의 경우도 빼끼같은거 하고... 들어봤어?

B, C : 예... 들어봤어요.

A : 또 남자애들도 돈 많은 아줌마들한테서 호스트, 남창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거기엔 미혼모 같은 거 없어?

B : 있죠.

A : 아니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러는 데도 있어?

B : 그럼요.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러는 데도 그 중에서 생기죠. 그 중에서도 생기고 또 군대에서도... 군대가 10년이었는데 3년 더 붙어서 지금 13년 되었거든요.

A : 군대가?

B : 예... 군대가 13년이에요. 여긴 2년 2개월이잖아요. 13년이면 17살에 군대가서 30살까지잖아요. 우리 있던 데가 군대 1개 사단이 있었는데 그런데서도 많죠. 간호사들도 많고 군대에서도 많아요.

A : 아니 청소년들 말이야.

C : 청소년들도 많아요.

B : 일단 여기는 화학제들(피임약을 말하는 것 같음)이 많아서 제거를 하지만 북한은 그런 게 없고...

C : 병원가면 되지만 돈이 없어 못 갑니다.

B : 근데 최근에는 김정일이 애 많이 낳기 그런 거 해요

A : 아... 그래요

B : 예... 북한에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남자가 줄어서 군대 뽑을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많이 낳는 그런 운동했거든요. 그래서 요근래에는 병원에서 낙태수술 그런 거 해주면 걸려요. 병원에서 못해주게 되어있어요. 무조건 낳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구 또 산부인과 의사들이 잘 살잖아요. 왜 잘사는가하면 임신 한 애들이 낙태를 해야하는데 아무래도 불법으로 하려면 의사들은 뭔가 또 먹어야 하니깐 비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잘살고 그래요.

A : 그런데 청소년이 아이를 갖아 미혼모가 되었다. 그러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학교에도 못 가고...

B : 그러니까 거의 다 낙태를 시켜요.

A : 그럼 돈을 많이 주더라도 낙태를 한다고? 몰래...

B : 예...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관계를 가져 아이를 갖는 애들도 우리학교에 있어서 제가 아는데 거의 못 낳게 해요.

- A : 아... 그렇구나... 여가도 없고 그래두 그 사이사이에 비는 시간을 이용해 담배도 피고...
- B : 예... 그 사이에 뭔가 다 하는 거죠.
- B :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거기서도 다 생긴다니까요. 말 잘 안듣는 애들 많잖아요. 다 말 잘 들을 수는 없죠.
- A : 나도 미처 몰랐던 그런 일들을 많이 듣네... 그런 건 없나? 종교활동 같은 거? 어때?
- C : 무당같은 건 있어요
- A : 아... 점보고 그러는 거?
- B : 예... 그 정돈 있고요. 제가 알기론 지하교회라고 하는 거 있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건 제가 못 믿겠구....
- C : 우리 뒷집에 있었어요. 근데 한날 가보니깐 헬리콥터 지나간 뒤로 집이 폐허가 되버렸어요.
- B : 중국사람들 많이 초청하는데는 있다고 하던데요. 좀 내륙쪽에는 없어요. 내륙쪽으로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아직 안변했어요.
- A : 정보가 차단되어있으니까...
- C : 지하교회에서 한 200명 모여서 기독교 믿었는데 그 속에서 비밀이 발설이 되어서 다 잡혀가고...
- A : 그거 붙잡혀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 B : 뭐... 정치범이죠. 그 사람들이야... 인간지옥에서 못 나오는 거죠. 공식적으로 기독교, 불교 이러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기독교 있는 것도 몇몇 성분 좋은 사람 뽑아서 교육시킨 것이고 묘향산에 절이 있는 것 두 가짜예요.
- A : 아... 몇몇 성분 좋은 안변할 확실한 사람들을 교육시킨 거라 이 말이지?
- C : 묘향산에 중들은 머리 길렀어요.
- B : 아니...머리 깎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두 다 가짜고 제가 여기 나와서 황장엽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 사람은 높은 데 있었으니까 그 묘향산에 중들이 다 안전청에 있는 애들이고 다 거짓이라구...
- A : 맞아...
- C : 기독교 믿는 사람들 생매장해놓는 곳도 있어요. 그곳을 '한구터'라고 하는

데 한 구덩이에 사람들을 생매장시켰다고 해서 그렇게 불려요.

B : 북한이 유일사상인데 김일성만 믿고 살라는 나라인데 어떻게 다른걸 믿으라고 할 수가 없죠.

A : 그렇구나... 거기서는 여가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는 청소년문제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왕따, 폭력, 마약도 있고. 성문제도 있고 복잡한 게 많은데 거기서는 그런 청소년문제 그런 거 없나?

B : 문제는 뭐 이런 ‘남녀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떠들썩 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한 번 떠들어서 학생들 앞에 세워놓고 비판하고 그랬었어요. 그 외엔 나타날게 없죠 뭐. 거의...

A : 그럼 거긴 여기처럼 청소년들이 조직화되어 가지고 왕따시키거나 집단 패싸움 같은 거는 없나?

C : 집단 패싸움은 있었죠.

B : 패싸움은 많아요.

A : 어...그래? 근데 왜 싸우지?

B : 사람 사는 땅인데 그건 똑같죠.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뭐 그런 거죠. 누가 힘세냐, 누가 왕이나, 그래서 그런 것은 북한도 같아요.

A : 어... 돈 갈취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나?

B : 돈 갈취하려고 해도 돈이 없죠. 돈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때린 사람이 돈을 물어주잖아요. 거긴 그런 거 없어요. 주먹 썬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안전부에서 나와서 싸움 말리면 그것이 끝이에요. 학교에서는 싸움 잘하는 애가 왕이에요.

A : 그럼 그 싸움 잘하는 애는 뭔가 편한 대우를 받겠네?

C : 예, 그리고 애들이 그 애 주위에 몰리죠. 그 애가 뭐 한마디하면 다른 애들도 아무 말 못하고, 여자애들 중에도 그런 애가 있고...

A : 그럼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에 대해 전혀 들을 수 있는 것이 없겠네?

B, C : 없죠. 전혀 없죠.

C : 우리도 거기에서 남한에 대해서 들을 땐 ‘굶주려 죽는 남한’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 곳에 와서 보니까 전혀 딴 세상 온 것 같아요. 한 열흘 동안에 꿈꾸는 것 같아서 꼬집어보고 머리를 때려 보고 했어요. 악몽꾸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악몽...

B :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 애들에 대해 하는 건요 ‘한총련’ 애들 얘기밖

에 몰라요. ‘한총련’ 누가 잡혀 들어갔다, 누가 잡혔다. 이런 거밖에 못 들어요.

A : 그건 알려줘?

B : ‘한총련’ 아이들 석방하라. 뭐 그러면서 북한이 다 떠들어요. 한총련이 친북세력이 많잖아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많이 봤는데 한총련에 대해 굉장히 의지를 해요. 자기들 같은 피라 생각하면서 많이 의지를 해요. ‘임수경’때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와서보니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친북파가 많아요. 그리고 수경언니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C : 데모하는 건 다 나와요. 무조건 다 나와요. 한총련에 대한 특보는 다 나와요.

A : TV가 각 가정마다 있어?

B : 요새는 우리동네 같은 경우에는 다 있어요. 흑백TV요.

A : 방송이 나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B : 예... 방송이 개방된 게 아니예요.

A : 그렇지...

B : 거기는 김일성, 김정일 밖에 만나와요. 방송이 평일 날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거든요.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게 80%고

C : 김일성 죽은 날 하루 있잖아요. 8일, 18일, 28일 이렇게 3일은 순 김일성이 살아온 업적 이런 거...

A : 다른 방송은 안 나온단 말이야?

C : 예... 그 하루만... 그 하루동안은 순 그런 거 밖에 만나와요. 8자가 들어간 날은 다... 신문 같은 데 사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김일성 사진 나오면요 그걸 찢지도 못해요. 보관해야해요. 제가 그걸 한 번 잘못해 가지구요, 찢어 가지구요, 엄마, 아빠도 두려워서 고민 고민하다가 아궁이에다 넣고 태워버렸어요.

B : 그러니까 그 아궁이에 넣은걸 알게되면 그건 정치범이예요.

C : 그 사진 때문에 고민 고민하며 울다가 겨우 아궁이에 넣어서 태웠어요. 벽에 사진 걸려있잖아요. 손가락질도 못해요. 관리도 잘해야 해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먼지라도 있나 검사하고 그 래요. 북한에서는 그 초상화 닦는 손수건이 따로 있어요. 이쁘게 만들어진 손수건.. 그것도 딱 꼭에다 넣어 가지고 보관해요. 그것도 이제 검사

하고, 명절날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검사하고..

A : 그럼 여기도 ‘전통’같은 것들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북한은 어때? ‘전통문화’같은 것들?

B : ‘전통문화’ 같은 것들은 여기보다 더 못해요.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김일성의 역사 같은 것 밖에 없어요. 김일성 사적관, 동상, 광장, 이런 것만 지어놓고... ‘단군릉’ 이런 것만 있어요. 학생들이 전부다 김일성 동상 이런 것들만 가니까..

A : 아.. 그렇구나 또 뭐 어른에 대한 어떤 예의라던가...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야? 명절은?

C : 명절은 뭐 동지날 팔죽 쑤어먹고 설 같은 거 있고 설날 윷놀이 하고, 북한에서의 명절은 모두 김일성, 김정일 태어난 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A : 그렇구나.. 추석은 있어?

B : 추석은 있어요. 설은 1월 1일하고 2월 이틀간... 최대의 명절은 김일성하고 김정일 생일이잖아요. 4월 15일하고, 2월 16일...

A : 아.. 그래요.

C : 그리고 그때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한 일주일간은 집에서 오락두 없고 노래두 부르지 말고... 김일성 죽었을 때 100일 동안 TV도 음악 자체가 안나왔었어요. 음악이 안나오고 누구도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그때 정말 참지 못할 정도로 그랬어요. 집에서 누워있어도 노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엄마도 와서 때리고 언니도 와서 왜 노래 불렀냐고 하면서...

A : 정말 그렇구나... 그럼 청소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답답할 것 같거든. 그럼 가족끼리 어디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

B : 전혀 없어요.

A : 그럼 뭐 노는 게 전혀 없다는 거야?

B : 전혀 없고, 시골하고 가까운 데는 학생들 산으로 ‘원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A : 원죽...

B :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A : 소풍 같은 거네...

- C : 소풍같이 학교에서 가는 거예요.
- A : 소풍이네...그지?
- C : 예... 소풍이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먹고 오고...
- A : 그 동네에서 그냥 노는 거... 친구들이랑 어울려 노는 것도 없겠네...
- B : 시간 날 때 '고스톱'이나 치죠.
- A : 아아... 그런 것도 해? 그런 것도 하고 다른 거 뭐 또 하는 거 없어?
- B : 당구도 치구요. 근데 그건 주말마다... 근데 그런 놀이는 별로 할 시간이 없어요.
- C : 우리 거기서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잣집 아들이 고스톱 쳐가지구요. 돈 내기를 했거든요. TV내기 그런거 했어요. 근데 그런 돈내기 하면 거기서는 총살감이거든요. 그때 한참 총살 할 때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성분이 좋고 할아버지도 전쟁에 참가하셨다고 해서 그냥 나왔잖아요. 그리고 강냉이 훔친 사람이 총살당하고... 그리고 여자에게 시계 뺏고 그런 사람도 총살당하고...
- A : 총살을 하면 그럼 공개되나?
- B : 예... 공개 되요. 그냥 시장에서 해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 데에서...
- A : 그럼, 그냥 그런 데에서 총을 쏜단 말이야?
- B : 그럼요, 그 것도 30-40발씩 쏘는데요.
- C : 이렇게 4명이 나와 가지고 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재판을 해요. 재판장이 나와서 재판하다가 총살한다 그러면 나와 가지고 눈 틀어막고 싸요.
- B : 솔직히 여기 같으면 미성년자들 한테는 그런 거 안보여 주잖아요.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봐도 상관없어요.
- A : 그걸 봐야 되는 거야?
- B : 예... 봐야 된다고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엔 오라고 안했는데 가는 거죠. 근데 한 번 보고 나면 너무 후회하죠.
- C : 그 사람을 쏘는 게 말뚝에 묶어놓고 쏘는데 너무 끔찍하죠.
- B : 난 두 번 봤지... 두 번 봤는데 여자 4명 총살하는 거예요. 그 여자 4명이 우리쪽이 금개는 쪽이라 그걸 중국에 밀수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총살을 하는데 두 명은 시집을 갔고 두명은 안 갔는데 그 총살을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집 지붕 위에 까지 올라가서 봐요. 재판관들 나와서 한 5 분 동안 재판하고 몇 조

몇 항에 의해 총살한다고 총살을 하는데, 여자들 두 명은 시집을 갔으니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3살, 10살 짜리 어린애들 둘하고 부모들까지 다 데려다 봐요. 앞에다가...

A : 그 앞에다가? 보라구?

B : 자기 엄마가 죽는 거를 똑똑히 보라는 거야.. 너희 엄마가 이런 죄를 지어 이렇게 총살되니까 죄를 짓지 마라.. 뭐 그런 식이죠.. 여름에도 동복을 입혀요. 솜 동복... 총 맞으면 피가 튀어나오고 하니까 튀어나오지 말라구.. 그리고 손을 묶어놓고 쏘는데 한 사람 당 제일 많이 맞는 사람이 30발..

A : 왜 그렇게 많이 쏘?

B : 4명이 쏘는데 4명이 한 사람씩 쏘는 게 아니라 4명이 한 명을 집중해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깐 사람이 형체가 없어지더라고요.

A : 그렇겠지... 으음...

B :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정말....

A : 그냥 한 발만 쏘도 될 것 같은데...

B : 근데 솔찍히 그게 얼마나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그거 딱 보면 정말 잘못을 안해야겠다.

C : 수그러들고... 와~~정말 무서워요. 중국 사람들도 많이 봐요. 중국에선 없는 걸 보잖아요. 그럼 '와 다시는 북한에 오지 말아야겠다' 그러기도 해요.

A : 으음... 그렇게 까지도 하는구나... 아까 저 탈북한 게 99년도라고 했지?

B : 예...

A : 그럼 여기는 2000년도라고 했나? 2000년도 말쯤에?

C : 2001년

A : 2001년.. 어~~ 그럼 그 때 탈북하게 된 어떤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어? 어떻게 오게된 거야? 강 넘고 중국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C : 전 오기 전까지 학교 다녔었어요. 오는 날 오전까지 학교 갔었고, 근데 엄마, 아빠가 '가자' 이러는 거예요. 잘 못 먹더라도 그냥 거기서 있고 싶다. 거기 사상에 박혀 가지고요 거기 떠나면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거기 보면 아무리 못 먹는 데도 이제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빠, 엄마랑 생각이 있잖아요. 자 식도 많지, 앞으로 번다 해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 가지구 오길 결심하고

오늘 저녁에 가니까 다 준비해라 그래서 그 오전까지 공부하고 오후에 준비해서 무사히 이제 탈출했죠.

A : 근데 그 국경 넘는데는 어떻게?

C : 예... 우리는 그 국경지역이니깐요. 거기 밑으로 들어가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우리 엄마가 그런걸 심의했으니까 우리 6식구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걸로 해가지고 넘어왔죠. 그 국경을 지날 때 초소를 한 6개 지나왔어요. 그런데 지날 때마다 먹을 걸 줬어요. 이렇게 빵을 줌 해가지고 가서 주고 하니까, 군대들도 배가 고파서 개구리 잡아먹고 그래요. 근데 빵을 주고 하니까 그냥 보내데요.

A : 여기는?

B : 아... 저는 큰아버님들이 미국이랑 한국에랑 살고계세요.

A : 아...

B : 북한에서 성분이 나쁜 집안이니까 아빠의 형님분들이... 최근에 제가 한 94년도부터 큰아버님들과 연락을 했어요. 북한에서... 연락이된 게 연변에서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여기 한국에 사촌형들이 있고 큰아버지들은 미국에 나가셨는데 그 분들이 재미교포들은 북한이랑 연계가 돼서... 아직 않되는 게 한국사람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서 돈을 받았어요. 받다가 김정일 생일이 끼가지고 2월달엔가 돈 들어왔는데 1000불 중에 200불만 주는 거예요. 80% 때 먹는 거예요. ‘왜 땀냐?’ 하니까 ‘김정일이 생일이라서 선물로 바쳐야 한다’ 거기다 데고 우리가 못 바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불만이 엄청 많아 가지고... 돈만 이렇게 받다가 또 중국 친척들을 통해가지고 물질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받다보니깐 아빠가 그 다 음에 그걸 돈으로 받아 가지고... 북한에서 중국나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여권 없으면... 하다가 4년만에 여권을 만들었어요. 아빠가... 여권 만들어 가지고 97년도에 중국으로 나왔다가 북한에 들어오는데 그때 완전 우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자, 가자” 해 가지고 이제 왔죠. 그 다음에 99년도 8월달에 써서 저는 되게 쉽게 나왔죠.

A : 뭘로 나온 거야?

B : 중국에서 여기 나올 땐 여권을 했구요. 북한에서 나올 땐 애 말따나 증명서가 있고요. pass가 있어야지 나오는데 저희가 그게 없어가지고 100

리에 초소가 10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리에 초소가 하나 씩 있어요.

A : 와~~ 많구나..

B : 근데 그거를 못 통과해 가지고 그때 산으로 돌아서 왔죠. 그러니까 100리 길이 한 500리 길..

A : 야~~ 힘들었겠다.

B : 내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하루에 100리 정도는 걸거든요.

C : 150리 도 막 걸어요.

B : 어... 150리두 건구 그러는데 우리가 5일 동안 걸었죠 좀 힘들게 나왔죠.

C : 우리두 그때 성분이 진짜 너무 나빴어요. 6·25 때 우리 할아버지, 다 우리 나왔거든요.(남한으로,,) 고모, 할아버지 뭐... 삼촌이 5명 되는데 4명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하여튼간 다 반동집안이다 우리집안 이 다 그래 가지구 우리 언니두 성분이 나빠서 탄광으로 들어가라, 우리 둘째 언니두 군대보내겠다. 그러니까 성분이 나빠서 안되겠다 하구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생각한 게 할아버지두 지주였다고 해 가지구요. 나와보니까 남한에 오니깐 삼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다 모여서 만났어요. 만나구 보니깐 그 문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삼촌이... 근데 남한으로 간 소린 안하고 하여튼간 반동이라고.. 삼촌이 그 때 힘들게 도망쳐 나와 가지고 6·25때 고모님이랑 같이 나와 가지구 여기 와보니깐 아버지... 친척들이 다 한국에 와서 살아요.

A : 그럼 뭐 여기서 다 같이 살겠네..

B : 북한 안전부에는 우리 집안에 대한 내부문서가 다 있어요. 있어가지고 관리하죠. 그치만 본인은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이유가 뭔가 해가지고 안전부에... 직접적으로 그 문건 다루는 놈한테 돈 먹이고 하니깐 그 문건이 까지게(공개가) 된 거예요. 월남가족에다가 그 다음에 아빠가 중국에 나와서 보니까 지금 이쪽에(남한에) 큰 아빠가 방위산업체를 하거든요. DKR이라고 그래가지고 점점 북한 에서는... 둘째 큰 아빠가 미국에서 뭐하는 데 북한에 나진, 선봉 있잖아요. 거기다 투자하러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그때 탈출했다) 남한에서 방위산업체 하는 거 알면 우리 죽거든요. '그래 안돼겠다' 그래서 바로 '뛰자' 그래서 왔죠,,

C : 그게 시집갈 때도 큰 문제가 돼요. 우리 엄마가 빨갱이 집안이거든요.

할아버지 항일투쟁 하고 그랬는데 정말 많이 반대했어요. 보위부에서 왜 결혼하느냐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엄마가 의심가는 게 있잖아요... 자기 자식을 대학 보내려고 해도 문제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문서를 몰래보니까 지주요 우리 할아버지 외척으론 일본에 있거든요. 조선 있을 때 연락 다 되었어요... 주소도 알고 돈도 보내고.. 돈도 직접 못 받았어요. 불러요. 불러서 가면 돈 막 주고 그냥 줘요 '이게 얼마다' 직접 막 안 줘요 불러요

A : 그러면 일단 여기 나와서 남한을 알게 된거 아니야. 그치? 거기 있을 땐 잘 몰랐고 여기서 많이 얘기되는 것이 통일이란 말이야.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나?

B : 많이 하죠. 여기 보다 더 많이 하죠. 통일을 하겠다는 신념, 민족이라는 것도 있고 북한이 못살잖아요. 애들이 못살고 하니까 자기네가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못살고 하니까 그게 다 남한 땀에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북한이 통일이 안됨으로 해서 자기네 나라가 이 지경에 처했다 생각을 해요.

C : 남한을 구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해요. 미국놈들에게 억압받고 지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빨리 한 민족이 합쳐가지고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B : 그래,, 어릴적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래요.

A : 그럼 그 통일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들 사이에 상당히 많겠네?

B : 여기 같지 않아요. '통일해야돼?', '않해야 되요, 필요 없어요' 북한에 가면 그런 거 절대 없어요

C : 애들이 노래부르다가 막 울고...

B : 애들이 통일에 대한 마음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막... 그거는 다 북한 전역이 통일을 해야한다 그래요. 그거에 관한 정신력은 한국이 많이 떨어져요.

A : 지금 본인들도 그렇고 거기 있었을 때 친구들도 그렇고 통일이 안되는 이유?

B : 외세 때문에... 미국 때문에 한국 정부 때문에, 괴뢰군 때문에 이런 생각해요. 오직 좋은 건 남한 민족이다. 우리 동포다. 핏줄이다. 우리 동포들이 같이 살아야 한다. 이러면서도 괴뢰군 때문에 정부하고 미국만 욕해요.

A :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두 사람은?

B :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A : 어... 여기는?

C : 아직 거기까지는... 통일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만 사는 것도 힘든데 통일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B : 저는 분단이 지속되면 될수록 문제가... 문제가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햇볕정책이 솔직히 통일이 된 다음에 혼잡을 미리 막기 위해서 북한을 어느 정도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이 싫어요. 그게... 김정일이가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 싫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형식 같은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햇볕정책을 한다고 해도 경제가 올라가야죠... 북 한에 변화가 있어야지 만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 근데요. 솔직히 제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사람들 지금 월급, 배급 없어진지 오래 되었거든요. 그치만 통일이 돼서 만약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일 시키고 어느 정도 수입을 주면 그 사람들은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반면에 좀 똑똑하고 많이 배운 놈들은 남한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봉 같은 거 비교를 해서 같은 사람인데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조금 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통일은 안되거든요. 통일은 생각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야 빨리 통일이 되어서 그냥 빨리 경과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A : 그럼,, 그 통일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뭐라고 생각해? 그게 아주 어려운 거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하고...

B : 너무 큰 범위인데...

C : 북한사람, 남한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나같이 이해 안되는 점이 너무 많은데...

A : 그래... 예를 들면 그런 거?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B : 저는 20대 젊은 층들에 경우는 별로 충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 : 아... 20대는?

B : 제 경우로 봐서는... 저는 여기 와서 적응이 빨리 됐거든요. 솔직히 젊은 애들이 생각하는 각도하구...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같거든요. 게임이나 오락 같은 이런 현실적인 것에서는 북한에는 컴퓨터가 없어

서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치만 한 두 달 지나고 나면 다 익숙해져요. 다 서로가 공유가 되고... 근데 30, 40 대... 40대 넘어가면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데... 솔직히 젊은 층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A : 근데... 갈등이 없을까? 청소년들은?

B : 갈등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일이 커질 만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A :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남한 애들은 문화도 다르고...

B : 예... 문화가 다른데. 자본주의 문화가 애들한테 빨리 들어 간다니깐요.

A : 그러니까. 같이 만나면 다 동화된다 이거지?

B : 지금 북한에는 솔직히 문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끼리도 남한 노래 듣고... 와~~ 남한 노래 좋다...

C : 아... 예... 그래요.

A : 아... 어떻게 들어? 그거... 아... 카세트 같은 거 통해서?

B, C : 테이프...

B : 예... 그런 거 듣고... 진짜 남한 노래... 이라는 데... 진짜 자본주의 문화는 정말 빨리 전해져요. 뭐, 현철, 현미 노래하는 거...

A : 아... 그래

C : 사랑... 나훈아... 그런 거 몰래 듣고...

A : 그럼 그런 거를 들으면 북한에서도 정보는 없지만 남한은 뭔가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네?

C : 아...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해요. 남한학생도 매우 신비하게 생각해요.

A : 근데 정부에서는 북한정부에서는 남한은 매우 못살고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게 들어오면 ‘어,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C :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마음 맞는 애들끼리 이야기할 때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노래를 보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B : 근데 그게 내놓고 ‘야~~ 남한 노래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그냥 ‘야, 그 노래 들어봤나?’ 이렇게 얘긴 해도 ‘야, 그 라디오 들어봤나?’ 이런 말은 못해요. 음악은 사상성이 없어서 괜찮지만 라디오나 뭐 이런 것은 그 나라의 정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애들이 속으로 생각해도 ‘아... 이런 거는 말하면 안된다’ 생각하죠. 근데 음악은 친구들

끼린 얘기해요. 물론 안전부나 이런데 걸리면 안되지만... 근데 라디오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못해요. 근데 제가 있던 때는 남한 뼈라가 많이 들어왔어요 TV도 잘 걸렸었어요.

A : 아... 그래...

B : 그래서 제가 황장엽 망명할 때도 다 봤거든요.

A : 아 그게 잡혀 거기에?

B : 잘 잡혀요. 우리 칼라 TV 였는데 칼라로 다 나와요. 그게 NTSC하고 Pal 방식하고...

A : 그렇지.....

B : 근데 그게 안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린 됐었어요.

C : TV보면요. 채널 못 돌리게 붙여놔요. 근데 그게 뜯어서 다시 해놓으면 다 나와요.

A : 아...

C : 집에서 몰래...

B : 북한이 워낙 기술이 약해 가지고 수동 채널은 고정할 수 있는데 원격 채널은 고정을 못해요. 그래서 전 남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았었어요. 지금 현실의 남한보다 더 과장적인 것을 많이 알았어요. 남한의 언론이 좀 과장적 이잖아요. 그리고 사회 교육방송이나 이런 것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이라 과장된 것이 좀 많아요. 이제 다 그렇게 알았다가 한국에 와서 실망한 것도 좀 많고, 어쨌든 북한보다는 훨씬 낫죠.

C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아빠 남한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랐어요. '남한 잘 산다고... 노래를 좀 보라... 틀리잖니?' 그런 얘기 자주 했었어요. 저도 처음엔 아버지 그런 생각하지 마요. 그럼 반동이지 뭐 그런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정말...

A : 아... 근데 그 이질성 같은 거 얘기 많이 했었잖아... 가장 큰 차이가 뭐라 생각하니?

B : 그걸 뭐라고 해야되나...

A : 뭐? 어떤 뭐...

B : 아~~어쨌든 같은 피... 같은 핏줄...

A : 같은 핏줄이라고 생각해?

B : 예... 같은 핏줄이에요

A : 어~~

B : 사람들이 어떤 때는 뭔가 생각하는 각도가 같을 때도 있고 저하고 생활하는 풍습이 같을 때도 있고

A : 어~

B : 여기는 서양화 되서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같은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죠

A : 저런 건 없나? 여기 한국사람하고 ‘정’ 뭐 ‘끈끈함’ 뭐 ‘가족’ 이런 거 얘기하는데 북한은 어때?

B : 예... 예... 정이나 끈끈함 그런 건 여기보다 북한이 더 많아요

A : 그래?

B : 사회정책이니까... 아무래도 사회정책이지만 자본주의보다는 집단적인 생활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서로가 좀 어렵고 쌀도 없고 하니깐 힘들 때일수록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울 때 뭉치는 거예요

A : 아~그렇구나

B : 살아온 그 과정이 다를 뿐이지 뭐 사람 서로 같이 마주 앉혀놓으면 공통점이 많아요

A : 그러면 지금... 사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같은 점이 증가해야지 통일하기도 쉽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노력을 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괄적이고 넓고 너무 그렇긴 한데,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B : 체제가 다르니까... 김정일은 원래부터 자기 아버지 때부터 체제가 독재체제로 생각해서 그 체제로 이어 받아서 그 체제로 지금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워낙~~~ 그 사람 죄를 진 게 많기 때문에... 꺼떡 하면 ‘중국식으로 개방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외부세계에서 뭐 들어오는 거 다 듣고 하게 되면은 김정일이야 결코 무사치는 못해요 그 사람... 자기가 그 나라를 개방시키고 그 나라를 잘 살게 해도 과거 저지른 죄에 대해선 용서는 못 받아요. 너무 심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북한주민)이 알게 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김정일)이 다 그걸 알기 때문에 개방을 안하고 햇볕정책도 다 받아들이면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안하거든요. 뭔가 김정일하고는 두 나라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뭔가 그 유연점을 찾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A : 지금 들어보니깐 그렇다면 결국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

가 붕괴되야 된다는 거지?

B : 그렇죠. 붕괴되야 된다 그거죠.

A : 근데 북한내부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B : 내부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그건 배재할 순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A : 여기서 들으면 군부에서 뭐...

B : 아~~여기는 그건 다 허황한 소리예요.

A : 아..그래

B : 개가 군부를 다 장악했고 옛날에 김일성일 때 있던 세력들을 다 데리고 있어요. 김정일이... 뽑은 게 가에 있던 어린애들을 다 뽑은 거예요. 어느 정도 중간층에 있던 애들을 뽑은 게 아니라 밑자리에서 헤매던 애들을 뽑으니깐 그런 애들 뽑으면 더 충성하죠. 자기가 어느 정도 신임으로 뺏다가 김정일이가 뽑아줬다 하니까. 예를 들면 000의 아들...

A : 아~~들어왔어

B : 개가 최 측근이에요. 게나 000이라고 하는... 개는 육군단 군단장 하던 앤데 육군단 사건 때 육군단 정치의원이 뭐 안기부하고 연관되었다고 할 때 육군단 군단장이 그놈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런 거에 뺏다니깐요. 자기 집안세력을 탄탄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다 충성을 하는 거예요. 김정일이 없으면 그 아랫놈들도 다 숙청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자기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김정일을 지키는 거예요. 총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마따나 '공개총살' 썩 죽이면 되요. 총 앞에다 대고 어떤 사람이 감히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A : 남한청소년들한테 어떤 통일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면 뭐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 거 같아? 그렇게 가서 강연을 하고 그래도 애들이 관심이 없잖아?

B : 아...관심이 없고 그런데 일단은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현실을 알려준다는 게 전부 다 과장된 현실밖에 못 알려줘요.

C : 예. 그 테이프 비디오 보여줘도 애들이 믿지 않아요.

A : 아...

A : 그때 한 번 '이것이 알고싶다'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같이 봤는데...중

국에서 봤댔어요. 그 목사님 애들과 같이 봤는데.....이해를 못하고...
저렇게 보든 말라가지고 ‘저게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고 ‘저거 혹시
병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A : 그랬었어?

C : 개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무슨 병에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뭐 진짜 고생해서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보다 키
가 작냐?’ 그러든 아까 ‘못 먹어서 그랬다’하면 믿어지지...

A : 아...그렇게 알려 주는 거...

B : 북한의 언론매체 보면 북한의 현실을 몰라요. 북한의 언론매체는 그거
는 학생들의 통일교육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 개
내가 언론매체가 김일성 김정일 사상교육으로 수단으로 쓰여지기 때
문에 여기 학생들 그거 봐야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뭐 김일성이 김
정일이 기록영화 나오고 영화자체도 사상적인 영화예요. 여기 나온
거 보면 홍콩미인 이런 거 나오고 애들도 다 봐요. 여기 애들이 북한
영화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C : 재미없죠

B : 재미없고 근데 그게 통일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 안하고... 현실
을 알 수는 없겠지만 진짜 그게 어려운 거 같아요. 애들을 교육을 시
켜준다는 게... 남한은 문을 열어놨지만 북한은 저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못 나가게 하고 남한 기자들이 가도 어디만 찍을 려고 해도 요
거만 찍어라 누구만 만나라... 저번에 한양대 또 강연 갔는데 8·15
행사 갔던 애가 한 명 있는데 자기는 종합대학 학생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북한체제에 만족을 느끼고 산다고... <웃
음> 진짜 어려운 너무 문제요. 이거는 북한의 현실을 알려야 한다는 건..
북한은 이렇게 딱 막고 벌써 그게 공고화 너무 됐기 때문에 북한의 그
속내를 안다는 게 힘들죠. 근데 우리가 딱 나가게되면 솔직히 애들은 거기
서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겠지만 솔직히 나부터두 ‘저 새끼 북한 나쁘다고나
온 새끼데 북한 나쁘다고만 그러겠지 좋다고 말하겠나’ 이렇게 이해하지 그
게 진짜라고... 그런 사람들 중 일부는 믿겠지만 그건 대부분 믿지를 않는
다는 거죠

A : 지금 가족은? 부모님 계시구?

B : 부모님하고 누님하고

A : 여기는?

C : 아버지, 언니, 둘 남동생...

A : 많다... 종교는 지금은 없어?

B : 없어요

C : 있어요. 기독교요

A : 아... 기독교... 목사님 거기서 만났나?

C : 아니요. 우리 가족 아빠, 엄마가 그 길을 알지만 우리 목사님이 알려
줬지만 우리끼리 절로 찾아 가지고 면데 버마, 태국을 거쳐서...

A : 어휴~고생 많이 했겠다

C : 고생 많이 했죠..

A : 그럼 그래...지금 여기서 사는데 다른 문제들 없어?

B, C : 예

A : 앞으로 다 좋을 테니깐 원하는 일, 뭐가 되고 싶어?
너는 무슨 일 하고싶어?

B : 우선 마케팅 쪽에 제가 지금 경영을 하니깐

A : 사업가가 되시겠네....

B : 제가 지금 전공이 그거니깐...전공을 살려서

A : 나도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하고 싶어?

c : 저는 무역하고 싶어요

A : 무역..아 사업인데 그것도... 그래 너무 고맙습니다.

[부 록 3]

설문조사결과 단순 집계표

[문 1] 성별은?

1. 남자	578	(49.6%)
2. 여자	587	(50.4%)

[문 3] 학교 계열은?

1. 인문계고등학교	906	(77.8%)
2. 실업계 고등학교	258	(22.2%)

[문 2] 학년은?

1. 고1	414	(35.5%)
2. 고2	709	(60.8%)
3. 고3	43	(3.7%)

[문 5] 아버지의 학력은? (중퇴도 졸업에 포함, 예: '중학 중퇴'는 '중졸'로)

1. 무학	10	(0.9%)
2. 국졸	38	(3.3%)
3. 중졸	106	(9.1%)
4. 고졸	533	(45.9%)
5. 대졸	380	(32.7%)
6. 대학원 이상	95	(8.2%)

[문 6]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못 사는 편	22	(1.9%)
2. 중간보다 못 사는 편	193	(16.6%)
3. 중간수준	802	(68.8%)
4. 중간보다 잘 사는 편	137	(11.7%)
5. 매우 잘 사는 편	12	(1.0%)

[문 7] 가족(조부모님 또는 부모님) 중에 남북 이산가족이 있습니까?

- | | | |
|-------|------|---------|
| 1. 있다 | 138 | (11.9%) |
| 2. 없다 | 1024 | (88.1%) |

[문 8] 당신은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종교입니까?

- | | | |
|-------------|-----|---------|
| 1. 종교가 없다 | 446 | (38.3%) |
| 2. 기독교 신교 | 395 | (33.9%) |
| 3. 가톨릭(성당) | 126 | (10.8%) |
| 4. 불교 | 176 | (15.1%) |
| 5. 유교 | 2 | (0.2%) |
| 6. 기타 다른 종교 | 20 | (1.7%) |

[문 9] 당신은 통일문제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 | | |
|--------------|-----|---------|
| 1. 전혀 관심이 없다 | 67 | (5.8%) |
| 2. 관심이 없다 | 156 | (13.4%) |
| 3. 그저 그렇다 | 579 | (49.8%) |
| 4. 관심이 있다 | 313 | (26.9%) |
| 5. 매우 관심이 있다 | 48 | (4.1%) |

[문 10] 현재와 같은 남북한 분단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21 | (10.4%) |
| 2. 만족하지 않는다 | 439 | (37.7%) |
| 3. 그저 그렇다 | 514 | (3.9%) |
| 4. 만족한다 | 77 | (6.6%) |
| 5. 매우 만족한다 | 17 | (1.5%) |

[문 11] 남북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1. 절대로 통일은 되지 말아야 한다 | 34 | (2.9%) |
| 2. 통일은 되지 말아야 한다 | 177 | (15.2%) |
| 3.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 709 | (61.0%) |
| 4.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 242 | (20.8%) |

[문 12] 다음은 우리사회에서 통일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되고 있는 요인들입니다. 각 요인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통일에 장애가 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남북한의 이념 대립

1.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35	(3.0%)
2. 장애가 되지 않는다	49	(4.2%)
3. 보 통	268	(23.0%)
4. 장애가 된다	522	(44.9%)
5. 매우 장애가 된다	289	(24.8%)

2)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

1.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22	(1.9%)
2. 장애가 되지 않는다	57	(4.9%)
3. 보 통	269	(23.1%)
4. 장애가 된다	490	(42.1%)
5. 매우 장애가 된다	325	(27.9%)

3)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

1.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46	(4.0%)
2. 장애가 되지 않는다	106	(9.1%)
3. 보 통	314	(27.0%)
4. 장애가 된다	434	(37.3%)
5. 매우 장애가 된다	264	(22.7%)

4)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1.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46	(4.0%)
2. 장애가 되지 않는다	57	(4.9%)
3. 보 통	208	(17.9%)
4. 장애가 된다	412	(35.4%)
5. 매우 장애가 된다	441	(37.9%)

5) 남북한간의 이질성 심화		
1.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37	(3.2%)
2. 장애가 되지 않는다	77	(6.6%)
3. 보 통	374	(32.1%)
4. 장애가 된다	424	(36.4%)
5. 매우 장애가 된다	252	(21.6%)
6) 통일방법상의 차이		
1.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26	(2.2%)
2. 장애가 되지 않는다	77	(6.6%)
3. 보 통	395	(33.9%)
4. 장애가 된다	420	(36.1%)
5. 매우 장애가 된다	246	(21.1%)
7) 북한의 공산주의체제 고수		
1.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23	(2.0%)
2. 장애가 되지 않는다	44	(3.8%)
3. 보 통	211	(18.1%)
4. 장애가 된다	398	(34.2%)
5. 매우 장애가 된다	487	(41.9%)
8) 주한미군 주둔		
1.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46	(4.0%)
2. 장애가 되지 않는다	95	(8.2%)
3. 보 통	344	(29.6%)
4. 장애가 된다	391	(33.6%)
5. 매우 장애가 된다	288	(24.7%)
9)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1.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69	(5.9%)
2. 장애가 되지 않는다	141	(12.1%)
3. 보 통	346	(29.7%)

4. 장애가 된다	352	(30.2%)
5. 매우 장애가 된다	256	(22.0%)
10) 상호 통일이지 결여		
1.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68	(5.8%)
2. 장애가 되지 않는다	121	(10.4%)
3. 보 통	426	(36.6%)
4. 장애가 된다	360	(31.0%)
5. 매우 장애가 된다	188	(16.2%)
11) 상호 실질적인 노력부족		
1.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51	(4.4%)
2. 장애가 되지 않는다	89	(7.7%)
3. 보 통	387	(33.3%)
4. 장애가 된다	388	(33.4%)
5. 매우 장애가 된다	248	(21.3%)

[문 13] 현 단계에서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중요시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과제들의 중요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남북한간의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34	(2.9%)
2. 중요하지 않다	44	(3.8%)
3. 보 통	204	(17.5%)
4. 중요하다	485	(41.7%)
5. 매우 중요하다	397	(34.1%)
2)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와 동질성 증진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2	(1.9%)
2. 중요하지 않다	53	(4.6%)
3. 보 통	284	(24.4%)

4. 중요하다	472	(40.5%)
5. 매우 중요하다	333	(28.6%)
3) 서신왕래 및 이산가족 등의 상호방문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2	(1.9%)
2. 중요하지 않다	44	(3.8%)
3. 보 통	264	(22.7%)
4. 중요하다	454	(39.0%)
5. 매우 중요하다	380	(32.6%)
4) 남북한 고위당국자간의 평화협정체결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9	(2.5%)
2. 중요하지 않다	55	(4.7%)
3. 보 통	304	(26.1%)
4. 중요하다	456	(39.2%)
5. 매우 중요하다	320	(27.5%)
5)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7	(2.3%)
2. 중요하지 않다	51	(4.4%)
3. 보 통	247	(21.2%)
4. 중요하다	419	(36.0%)
5. 매우 중요하다	419	(36.0%)
6)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51	(4.4%)
2. 중요하지 않다	105	(9.0%)
3. 보 통	405	(34.8%)
4. 중요하다	351	(30.2%)
5. 매우 중요하다	251	(21.6%)

7) 문화, 학술 등과 같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33	(2.8%)
2. 중요하지 않다	53	(4.6%)
3. 보 통	287	(24.7%)
4. 중요하다	445	(38.3%)
5. 매우 중요하다	345	(29.7%)

8) 남북한의 국방예산·군비축소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67	(5.8%)
2. 중요하지 않다	102	(8.8%)
3. 보 통	427	(36.7%)
4. 중요하다	330	(28.4%)
5. 매우 중요하다	236	(20.3%)

[문 14]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미흡하다	352	(30.4%)
2. 미흡하다	497	(43.0%)
3. 그저 그렇다	231	(20.0%)
4. 적절하다	61	(5.3%)
5. 매우 적절하다	15	(1.3%)

[문 15] 북한에 관한 정확한 지식·정보를 얻는데 다음의 각 매체와 사람들은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TV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3	(5.4%)
2. 도움이 되지 않는다	73	(6.3%)
3. 그저 그렇다	318	(27.3%)
4. 도움이 된다	485	(41.7%)
5. 매우 도움이 된다	225	(19.3%)

2) 신문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84	(7.2%)
2.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5	(10.7%)
3. 그저 그렇다	445	(38.2%)
4. 도움이 된다	381	(32.7%)
5. 매우 도움이 된다	129	(11.1%)

3) 학교수업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50	(21.5%)
2. 도움이 되지 않는다	342	(29.4%)
3. 그저 그렇다	418	(35.9%)
4. 도움이 된다	120	(10.3%)
5. 매우 도움이 된다	34	(2.9%)

4) 부모님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36	(20.3%)
2.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3	(25.2%)
3. 그저 그렇다	438	(37.6%)
4. 도움이 된다	159	(13.7%)
5. 매우 도움이 된다	38	(3.3%)

5) 친구·선후배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80	(41.3%)
2. 도움이 되지 않는다	313	(26.9%)
3. 그저 그렇다	274	(23.6%)
4. 도움이 된다	69	(5.9%)
5. 매우 도움이 된다	27	(2.3%)

6) 인터넷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78	(15.3%)
2.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5	(14.2%)
3. 그저 그렇다	371	(31.9%)
4. 도움이 된다	317	(27.2%)
5. 매우 도움이 된다	133	(11.4%)

[문 16] 만약, 당신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부모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실 것으로 생각됩니까?

1. 적극적으로 반대하실 것이다	58	(5.0%)
2. 반대하실 것이다	127	(10.9%)
3. 찬성하실 것이다	432	(37.1%)
4. 적극적으로 찬성하실 것이다	191	(16.4%)
5. 잘 모르겠다	356	(30.6%)

[문 17] 만약, 당신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다음의 활동에 대하여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1) 북한의 역사·문화유적지 답사활동

1.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85	(7.3%)
2. 참여하고 싶지 않다	139	(12.0%)
3. 그저 그렇다	312	(26.8%)
4. 참여하고 싶다	424	(36.5%)
5.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203	(17.5%)

2) 북한청소년과의 음악·미술 등 예술활동 교류

1.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82	(7.1%)
2. 참여하고 싶지 않다	127	(10.9%)
3. 그저 그렇다	307	(26.4%)
4. 참여하고 싶다	409	(35.2%)
5.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238	(20.5%)

3) 북한청소년과의 스포츠 교류활동

1.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84	(7.2%)
2. 참여하고 싶지 않다	150	(12.9%)
3. 그저 그렇다	374	(32.2%)
4. 참여하고 싶다	341	(29.3%)
5.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214	(18.4%)

4) 북한의 명승지·관광지 여행		
1.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72	(6.2%)
2. 참여하고 싶지 않다	103	(8.8%)
3. 그저 그렇다	246	(21.1%)
4. 참여하고 싶다	418	(35.9%)
5.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325	(27.9%)
5) 북한청소년과의 국토순례대행진		
1.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156	(13.4%)
2. 참여하고 싶지 않다	189	(16.2%)
3. 그저 그렇다	354	(30.4%)
4. 참여하고 싶다	253	(21.7%)
5.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212	(18.2%)
6) 북한청소년과의 인터넷 교류(메일/채팅 등)		
1.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83	(7.1%)
2. 참여하고 싶지 않다	131	(11.3%)
3. 그저 그렇다	312	(26.8%)
4. 참여하고 싶다	349	(30.0%)
5.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289	(24.8%)
7) 북한청소년과의 종교관련 활동		
1.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387	(33.3%)
2. 참여하고 싶지 않다	293	(25.2%)
3. 그저 그렇다	295	(25.4%)
4. 참여하고 싶다	119	(10.2%)
5.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69	(5.9%)

[문 18] 북한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다를 것이다	377	(32.7%)
2. 다를 것이다	549	(47.7%)
3. 같을 것이다	135	(11.7%)
4. 매우 같을 것이다	91	(7.9%)

[문 19] 북한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성격이나 행동면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각 성격·행동 특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주십시오.

1) 타율적/자율적

1. 매우 타율적이다	367	(31.5%)
2. 대체로 타율적이다	400	(34.4%)
3. 중간	264	(22.7%)
4. 대체로 자율적이다	82	(7.0%)
5. 매우 자율적이다	51	(4.4%)

2) 집단주의적/개인주의적

1. 매우 집단주의적이다	522	(44.8%)
2. 대체로 집단주의적이다	331	(28.4%)
3. 중간	191	(16.4%)
4. 대체로 개인주의적이다	74	(6.4%)
5. 매우 개인주의적이다	46	(4.0%)

3) 몰개성적/개성적

1. 매우 몰개성적이다	402	(34.5%)
2. 대체로 몰개성적이다	358	(30.8%)
3. 중간	288	(24.7%)
4. 대체로 개성적이다	71	(6.1%)
5. 매우 개성적이다	45	(3.9%)

4) 폐쇄적/개방적		
1. 매우 폐쇄적이다	385	(33.1%)
2. 대체로 폐쇄적이다	361	(31.0%)
3. 중간	288	(24.8%)
4. 대체로 개방적이다	84	(7.2%)
5. 매우 개방적이다	45	(3.9%)
5) 경쟁적/협동적		
1. 매우 경쟁적이다	208	(17.9%)
2. 대체로 경쟁적이다	193	(16.6%)
3. 중간	342	(29.4%)
4. 대체로 협동적이다	222	(19.1%)
5. 매우 협동적이다	199	(17.1%)
6) 엄격/자유		
1. 매우 엄격하다	504	(43.3%)
2. 대체로 엄격하다	308	(26.5%)
3. 중간	209	(18.0%)
4. 대체로 자유적이다	80	(6.9%)
5. 매우 자유적이다	63	(5.4%)
7) 불성실/성실		
1. 매우 불성실하다	66	(5.7%)
2. 대체로 불성실하다	101	(8.7%)
3. 중간	313	(26.9%)
4. 대체로 성실하다	331	(28.5%)
5. 매우 성실하다	352	(30.3%)
8) 게으름/근면		
1. 매우 게으르다	54	(4.6%)
2. 대체로 게으르다	82	(7.1%)
3. 중간	354	(30.4%)
4. 대체로 근면하다	343	(29.5%)
5. 매우 근면하다	330	(28.4%)

9) 비사교적/사교적

1. 매우 비사교적이다	172	(14.8%)
2. 대체로 비사교적이다	218	(18.8%)
3. 중간	508	(43.7%)
4. 대체로 사교적이다	186	(16.0%)
5. 매우 사교적이다	78	(6.7%)

[문 20] 북한은 남한과 비교할 때 다음의 각 측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생활방식(의식주 등)

1. 전혀 다를 것이다	239	(20.5%)
2. 다를 것이다	494	(42.4%)
3. 보통이다	269	(23.1%)
4. 같을 것이다	128	(11.0%)
5. 매우 같을 것이다	34	(2.9%)

2) 가치관·사고방식

1. 전혀 다를 것이다	392	(33.7%)
2. 다를 것이다	536	(46.0%)
3. 보통이다	160	(13.7%)
4. 같을 것이다	58	(5.0%)
5. 매우 같을 것이다	18	(1.5%)

3) 가정생활

1. 전혀 다를 것이다	221	(19.0%)
2. 다를 것이다	472	(40.5%)
3. 보통이다	310	(26.6%)
4. 같을 것이다	124	(10.7%)
5. 매우 같을 것이다	37	(3.2%)

4) 언어생활

1. 전혀 다를 것이다	273	(23.5%)
2. 다를 것이다	559	(48.1%)
3. 보통이다	223	(19.2%)
4. 같을 것이다	85	(7.3%)
5. 매우 같을 것이다	22	(1.9%)

5) 놀이문화

1. 전혀 다를 것이다	349	(30.0%)
2. 다를 것이다	497	(42.7%)
3. 보통이다	205	(17.6%)
4. 같을 것이다	85	(7.3%)
5. 매우 같을 것이다	27	(2.3%)

6) 학교생활

1. 전혀 다를 것이다	308	(26.5%)
2. 다를 것이다	497	(42.7%)
3. 보통이다	250	(21.5%)
4. 같을 것이다	82	(7.1%)
5. 매우 같을 것이다	26	(2.2%)

7) 전통문화

1. 전혀 다를 것이다	122	(10.5%)
2. 다를 것이다	289	(24.8%)
3. 보통이다	375	(32.2%)
4. 같을 것이다	296	(25.5%)
5. 매우 같을 것이다	81	(7.0%)

8) 역사의식

1. 전혀 다를 것이다	209	(18.0%)
2. 다를 것이다	327	(28.1%)
3. 보통이다	304	(26.1%)

4. 같을 것이다	231	(19.9%)
5. 매우 같을 것이다	92	(7.9%)
9) 종교관련 의식 및 활동		
1. 전혀 다를 것이다	271	(23.3%)
2. 다를 것이다	379	(32.6%)
3. 보통이다	350	(30.1%)
4. 같을 것이다	121	(10.4%)
5. 매우 같을 것이다	42	(3.6%)

[문 21] 남한과 북한사회를 비교할 때 전통적인 규범이나 관습의 사회적 영향력은 어느 쪽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권위주의

1. 북한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534	(46.3%)
2. 북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349	(30.3%)
3.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186	(16.1%)
4.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84	(7.3%)

2) 가부장주의

1. 북한 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483	(41.8%)
2. 북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355	(30.7%)
3.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211	(18.3%)
4.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106	(9.2%)

3) 남존여비사상

1. 북한 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431	(37.4%)
2. 북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363	(31.5%)
3.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235	(20.4%)
4.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122	(10.6%)

4) 지역주의(연고주의)

1. 북한 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132	(11.5%)
2. 북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205	(17.8%)
3.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415	(36.1%)
4.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397	(34.6%)

5) 가족중심주의

1. 북한 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160	(14.0%)
2. 북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217	(19.0%)
3.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439	(38.4%)
4.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328	(28.7%)

6) 학벌주의

1. 북한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78	(6.8%)
2. 북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95	(8.3%)
3.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279	(24.3%)
4.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694	(60.6%)

7) 상부상조의 관습

1. 북한 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292	(25.5%)
2. 북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451	(39.4%)
3.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314	(27.4%)
4.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87	(7.6%)

8) 부모에 대한 효도 관념

1. 북한 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332	(28.9%)
2. 북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402	(35.0%)
3.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305	(26.6%)
4.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108	(9.4%)

9) 조상숭배 사상

1. 북한 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307	(26.6%)
2. 북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383	(33.2%)
3.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322	(27.9%)
4.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141	(12.2%)

10) 노인공경의식

1. 북한 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272	(23.7%)
2. 북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420	(36.6%)
3.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약간	338	(29.5%)
4. 남한이 더 강할 것이다: 훨씬	117	(10.2%)

[문 22] 분단 이후에 남북한 주민들간의 이질화를 심화시킨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생활방식의 차이(의식주 등)	120	(10.3%)
2. 학교 교육	86	(7.4%)
3. 남북한간 대중문화의 차이	161	(13.9%)
4. 남북한간 경제적 불균형	190	(16.4%)
5. 이념·사상적 차이	414	(35.6%)
6. 정치체제상의 차이	191	(16.4%)

[문 23] 남북한간의 동질성 증진을 위해 북한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북한사회의 개혁·개방	298	(25.7%)
2. 김정일 체제의 붕괴	333	(28.7%)
3. 북한사회의 경제적 발전	155	(13.4%)
4.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79	(6.8%)
5. 남한과의 교류·협력 확대	294	(25.4%)

[문 24] 남북한간의 동질성 증진을 위해 남한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통일교육의 개선	206	(17.8%)
2. 대중매체 등의 북한에 대한 보도내용의 개선	192	(16.6%)
3. 정부 대북정책의 전환(수정)	168	(14.5%)
4. 북한과의 교류·협력 확대	536	(46.3%)
5.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	55	(4.8%)

[문 25] 다음은 남북한의 통일과 동질성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정부, 시민사회, 청소년부문으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각 과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주십시오.

※ 정부차원

1) 통일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69	(6.0%)
2. 중요하지 않다	107	(9.2%)
3. 보통	341	(29.4%)
4. 중요하다	476	(41.1%)
5. 매우 중요하다	165	(14.2%)

2)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의 확대·발전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64	(5.5%)
2. 중요하지 않다	119	(10.3%)
3. 보통	424	(36.6%)
4. 중요하다	409	(35.4%)
5. 매우 중요하다	141	(12.2%)

3) 정부중심의 교류·협력 확대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55	(4.8%)
2. 중요하지 않다	101	(8.7%)
3. 보통	302	(26.1%)
4. 중요하다	430	(37.2%)
5. 매우 중요하다	269	(23.2%)

4) 고위당국자간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전개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50	(4.3%)
2. 중요하지 않다	89	(7.7%)
3. 보통	267	(23.1%)
4. 중요하다	417	(36.0%)
5. 매우 중요하다	334	(28.9%)
5) 통일관련 예산의 증액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73	(6.3%)
2. 중요하지 않다	161	(13.9%)
3. 보통	438	(37.8%)
4. 중요하다	350	(30.2%)
5. 매우 중요하다	136	(11.7%)
6) 통일교육과 북한관련 교과내용의 개선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66	(5.7%)
2. 중요하지 않다	99	(8.6%)
3. 보통	340	(29.4%)
4. 중요하다	409	(35.4%)
5. 매우 중요하다	243	(21.0%)
※ 시민사회차원		
1) 북한관련 대중매체의 보도 내용 개선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61	(5.3%)
2. 중요하지 않다	81	(7.0%)
3. 보통	306	(26.4%)
4. 중요하다	467	(40.3%)
5. 매우 중요하다	243	(21.0%)
2) 시민단체의 교류·협력 참가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43	(3.7%)
2. 중요하지 않다	91	(7.9%)

3. 보통	349	(30.1%)
4. 중요하다	444	(38.3%)
5. 매우 중요하다	231	(19.9%)
3) 범국민적 통일외식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의 전개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62	(5.4%)
2. 중요하지 않다	101	(8.7%)
3. 보통	420	(36.3%)
4. 중요하다	368	(31.8%)
5. 매우 중요하다	207	(17.9%)
4)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74	(6.4%)
2. 중요하지 않다	123	(10.6%)
3. 보통	405	(35.0%)
4. 중요하다	376	(32.5%)
5. 매우 중요하다	179	(15.5%)
※ 청소년차원		
1) 청소년관련 교류·협력의 참가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70	(6.0%)
2. 중요하지 않다	94	(8.1%)
3. 보통	329	(28.4%)
4. 중요하다	453	(39.1%)
5. 매우 중요하다	212	(18.3%)
2) 북한동포돕기 운동(식량, 의약품, 의류 등)의 적극적인 참여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71	(6.1%)
2. 중요하지 않다	126	(10.9%)
3. 보통	370	(32.0%)
4. 중요하다	386	(33.3%)
5. 매우 중요하다	205	(17.7%)

3) 통일관련 청소년운동의 전개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92	(7.9%)
2. 중요하지 않다	131	(11.3%)
3. 보통	437	(37.7%)
4. 중요하다	358	(30.9%)
5. 매우 중요하다	140	(12.1%)
4) 청소년들의 통일관련 관심의 제고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66	(5.7%)
2. 중요하지 않다	101	(8.7%)
3. 보통	366	(31.6%)
4. 중요하다	426	(36.8%)
5. 매우 중요하다	199	(17.2%)
5) 통일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77	(6.7%)
2. 중요하지 않다	111	(9.6%)
3. 보통	370	(32.0%)
4. 중요하다	378	(32.7%)
5. 매우 중요하다	221	(19.1%)